

한양도성과 중구의 각자성석

刻 字 城 石



서울 중구문화원
SEOUL JUNG GU CULTURAL CENTER

한양도성과
중구의 각자성석
刻字城石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한양도성과 중구의 각자성석

刻 字 城 石

발간사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한양도성과 중구의 각자성석(刻字城石)>을 발간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중심인 중구는 한양 천도(1394년) 이래로 서울 속의 서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수많은 문화유산으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한양도성은 단순한 도성 차원을 넘어 조선시대 태조·세종대에 우리 선조들께서 농한기 엄동설한에 수십만 명이 동원되어 축조된 도성으로, 성돌 하나하나에 선조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한양도성의 문화자산이 많이 남아 있어 국내의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양도성의 정문인 숭례문을 비롯하여 광희문, 남산의 물을 청계천으로 흘려보낸 이간수문, 조선시대 공사실명제인 각자성석, 표석만 남고 역사의 뒤편 길로 사라진 서대문과 서소문, 남소문, 조선을 수호하는 신령한 산 남산의 목멱신사와 봉수대가 있습니다. 특히 각자성석은 도성의 내사산인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가운데 우리 남산에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도성을 지키는 주요한 군영(軍營)이었던 금위

영과 어영청의 분영인 남별영과 남소영, 훈련도감의 분감인 하도감 등이 중구에 자리하여 숙종 이후 도성 수축 공사를 맡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훈련도감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컸던 하도감은 DDP 건립 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굴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조들이 물려준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고, 연구·조사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자는 중구문화원이 기획 추진한 한양도성과 중구 지역의 각자성석을 연구 조사하면서 정리한 결과물로, 우리 중구의 한양도성과 각자성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서울 중구 향토사 자료를 제17집까지 발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의 향토자료를 끊임없이 연구·조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많은 협조를 해주신 최창식 중구청장님과 서울시 문화원연합회 김태웅 회장님, 중구문화원의 김광시 이사님과 한옥현 이사님을 비롯하여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장 이 중 철

제1장
한양도성

발간사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장 이 중 철

1.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쌓다 • 12

산세가 빼어난 길지(吉地) 한양
새로운 왕조 조선의 새 도읍
지극한 마음으로 쌓은 도성
전국에서 19만 7,470명을 동원한 대역사

2.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우다 • 26

10여 년간 이루어진 한양 정비
백성을 보듬어 살핀 태종의 마음
세종, 도성을 더욱 견고하게 쌓다

3. 한양도성, 새로운 숨을 불어넣다 • 40

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수성금화도감
숙종, 도성의 군사적 기능을 강화하다
영조, 도성 방어체제를 확립하다
경복궁과 흥인지문을 재건하다

4. 일제강점기, 한양도성을 훼손하다 • 52

망국의 폐허로 전락한 한양도성
도성을 허물고 파괴한 성벽처리위원회
조선신궁, 남산을 유린하다

5. 한양도성, 현재와 공존하며 새로이 태어나다 • 62

광복 후에도 끝나지 않은 도성의 수난
새롭게 복원되는 한양도성의 가치와 의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한양도성

제2장

중구의
한양도성
각자성석

1. 한양도성 역사를 새긴 각자성석 • 74

288개의 한양도성 각자성석

천자문 글자로 구간을 표시한 한양도성

한양도성의 공사실명제 각자성석

2. 중구의 한양도성 각자성석 • 81

태조 대의 각자성석이 가장 많은 중구의 각자성석

남산의 한양도성 각자성석

한양도성과 운명을 함께 한 석수 '안이토리'

3. 중구의 한양도성 각자성석 도록 • 89

제3장

중구의
한양도성
문화자원

1. 서울의 대문 송례문 • 150

한국 건축사에 길이 남을 목조건축물

불로써 불을 다스린 송례문 현판

배다리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진 현판

일제도 허물지 못한 500년 역사

서울의 역사로 다시 선 송례문

2. 빛나는 광명의 문 광희문 • 162

한양도성의 물이 밖으로 흘러나갔던 '수구문'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시구문'

세종 대부터 형성된 광희문 밖 민가

도성의 병자와 빈민을 구제한 '동활인서'

이괄이 도주한 광희문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

3. 광희문 치성 • 172

지세가 낮은 광희문 일대에 쌓은 치성

동대문운동장 일대에서 발굴한 치성과 성곽

4. 한양도성의 수문 • 178

80여 년 만에 세상에 나온 이간수문

임꺽정이 도주한 오간수문

5. 비운의 역사로 사라진 남소문 • 184

남소문이 서 있던 버티고개

한강나루로 가는 지름길 남소문

6. 남산에서 최초로 발굴한 성랑 • 193

도성을 지키는 초소 성랑

백성과 함께 도성 사수를 천명한 영조

삼군영의 도성 관리와 성랑

기록에서 현실로 나온 남산의 성랑

7. 국태민안을 기원한 목멧신사 • 198

남산, 조선을 수호하는 신령한 산

왕도 건설의 염원을 담은 고유문

도성의 사당 목멧신사

목멧신사를 강제로 밀어낸 조선신궁

8. 전국 봉화의 종착점 남산 봉수대 • 207

세종 대에 설치한 목멧산 봉수대

남산으로 집결한 봉화의 경로

평시에도 점검한 국토방위 안전망

9. 남산에 자리했던 군사시설 • 213

남별영

남소영

하도감

10. 한양도성의 비밀통로 암문 • 218

인조의 밀서를 전했던 암문
도성민들의 지름길 장충동 암문

11. 한양의 그린벨트 성저십리 • 222

부석소와 채석장
왕실의 안전과 도성민들의 환경을 위한 성저십리
구전으로 전하는 중구의 채석장

부록

1. 한양도성 살펴보기 • 228

시대별 축성방식
성벽의 구조
방어시설
도성문
도성 순라
도성 순성

2. 한양도성 순성길 • 246

흥인지문 구간
남산 구간
숭례문 구간
인왕산 구간
백악 구간
낙산 구간

3. 한양도성 순성 안내도 • 264

참고자료 • 268



제1장

한양도성



1.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쌓다

서울은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현재와 함께 숨 쉬는 역사의 도시, 문화의 도시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한양도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양도성은 곧 조선의 도읍이었고, 조선의 수도 한양을 지켜온 성이었다. 그리고 도성민의 삶을 지켜온 울타리였다.

한양도성은 한양의 지형지세에 따라 지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쌓았다. 그래서 세계의 성곽들이 훼손되고 파괴되었어도 지금까지 그 모습을 지키며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였다. 조선을 지키며 이어온 한양도성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현대의 수도 서울을 지키며 숨 쉬고 있다. 도성민의 삶을 지켜온 울타리 한양도성은 지금도 과거와 현재를 이으며 사람들을 품고 있다.

산세가 빼어난 길지(吉地) 한양

1392년 고려를 멸하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 오르자 천도를 추진하였다. 반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으나 태조는 “예로부터 새 왕조를 개창한 뒤에는 반드시 도읍을 옮겼다” 하며



태조 이성계 어진
(출처-서울역사박물관)

그 뜻을 꺾지 않았다.

새 도읍의 후보지는 한양과 계룡산(鷄龍山), 무악(母岳), 불일사(佛日寺), 적성(積誠) 광실원(廣實院), 선고개(鎭帖), 도라산(都羅山) 등 여러 곳이었다. 그러나 계룡산은 남쪽으로 치우쳐 자리하고

무악 천도는 훗날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데 길을 트 하륜이 주
장하였다. 풍수에 능했던 하륜은 무악을 조선의 국운을 크게 일으
킬 길지로 보았다. 무악은 삼각산 인수봉이 마치 어린애를 업은 어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미가 밖으로 뿔쳐나가려는 듯한 형상이어서 이를 막기 위해 어미 산, ‘모악(母岳)’이라 한 데서 유래했다. 그러나 무악은 골짜기에 끼어 있어 종묘와 사직, 궁궐을 세우기가 마땅치 않았다.

한양은 고려의 남경(南京)이었다. 남경은 1067년 고려의 문종이 설치하였는데, 삼각산 아래 지역이 제왕의 도읍이 될 만하다는 지리도참설(地理圖讖說)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남경은 폐지되었다가 1104년 고려 숙종이 다시 설치하였고, 1308년 충렬왕은 남경을 ‘한양부’로 개편하였다.

남경은 고려의 수도 개경과 가까워서 숙종은 물론 여러 왕들이 순행하며 머물렀던 곳이다. 고려 말에는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남경으로 천도한 적도 있었다. 1382년에는 우왕이, 1390년에는 공양왕이 천도하였다가 개경으로 환도하였는데, 그만큼 한양은 길지였다.

태조는 한양을 새 도읍지로 보았다. 그러나 대신들의 의견이 찬반양론으로 갈리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무악과 한양을 둘러보고 개경으로 돌아온 태조는 국가 최고 정무기관인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도평의사사는 한양이 도읍지로 충분하다는 문서를 올렸다.

“그옥이 한양을 보건대, 안팎 산수의 형세가 훌륭한 것은 옛날부터 이름난 것이요, 사방으로 통하는 도로의 거리가 고르며 배와 수레도 통할 수 있으니, 여기에 영구히 도읍을 정하는 것이 하늘과 백성의 뜻에 맞을까 합니다.”



왕좌봉 터

왕좌봉은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함께 도읍지를 정하기 위해 한양의 지형을 살펴본 곳이다. 지금 이곳은 서울동명초등학교(성동구 마장동)가 들어서 있으며, 학교에는 표석이 설치되어 있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새로운 왕조 조선의 새 도읍

한양은 산과 강으로 이루어진 지형이 빼어난 길지였다. 전국의 중심에 자리하여 행정력을 남북으로 고루 미칠 수 있고, 지류가 발달한 한강이 흐르고 있어 수로와 육로 교통도 이로웠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군사적으로 유리하고, 백성들이 살기에도 좋았다.



경복궁

이는 도읍으로서의 조건을 두루 갖춘 것이었다.

한양 천도를 결정한 태조는 1394년 9월 1일 새 도읍의 궁궐을 짓기 위해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했다. 궁궐은 남경 때 지은 행궁이 있었으나 터가 좁고 답답하여 그 남쪽에 새로이 터를 잡고 지었다. 이 궁궐이 조선의 정궁(正宮) 경복궁이며, 그 좌우로 종묘와 사직을 두었다.





종묘

궁궐과 종묘, 사직, 문묘, 시전 등 주요 시설은 풍수지리설의 ‘명당혈처(明堂穴處)’와 중국의 가장 오래된 기술서인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의 ‘전조후시(前朝後市)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에 따라 터를 잡았다. 주산인 백악(白岳)을 배산(背山)으로 하여 경복궁을 두고, 좌묘우사에 따라 경복궁 좌측 응봉(鷹峰)을 배경으로 종묘를, 우측의 인왕산 동남쪽 산줄기 끝에 사직단을 둔 것이다. 그리고 전조후시에 따라 광화문 앞 도로 양측에 의정부와 육조, 한성부 등 관아를 두었고, 경복궁의 좌우와 종로 남쪽에 백성들의 주거지를 마련하였다.



사직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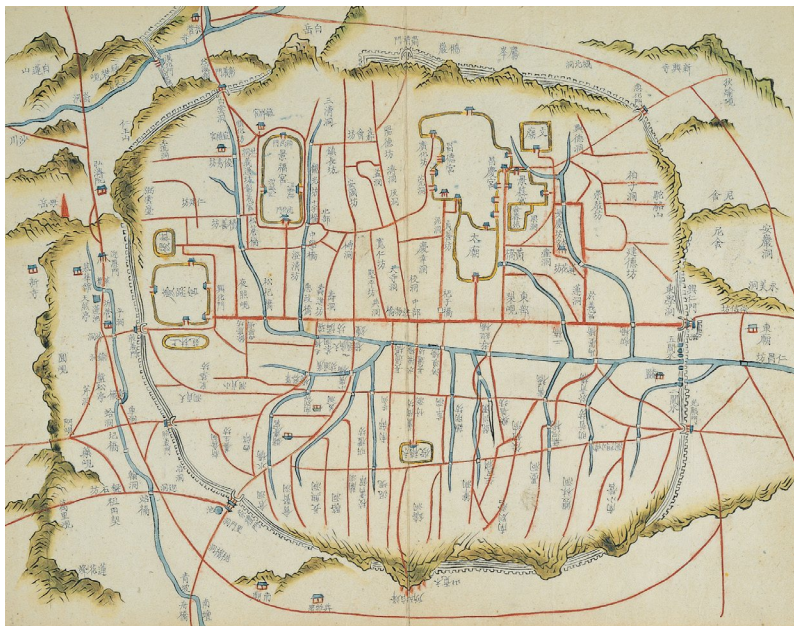
1394년 10월 25일 태조는 천도를 하여 사흘 뒤인 10월 28일 한양에 도착하였다. 이때는 궁궐을 짓기 전이어서 고려시대 한양부의 객사(客舍)를 임시 왕궁으로 썼다. 경복궁은 천도 후 한 달이 조금 지난 12월 4일부터 짓기 시작해 이듬해 9월에 완공하였는데, 태조는 그 석 달 뒤인 1395년 12월 28일 경복궁에 들었다.

지극한 마음으로 쌓은 도성

한양으로 천도할 때 궁궐을 비롯해 종묘와 사직, 관아와 시전 등 주요 시설을 자연지리와 풍수지리에 따라 터를 잡았듯이 도성 또한 이에 따라 쌓았다. 풍수지리상의 주산인 북쪽의 백악을 현무(玄武), 남쪽의 목멱산을 주작(朱雀), 서쪽의 인왕산을 백호(白虎), 동쪽의 낙타산을 청룡(靑龍)으로 하여 성을 쌓았는데, 한양을 둘러싼 이 네 산을 내사산(內四山)이라 한다.

1395년 윤9월 태조는 도성조축도감(都城造築都監)을 설치하고 도성을 쌓는 공사에 들어갔다. ‘도감’이란 국가적 행사나 공사 등 한시적인 사업을 위해 설치하였다가 일이 끝나면 해체하는 기구로, 도성조축도감은 1398년 숭례문 역사가 끝나고 해체하였다.

도성을 쌓는 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공사는 1396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2차 공사는 같은 해 8월 4일부



도성도(都城圖)

김정호의 동여도(東輿圖)에 수록되어 있으며, 북쪽의 백악, 남쪽의 목멱산, 서쪽의 인왕산, 동쪽의 낙타산 등 한양을 품고 있는 내사산이 채색되어 있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터 9월 24일까지 하였다.

태조는 지극한 마음으로 도성 공사를 살폈다. 연이어 사흘이나 공사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하였는데, 새로운 나라의 도읍을 세우는 일이기에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도성은 1차 공사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추운 겨울 두 달이 안 되는 기간에 석성(石城) 19,200척(尺), 토성(土城) 40,300척을 쌓은 것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쌓았기 때문에 견고하지 못했다. 국가적인

1396년 두 차례에 걸쳐 쌓은 한양
도성은 지금도 서울을 품고 있다.





송례문(1911년)

한양도성은 1398년 2월 송례문을 완공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사진은 도성 안에서 바라본 송례문 모습이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대역사를 단번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여름으로 들어서는 7월 초에 비바람이 크게 일어 도성 일부가 무너지기도 하였다.

2차 공사는 완전하지 못한 구간과 비로 인해 무너진 구간을 보수하는 공사였다. 미비한 구간과 무너진 토성을 다시 쌓았고, 석성은 안전하게 덧쌓았다. 그리고 흥인지문(興仁之門, 동대문), 돈의문(敦義門, 서대문), 송례문(崇禮門, 남대문), 숙청문(肅淸門, 북대문)의 사대문(四大門)과 홍화문(弘化門, 후에 惠化門, 동소문), 소덕문(昭德門, 후에 昭義門, 서소문), 광희문(光熙門, 수구문), 창의문(彰義門, 자하문)의 사소문(四小門) 등 8개의 성문을 만들었다. 이로써 한양도성은 제 모습을 갖추었다.

전국에서 19만 7,470명을 동원한 대역사

도성 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었다. 1397년 흥인지문의 옹성(甕城)을 축조하는 등 도성을 보완하는 공사는 계속 이어졌다. 성문은 1398년 2월 8일 송례문을 완공

하면서 모두 지었는데, 태조가 친히 나가 보았다는 기록을 보면 도성 공사는 이때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에도 도성을 고치고 보완하는 공사는 이어졌다.

한양도성은 양인(良人)들을 동원하여 쌓았다. 조선시대 양인은 사대부와 천민인 노비를 제외한 백성들이었다. 이들은 수확한 농작물의 일부를 바치는 조세(租稅),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공물(貢物), 군인으로 복무하는 군역(軍役), 노동력을 바치는 요역(徭役)의 의무를 졌다. 특히 요역은 국가의 토목공사에 아무런 대가 없이 바치는 노동력이었는데, 궁궐과 성곽, 관아, 제방, 도로를 만들거나 수리할 때 동원하였다.

한양으로 천도한 후 궁궐을 짓고 도성을 쌓는 일은 국가의 모습을 갖추는 대규모 공사였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양인들을 동원하였다. 궁궐을 짓는 공사에는 경기, 충청, 황해도의 양인들을, 도성을 쌓는 공사에는 국경 인근 지역을 제외한 서북면(평안도)과 동북면(함경도), 경상, 전라, 강원도의 양인들을 동원하였다.

두 번에 걸친 공사에 동원한 양인은 전국에서 모두 19만 7,470명이었다. 1차 공사에 11만 8,070명, 2차 공사에 7만 9,400명을 동원하였는데, 천도를 할 즈음 한양의 호구 수가 수천에 불과하였으니 실로 엄청난 백성들을 동원한 것이다. 도성의 인구는 세종 대인 1428년까지도 10만 3,328명이었다. 1차 공사에 동원한 백성들보다 인구가 적었던 것이다. 이를 보면 도성 공사가 얼마나 큰 대역사였는지 알 수 있다.

남산 자락의 한양도성

한양도성은 전국에서 19만 7,470
명을 동원하여 쌓았다. 천도 직후 한
양의 호구 수가 수천에 불과하였으
니 실로 엄청난 대역사였다.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2.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우다

10여 년간 이루어진 한양 정비

태조 대에 쌓은 한양도성은 토성 구간이 많아서 견고하지 않았다. 자연석에 가까운 돌로 쌓은 석성 구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토성은 석성으로 고쳐 쌓고, 석성은 고르고 반듯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었다.

도성을 고쳐 쌓아야 한다는 논의는 태종 대부터 있었다. 그러나 태종은 도성 수축에 나서지 못했다. 그것은 한양 재천도와 개천(開川) 공사, 시전행랑(市廛行廊) 건설 등으로 고단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으로 태조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종은 1399년 3월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제2차 왕자의 난으로 병권을 장악한 이방원이 정종의 양위를 받아 1400년 11월 왕위에 올랐다. 태종은 공신과 외척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한 뒤 1405년 10월 한양으로 다시 천도를 하였다. 이때 태종은 새로이 창덕궁(昌德宮)을 지었다. 조선의 두 번째 궁궐인 창덕궁은 한양 재천도를 결정한 1404년 10월 태종의 명에 따라 1년만인 1405년 10월에 완공하였다.



동궐도(東關圖)

창덕궁을 조감도 형식으로 그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궁궐도. '동궐'은 창덕궁의 별칭으로,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의 동편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동궐도는 국보 제249호로 두 점이 전해지는데, 고려대학교 박물관과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각각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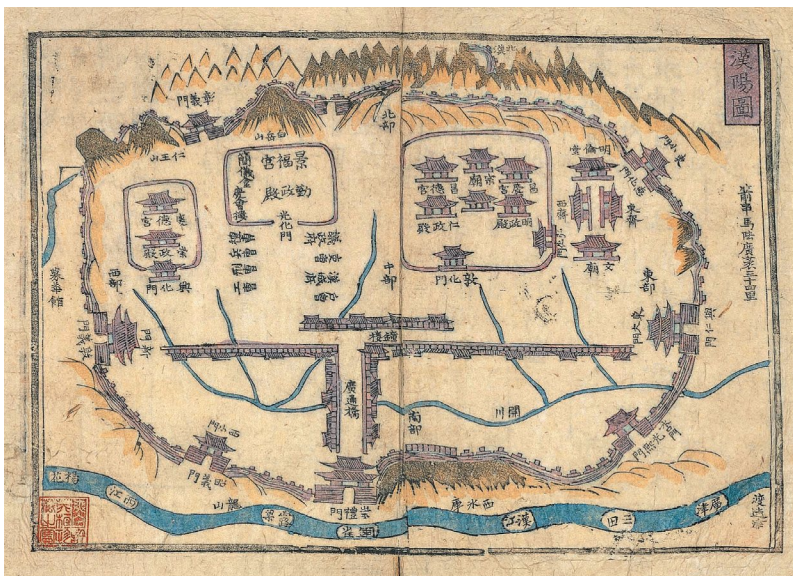
한양으로 돌아온 태종은 개천을 정비하고 시전행랑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였다. 지금의 청계천인 개천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할 당시 지대가 낮은 자연 하천이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쳤고, 민가에서 흘러나오는 하수가 모여 들어 청결하지 못했다. 개천 정비는 이로 인해 하였는데, 1406년부터 이듬해까지 물이 넘치지 않도록 바닥을 넓히고 독을 쌓았다. 그리고 1411년부터는 개거도감(開渠都監, 1412년 開川都監으로 변경)을 설치하고서 광통교와 혜정교 등 돌다리를 만들며 정비를 해나갔다.

시전행랑은 도성 안 곳곳에 만들어 상인들에게 빌려준 상점이었다. 행랑은 상인들의 무질서한 상행위를 막기 위해 지었는데, 종로의 육의전(六矣廛)이 유명하다. 행랑은 1412년부터 2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지었는데, 혜정교에서 창덕궁 동구(洞口), 대궐문에서 정선방(貞善坊), 종루(鐘樓)에서 경복궁, 창덕궁에서 종묘, 종루에

한성부

광화문 앞 육조와 시전이 잘 나타나 있는 조선시대 한성부 지도. 시전은 상업 활동에 좋은 도성의 가운데 대로변에 설치하여 왕실과 관아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도성민의 생필품을 공급하였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서 남대문, 종묘에서 동대문 사이의 간선도로 좌우에 2,020여 칸을 지었다.

백성을 보듬어 살핀 태종의 마음

한양 재건도와 창덕궁 건설, 개천 정비와 시전행랑 공사는 10여 년 동안 이어졌다. 연이은 공사는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도성을 고쳐 쌓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도성 수축은 미룰 수 없는 일이었다. 백성의 마음을 헤아린 태종과는 달리 신료들은 도성 수축을 주장하였는데, 특히 태종이 왕권 강화의 기반을 다지는 데 1등 공신이었던 하륜은 도성 수축을 강하게 밀어붙여 1413년 8월 경성수보도감(京城修補都監)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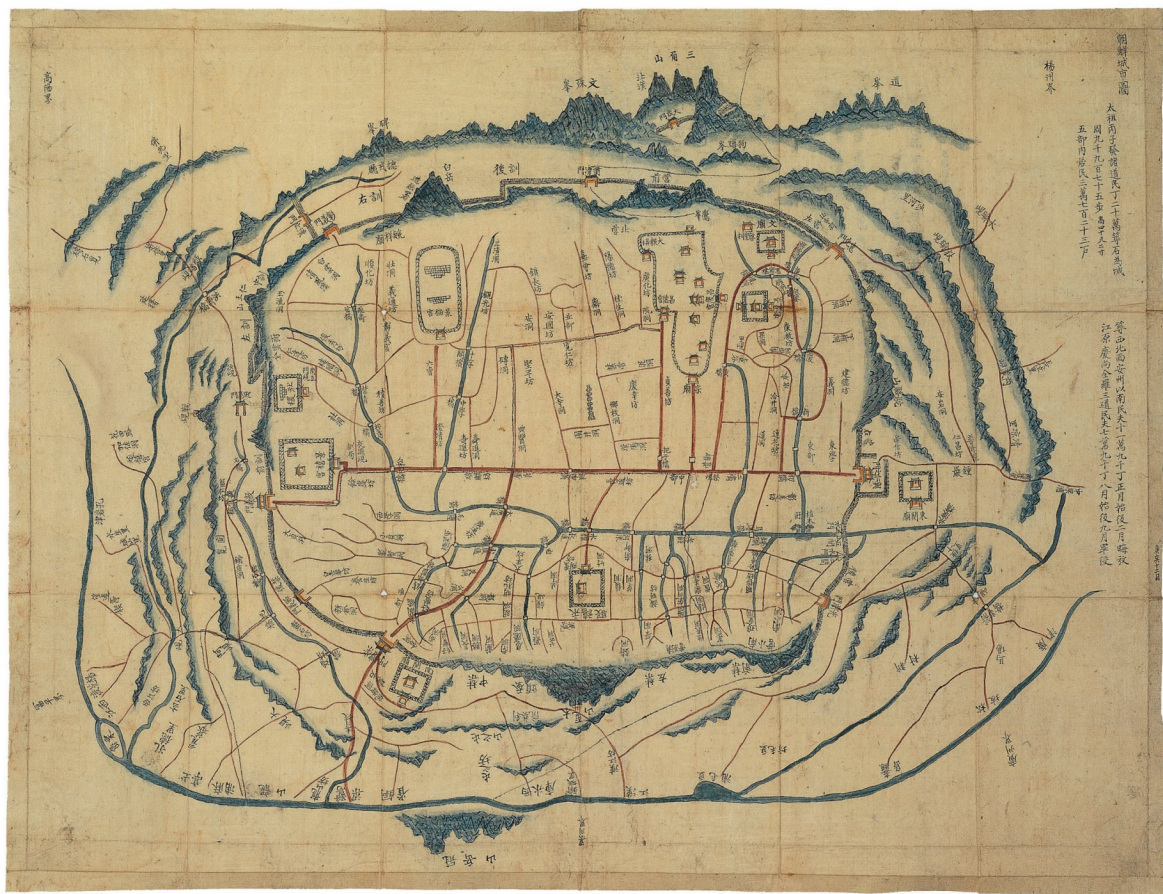
백성을 보듬어 살피려 한 태종의 마음은 조선왕조실록에 잘 나타나 있다. 1413년 8월 1일 태종실록에는 경성수보도감을 설치할

즈음 도성 수축을 두고 나는 태종과 하륜의 대화가 있는데, 쉽게 풀어서 간략히 옮겨본다.

편전에 나아가 좌정승 하륜 등이 아뢰기를,
 “도성은 나라의 근본이 되므로 완고하게 해야 마땅하니, 청컨대 수리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라 경성수보도감을 설치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조선성시도(1830년)
 도성 안의 궁궐과 문묘, 사직 등 주요 건축물과 도로망, 하계망(河系網), 다리가 표시되어 있다. 팔대문을 통해 도성 밖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였고, 산과 하계망은 청록색으로 채색하였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수축군(修築軍)은 경기에서 1만 2천 명, 충청도에서 2만 2천 명, 경상도에서 2만 7천 명, 전라도에서 2만 4천 명, 강원도에서 5천 명, 풍해도(지금의 황해도)에서 1만 명, 아울러 10만 명을 거두어 속히 부역하게 하소서.”

임금이 하륜 등에게 이르기를,

“어제 경들이 도성의 동서(東西) 양 모퉁이를 쌓아서 넓히고자 하였으나, 나는 편안하지 않다. 문정(門庭)의 외적이 있는데, 어찌 성을 쌓는 일을 하겠는가!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건설하느라 백성들의 원망을 샀고, 상왕(上王) 대에 세력 있는 가문들이 옛 도읍을 그리워하여 송도로 돌아갔으나 나의 몸에 이르러 이곳으로 돌아왔다. 도읍을 다시 옮기면서 토목 공사를 한 노고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에 개천을 파고, 이제 장랑(張廊)을 짓고, 또 성을 쌓으려고 한다면 백성들의 힘이 다할 것이다. 나는 백성들을 쉬게 해주고자 하니, 경들은 이것을 말하도록 하라.”

하니, 하륜이 말하였다.



광화문 앞 세종대왕상

“신도 진실로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중국인들이 떼 지어 들어온다면 장수에게 명하여 방비해야 할 것인데, 그들 가운데 그 누가 부모처자가 없겠습니까? 부모처자가 견고한 성벽에서 보호를 받는다면 사람들이 반심(叛心)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또 도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이를 쌓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이제 외적이 없는데도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차마 못 하겠다.”

하니, 조영무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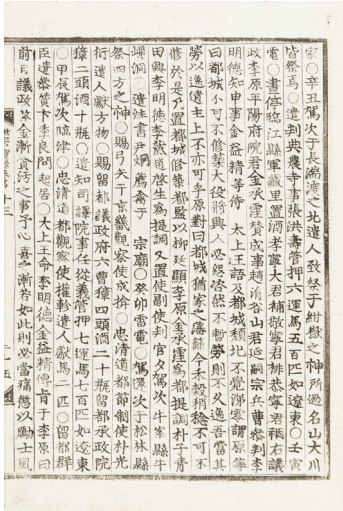
“성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청컨대, 우선 정지하소서.”

도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국방을 위해 튼튼하게 쌓아야 한다는 하륜의 주장은 지극히 당연하다. 나라를 다스리는 태종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터이다. 국가의 안위를 살피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니 도성을 튼튼하게 하여 나라와 백성의 안녕과 번영을 이루려는 마음은 태종이 가장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태종은 도성을 고쳐 쌓는 일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백성들의 고달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종은 세종 대에 시작한 도성 수축 공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이 역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알 수 있다.

1421년 10월 13일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태종은 임강현(臨江縣, 지금의 파주시 진동면)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이때 도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떨구며 이렇게 말했다.

“도성을 수축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1421년(세종 3) 10월 13일 세종실록. 세종이 정사를 편히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태종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사람들이 원망하게 될 것이다. 잠깐 수고함이 없고서는 오랫동안 편할 수 없는 것이니, 내가 그 괴로움을 담당하고, 편안함을 주장에게 내려주는 것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백성들의 원망은 자신이 품고 세종에게는 정사를 편히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세종은 태종의 셋째아들이었다. 원래 태종의 뒤를 이을 왕세자는 양녕대군이었다. 그러나 양녕대군은 세자로서 품위를 잃어 태종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그리고 태종은 태상왕(太上王)이 되어서도 세종이 정치적으로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일들을 대신하였는데, 도성을 수축하는 일도 그중 하나였다.

도성 수축은 세종 대인 1421년 도성수축도감(都城修築都監)을 설치하면서 시작하였다. 이때 세종은 태상왕에게 의지하였다. 도성을 토성에서 석성으로 고쳐 쌓는 것부터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태상왕의 힘을 빌렸다. 태종은 기꺼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종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도성 공사로 인한 고통과 원망이 세종에게 가지 않도록 백성들의 안위를 살폈다.

세종, 도성을 더욱 견고하게 쌓다

도성 수축은 1422년 1월 15일 산신에 제를 지내고 시작하여 2월 23일까지 약 40일간 하였다.

공사는 주로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석성으로 고쳐 쌓는 것이었다. 태조 대에 쌓은 도성은 전체의 1/3 정도가 토성이었는데 이를 석성으로 개축(24,535척)하고, 무너진 석성 구간은 보수(3,952척)

한 것이다. 도성의 높이도 조정하여 험지(險地)의 석성 높이는 처음의 15척에서 16척으로 조금 높였고, 평지의 높이는 25척에서 23척으로 낮추었다. 그 동안 개천이 넘치면 천변의 인가가 물에 잠기곤 하여 수문도 좀 더 크게 넓혔고, 서전문을 폐쇄하고 돈의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성벽을 따라 안팎으로 너비 15척의 순심로(巡審路)를 내었다. 순심로는 군사들이 성벽을 따라 순찰을 도는 길이었는데, 성벽이 무너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담당 관아에 알려 보수하게 했다.



창의문 쪽에서 본 남산
(1911년)

태조는 한양의 수호신사로 북악산에 북악신사(北岳神祠)와 남산에 목역신사(木覓神祠)를 두었다. 도성 공사를 할 때는 산신에 제를 올리고 하였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돈의문(1898년)

세종 대의 도성 공사에서는 서전문을 폐쇄하고 돈의문을 만들었다. 돈의문은 일제강점기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금은 볼 수 없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40일간의 수축 공사로 도성은 비로소 온전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단순히 보수에 그치지 않고 토성을 석성으로 고쳐 쌓으며 돈의문을 만들고, 수문과 순심로까지 불과 한 달 열흘 만에 도성을 새롭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대대적인 공사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

도성 수축 공사도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하였다. 전국에서 모두 32만 2,460명을 동원하였는데, 경기도에서 20,188명, 충청도 56,112명, 전라도 49,104명, 경상도 87,368명, 강원도 21,200명, 황해도 39,888명, 평안도 43,392명, 함경도에서 5,208명을 동원하였고, 석수(石手)를 비롯한 공장(工匠)들도 2,211명을 동원하였다. 이는 태조 대보다 12만 4,990명이나 더 많은 백성을 동원한 것으로, 이를 보면 한 달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사를 하였는지 그 모습이 그려지고도 남는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겨울에 토목공사를 하였다. 농경사회였으므로 농번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 겨울철 농한기에 백성들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공조(工曹)를 ‘동관(冬官)’이라고도 불렀는데, 도성 수축 공사 또한 각 도의 관찰사들이 뽑아 올린 역부들을 동원하여 겨울에 하였다.

역부로 올라와 도성을 쌓는 일은 참으로 고된 일이었다. 매섭고 차디찬 한겨울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였으니 더 그러했을 것이다. 노동력을 바치는 의무였기에 식량도 스스로 준비하고 해결해야 했으니 처지가 서글웠을 것이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준비하지 못한 역부에게는 양식을 주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줄여
 서 만든 요약본 조선전도. 세
 종 대의 도성 수축 공사에는
 전국에서 모두 32만 2,460명
 을 동원하였다.

도 하였고, 도성의 동쪽과 서쪽에 네 곳의 구료소(救療所)를 설치하여 부상자가 생기면 치료해주었다.

그러나 노동이 너무 고되어 도망을 가는 자도 있었다. 도망자들은 엄벌에 처했는데, 초범은 장 100대, 재범은 참형에 처했다. 나라의 근본인 도성을 쌓는 일에 동원된 백성들 또한 나라의 근본이다. 백성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망자에게 내리는 형벌은 가혹했다.

조선시대에는 오형(五刑)이 있었다. 오형은 죄질에 따라 내린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의 다섯 가지 형벌이었다. 조선왕조의 근본을 이루는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태형과 장형은 형장(죄인을 신문할 때 쓰는 몽둥이)으로 죄인을 치는 형벌이었다. 태형은 작은 형장으로 죄에 따라 10, 20, 30, 40, 50번을 쳤고, 장형은 큰 형장으로 죄에 따라 60, 70, 80, 90, 100번을 쳤다. 도형은 지금의 징역형처럼 죄인을 가두고 소금을 굵거나 쇠를 다루는 등의 노동을 시키는 형벌이었고, 유형은 귀양을 보내는 형벌이었다. 그리고 사형은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이 있었는데, 교형은 목을 매어 죽이는 교수형, 참형은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이었다. 둘 다 똑같은 사형이었지만 교형은 몸을 보존하는 형벌이고, 참형은 목을 베는 형벌로 몸과 머리를 분리시키는 것이었으니 교형보다 참형이 더 무거운 형벌이었다. 이렇게 오형 중에서도 가장 큰 형벌인 참형을 도망자에게 내렸다는 것은 도성 공사가 국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도성수축도감은 도망자가 생기면 각 도에 판관을 보내 끝까지 찾아내었고, 형벌을 내려 본보기로 삼았다.

형벌은 공사를 소홀히 한 이들에게도 내렸다. 도성 수축 공사는 구간별로 책임자를 두고 하였다. 그래서 공사를 부실하게 하면 그



구간을 감독한 제조(提調)와 수령은 물론 총패(摠牌)와 두목(頭目)들에게 죄를 묻고 중죄를 내렸다. 성벽의 돌 하나라도 무너져 내리면 보완 공사를 하게 하였고, 구간을 맡은 고을이 한양으로 와서 다시 쌓았다. 이처럼 도성 공사는 엄히 하였고, 잘못된 자들은 무거운 형벌로 다스렸다.

남산 마루 부근의 한양도성

성돌을 지고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며 도성을 쌓는 일은 고된 노동이었다. 그래서 도망자들도 나왔는데, 도성수축도감은 도망자가 생기면 각도에 판관을 보내 끝까지 찾아내어 무거운 형벌로 다스렸다.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야경.

조명을 받으며 길게 늘어진 한양도성이 서울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3. 한양도성, 새로운 숨을 불어넣다

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수성금화도감

도성 수축은 세종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특히 임진왜란(1592~1598)을 겪으면서 훼손된 도성을 고치는 공사를 1612년과 1618년, 1621년, 1623년 등 네 차례에 걸쳐 하였고, 1650년에는 광희문과 창의문, 돈의문, 흥인지문을 수리하는 등 크고 작은 공사를 이어갔다.

도성의 관리는 1426년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을 설치하여 하였다. 그러나 수성금화도감은 1460년에 폐지되었고, 이후 숙종 대부터는 도감을 따로 두지 않고 성벽을 구간별로 수비하는 군문(軍門)에서 관장하였다.

수성금화도감은 성문도감(城門都監)과 금화도감(禁火都監)을 합하여 설치한 기관이었다. 1422년 도성 수축 공사가 끝난 뒤 설치한 성문도감은 도성 안팎으로 순번을 돌며 도성을 관리하는 기관이었다. 1426년에 설치한 금화도감은 화재 방지와 개천의 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세종은 이 두 기관을 합하여 성벽 수리와 방화 업무를 겸하게 하고, 도로와 교량의 수축 등을 맡게 하였다. 이후 수성금화도감은 세조 대인 1460년 관서 개편과 기구 축소에



따라 폐지되어 수성(성곽 수리)의 업무는 공조로, 금화(소방)의 업무는 한성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성종 대인 1481년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방화가 늘어나면서 도독질이 많아지자 수성금화도감을 부활시켰는데,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로 격상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수성금화사는 조선 후기에 폐지될 때까지 궁성과 도성의 성곽 수리, 궁궐과 민가의 소방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남산 자락의 한양도성

백범광장을 지나 송례문 쪽으로 내려가는 순성길에 만나는 한양도성. 조선시대 도성의 관리는 수성금화도감을 설치하여 하였다. 속종 대부터는 성벽을 구간별로 수비하는 군문(軍門)에서 관장하였다. 현재는 서울시의 전담조직인 '한양도성도감'이 한양도성의 문화자원을 발굴하며 우리 국민들에게 한양도성의 의미와 참모습을 널리 알리고 있다.

숙종, 도성의 군사적 기능을 강화하다

도성 수축은 조선 후기에 몇 차례 크게 하였다. 특히 숙종 대에 공사를 크게 하였고, 그 뒤를 이어 영조 대에는 성문들을 재건하며 도성의 제 모습을 갖추는 등 마무리를 하였다. 영조는 도성을 관리하는 체제도 정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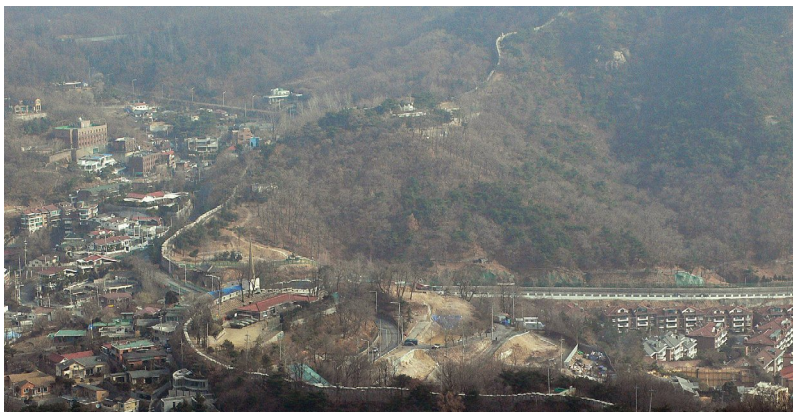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갇은 고초를 당한 조선왕조는 국방은 물론 수도 방위에 전력을 기울였다. 숙종 대에는 수도 방위에 더욱 치중하였는데, 1704년부터 도성 수축 공사를 시작하여 1711년 북한산성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하였고, 1718년에는 탕춘대성을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까지 공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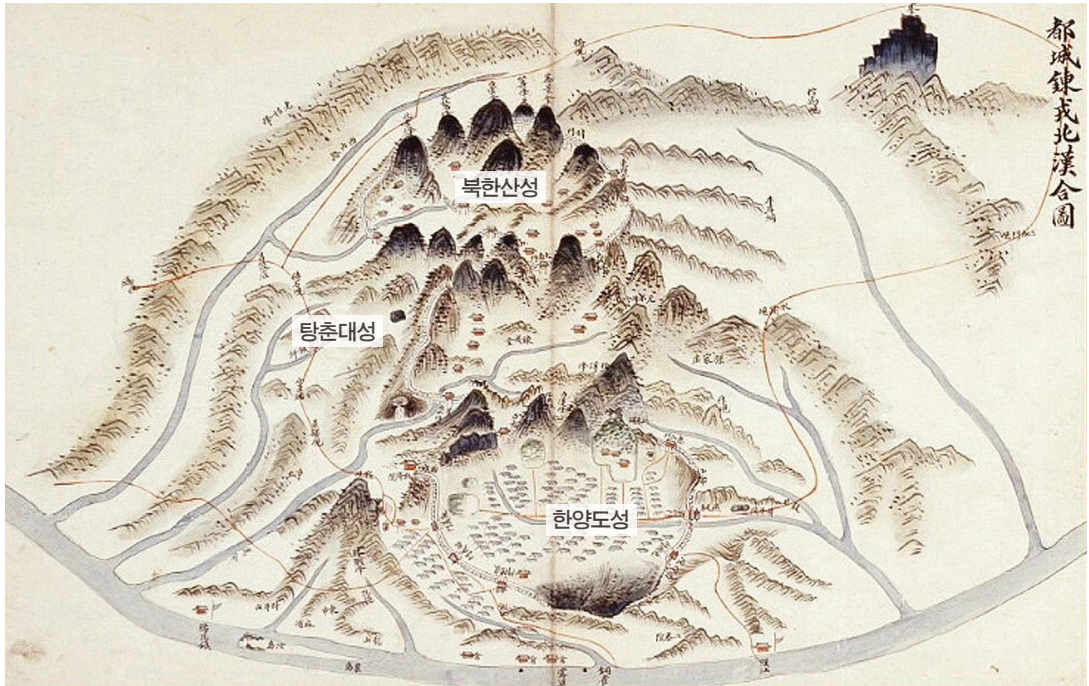
1704년 8월부터 시작한 수축 공사는 경기도의 군문들을 동원하여 구역별로 나누어 하였다. 1709년부터는 도성의 여장(女牆)을 개축하는 공사를 하였고, 도성이 넓어서 지키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1711년 4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성을 대대적으로 개축하였다. 이러한 공사는 1712년에 대체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이때의 공사는 한양의 경비를 맡아보았던 훈련도감(訓練都監)과 왕을 호위하며 수도 방어를 담당한 금위영(禁衛營), 왕을 호위하는

인왕산으로 연결되는 한양도성

조선 초기의 한양도성은 외성(外城)이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성곽을 만들어 군사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숙종은 북한산성을 개축하고 탕춘대성을 지어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을 연결하는 수도 방위체제를 만들었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도성연웅북한합도
(都城鍊戎北漢合圖)

한양도성과 탕춘대성, 북한산성으로 이어지는 수도 방위체제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다.

어영청(御營廳)의 삼군문(三軍門)이 구역별로 하였다.

북한산성은 백제가 도읍인 위례성을 지키기 위해 쌓은 성이었다. 132년에 지은 이 성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모두 군사요지로 여겨 쟁탈전이 치열했다. 475년에는 고구려가, 553년에는 신라가 차지하였는데, 신라는 이곳에 진흥왕순수비를 세웠다. 고려 시대에는 현종이 성을 증축하였고, 고종은 1232년 이 성에서 몽골군과 격전을 벌였다. 이러한 성을 숙종은 1711년 대규모의 공사를 하여 석성으로 개축하였다.

북한산성을 개축한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도성의 외곽을 지키는 산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659년 효종대에 고쳐 쌓은 것을 숙종이 다시 공사를 하여 석성으로 완성한 것이다. 숙종은 북한산성을 개축한 뒤 1712년에는 성 안에 행궁(行宮)과 군창(軍倉), 승군(僧軍)이 머물 수 있는 중흥사(重興寺)와



탕춘대성으로 이어지는
홍지문(1906년)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사찰을 지었다. 또한 한양도성과 북
한산성을 연결하는 탕춘대성을 지었
다. 탕춘대성은 축성을 담당했던 관
아나 축성에 관한 기록이 없어 자세
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상명대
학교 북쪽으로 성곽이 남아 있고, 탕
춘대성을 쌓으면서 만든 홍지문도 복
원되어 있다.

영조, 도성 방어체제를 확립하다

영조는 도성을 관리하는 체제를 정비하였다. 도성 수축은 숙종
대에 이어 성문을 보완하는 등 마무리를 하였는데, 1724년 홍인지
문의 웅성을 개축한 뒤 1741년에는 창의문의 문루를 중건하였고,
1744년에는 혜화문과 소덕문의 문루를 개축하였다. 그리고 1747
년에는 도성을 수비하는 군사들의 초소인 성랑(城廊)을, 1753년에
는 지대가 낮은 곳의 성곽을 보완하는 치성(雉城)을 설치하였다.

1751년 영조는 수성윤음(守城綸音)을 반포하여 도성민과 함께
도성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성윤음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도성의 방위체제를
확립한 것이었다. 수성윤음을 반포하기 전까지 도성과 도성민은
방어의 대상이 아니었다. 적이 침입하여 도성이 위태로우면 왕은
도성을 벗어나 몽진(蒙塵)부터 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선조는 의
주까지 몽진하였고 병자호란 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이는 곧 도성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영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성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수성윤음



영조 어진

(출처-국립고궁박물관)

을 통해 천명한 것이다.

수성윤음은 도성을 지키는 규정을 아홉 가지 조목으로 정리한 수성절목(守城節目)과 함께 반포하였다. 수성절목의 주요 내용은, 오부(五部)의 민호(民戶)는 부근의 삼군문에 나누어 배정하고, 각

남한산성

임진왜란 때 선조는 도성을 떠나 의주로 몽진하였고 병자호란 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이는 곧 도성이 방어의 대상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영조는 도성 사수 의지를 수성윤음을 통해 천명하였다.



군문은 맡은 경계에 따라 지도를 만들어 알리며, 만일 위급한 일이 생기면 노약자와 집을 지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와 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한성부 오부의 백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수도 방위를 맡고 있는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의 삼군문에 소속되어 유사시에는 지정된 위치에서 도성을 방어한다는 내용이었다.

오부란 한성부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등 다섯으로 나눈 행정구역이었다. 각 부에는 한성부의 지휘를 받는 관서가 있었고, 오부 아래에 43개의 방(坊), 그 아래에 328개의 계(契)가 있었다. 이 오부와 방, 계의 주민들에게 도성을 수비해야 할 구간을 나누어 맡긴 것인데, 따라서 수성윤음은 삼군문 분수(分守) 체제로 유사시 도성민을 총동원하는 도성 방위체제였다.



김정호의 경조오부도
(京兆伍部圖, 1861년)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성곽, 도로와 궁궐, 종묘, 사직, 문묘 등의 건축물과 주요 부(部), 방(坊), 동(洞)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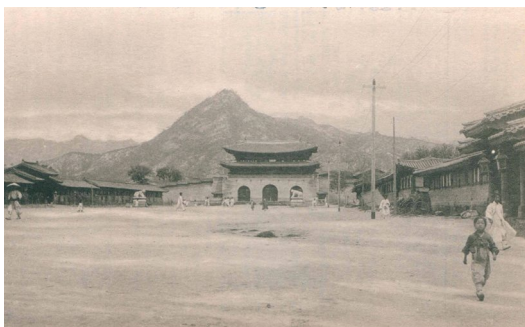
(출처-서울역사박물관)

경복궁과 흥인지문을 재건하다

이후 도성을 수축하는 큰 공사는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무너진 성벽을 부분적으로 고치거나 성문을 수리하는 정도였다. 대표적으로 현종 대인 1836년에는 숭례문의 문루와 지붕을 수리하였고, 1837년에는 흥인지문의 문루와 지붕을 수리하였다. 철종 대에는 1852년 흥인지문과 광희문, 혜화문의 문루를 수리하였고, 고종 대에는 1864년 광희문의 문루를 수리하였다. 그리고 1873년에는 흥인지문의 웅성을, 1881년에는 흥인지문의 문루를 수리하였다.

가장 큰 공사는 경복궁 중건과 흥인지문 재건이었다.

경복궁 중건은 1865년부터 시작하여 1867년 말까지 하였다. 한



경복궁 광화문 육조 앞길
(1913년)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양도성과 함께 조선을 상징하는 경복궁은 <시경(詩經)>의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부르니 군자만년 그대의 큰 복을 도우리라(既醉以酒 既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에서 마지막 두 자 ‘景福’을 따서 이름지었다. 경복궁은 1395년 창건할 때만 해

도 390여 칸으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태종이 한양으로 다시 천도한 뒤 궁 안에 경회루를 짓고 신하들과 잔치를 하거나 사신을 접대하며 정궁(正宮)으로 썼다. 이후 경복궁은 어린 조카를 끌어내리고 왕에 오른 세조가 창덕궁에 기거하면서 임금이 살지 않는 궁이 되었고, 1592년 임진왜란으로 모든 건물이 불에 타버리면서 270여 년간 폐허 상태로 있었다.

경복궁 중건은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의지였다.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상징인 경복궁을 그 어느 궁궐보다 크게 다시 지어 위엄을 높이려 하였는데, 그 규모를 보면 전체 7,225칸에 후원의 전각이 256칸, 궁성 담장의 길이가 1,765칸이었다. 그러나 경복궁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어 많은 피해를 보았다. 지금의 경복궁은 1991년부터 20년에 걸쳐 공사를 하여 복원한 것으로, 흥선대원군이 지은 경복궁의 40% 정도를 복원한 것이다.

흥선대원군

(출처-서울역사박물관)



홍인지문을 재건하는 공사는 1868년부터 이듬해까지 하였다. 우리나라 보물 1호인 홍인지문은 1397년 한양도성을 쌓으면서 짓기 시작하여 그 이듬해에 완성하였다. 단종 대인 1452년 한 차례 중수하였고, 고종 대에 전반적인 개축을 하였다.

홍인지문은 한양도성의 팔대문 중 유일하게 웅성을 갖추고 있다. 이 웅성은 창건할 때부터 만들었는데, 고종 때 재건 공사를 하여 개축하였다. 웅성은 성문의 앞을 반원형으로 빙 둘러쳐서 적을



경복궁 근정전(1912년)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방어하는 작은 성으로, 적에 대한 방비를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홍인지문은 재건을 하면서 문루를 더 높였고, 물길이 막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물이 잘 빠지도록 홍인지문 웅성 남쪽으로 새로이 수문을 만들었다. 홍인지문은 송례문과 규모나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송례문이 조선 초기의 건축양식이라면 홍인지문은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으로 재건되었다는 점에서 시대적 변천을 읽을 수 있다.



김학수 화백의 북궐도

(北闕圖, 1975년)

북궐(北闕)은 경복궁을 말하며, 경복궁 중건 당시의 모습을 세세하게 그려놓았다.





4. 일제강점기, 한양도성을 훼손하다

망국의 폐허로 전락한 한양도성



고종 황제(1920년)
(출처-서울역사박물관)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자주독립 국가임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10년 강제로 병합되었다.

일제강점기 한양도성은 근대화를 거치며 파괴되었다. 조선을 강점한 일본은 조직적으로 성벽을 허물었고, 성문들을 철거했다. 조선신궁을 건립하면서 남산 일원의 성곽을 훼손했고, 경성운동장을 지으면서 흥인지문의 성곽을 무너뜨렸다. 조선의 상징인 한양도성을 망국의 폐허로 전락시켰다.

일제강점기 한양도성의 훼손사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07. 내각령 제1호로 ‘성벽처리위원회(城壁處理委員會)’ 설치.
- 1908. 도로 개설 공사로 송례문 좌우 성벽 철거(1907~1908).
소의문 부근 성벽(77칸), 송례문 부근 성벽(77칸) 철거.
청계천 준천으로 오간수문 철거.
- 1911. 흥인지문 북측 성벽 철거.
- 1912. 을지로(남대문~광희문) 전차 부설로 광희문 부근 성벽 철거.

1912. 돈의문 밖 송정동 일대 성벽 붕괴.
1913. 도로 부설(장충단~한강)로 남소문터 부근 성벽 철거.
1914. 도로 확장으로 소의문 철거.
소의문 일대의 성벽을 헐고 총독부 관사 건립.
1915. 돈의문 경매(205원 50전)로 매각, 철거.
1918. 흥인지문 문루 화재.
1921. 숭례문 성벽에 광고판 설치. 광화문 일대 성벽 철거.
1922. 흥인지문 성석 도난.
1925. 경성운동장 건립으로 흥인지문-광희문 간 성벽 철거.
조선신궁 건립으로 남산 성벽 철거.
1926. 호우로 돈의문 부근 성벽 10여 칸 붕괴.
1928. 혜화문, 광희문 문루 철거.
1930. 호우로 광희문 부근 성벽 6칸 붕괴.
1932. 경성축후소 이전으로 돈의문 북쪽 성벽 훼손.
1933. 경성운동장 뒤 인현공보 신축공사 도중 성벽 붕괴.
호우로 돈의문 부근 성벽 10칸 붕괴.
1935. 폭우로 혜화문 부근 성벽 붕괴.
1938. 동소문로 부설로 혜화문 육축 철거.
1939. 남산에 황국신민서사지주 설치.
1940. 호우로 혜화문 부근 성벽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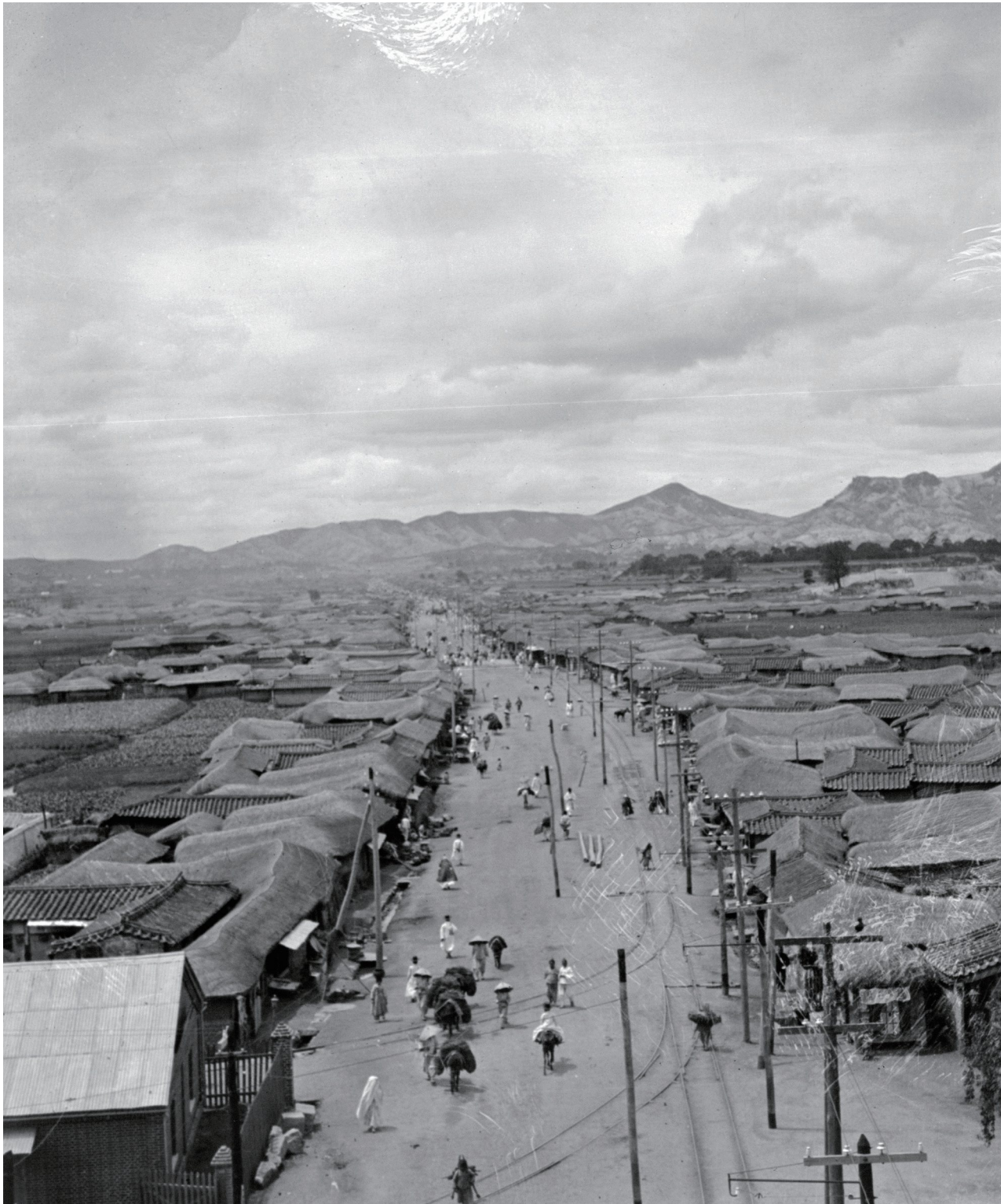
도성을 허물고 파괴한 성벽처리위원회



황성신문의 '성벽처리위원회' 설치
기사

구한말 조선은 도성을 재정비하며 왕권의 위상을 높이려 하였다. 그러나 근대화의 길을 걸으면서 도성은 훼손되어갔다.

근대화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전차가 도입되면서 선로를 놓기 시작하였는데, 1899년 돈의문에서 흥인지문을 거쳐 청량리에 이르는 노선에 이어 종로에서 숭례문을 거쳐 용산에 이르는 노선이 추가되었다. 전차 궤도는 숭례문과 흥인지



흥인지문 앞의 종로통 전차길(1901년)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선로를 놓기 위해 성문을 없애거나 성벽을 헐지는 않았다. 성문을 지키기 위해 옹성을 통해 전차를 드나들게 하였고, 선로 또한 성문을 돌아나가게 놓았다. 근대화 과정에서도 도성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한양도성의 훼손은 1907년 일본이 성벽처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성벽처리위원회는 한양도성을 비롯해 성곽이 있는 도시들의 교통 왕래를 원활히 한다는 명분으로 설치한 기구였다. 그러나 목적은 한양도성을 훼손하는 데 있었다.

1907년 3월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권중현은 흥인지문과 숭례문이 수레와 말들이 복잡하게 드나

숭례문(1911년)

일제는 1908년 10월 숭례문 양쪽 성벽을 절단하여 일본식 석축으로 막아놓았다. 숭례문 남쪽으로 전차 선로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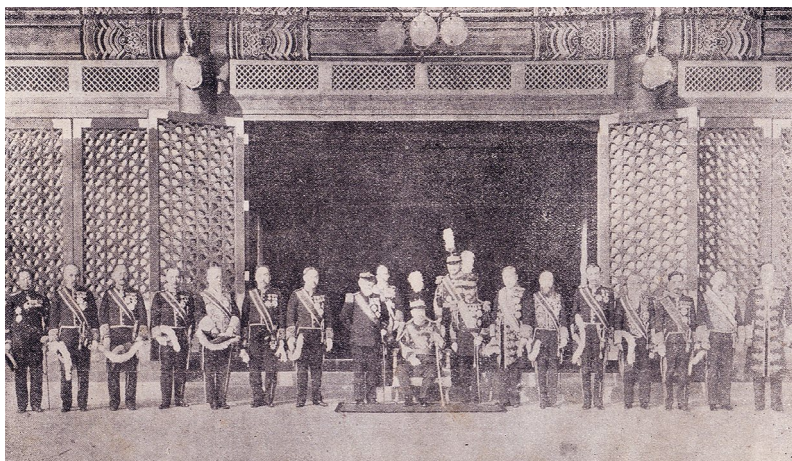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순종 황제와 이완용, 이토 히로부미

1909년 정초에 창덕궁 인정전 앞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중앙에 순종이 앉아 있다. 순종의 오른쪽에는 이재각, 민병석, 조중응, 김윤식, 이지용, 조만희, 고희성이 서 있고, 왼쪽에는 이토 히로부미, 이완용, 임선준, 고영희, 송병준, 박제순이 서 있다. 순종 뒤로는 이병무, 윤덕영이 자리하고 있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들고 전차까지 그 복판을 가로질러 다녀서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교통의 편리를 위해 도성의 일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인지문과 숭례문 문루의 좌우 성벽을 8칸씩 헐고 전차 선로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어 6월에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임선준, 탁지부대신 고영희, 군부대신 이병무가 흥인지문과 숭례문 좌우의 성벽을 헐고 남은 것들이 장애가 되므로 없애자고 하였다. 성벽처리위원회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 설치되었다.

성벽처리위원회는 한양도성을 단순한 장애물로 인식하고 훼손하였다. 흥인지문 부근의 성벽과 오간수문, 소의문 부근 성벽(77칸)과 숭례문 부근 성벽(77칸)을 철거하였고, 철거한 성벽의 부재는 도로와 건축 공사의 재료로 사용했다. 성벽처리위원회는 도성 말고도 전라북도 남원의 성벽(60칸)과 전주의 성벽(60칸), 대구와 진주의 성벽도 철거했다. 그리고 경의철도 개축을 위해 평안북도 동림진(東林鎭)의 성벽을 없앴다.

성벽처리위원회는 1908년 9월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성벽을 처리하는 일은 내부(內部)의 지방국(地方局)과 토목국(土木局)으로 이관되어 도성은 물론 지방의 성곽까지 대상으로 하여 훼손 작

업을 계속 이어갔다. 그리고 1910년에는 ‘읍성철거령’을 발표하여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읍성과 산성 대부분을 허물어뜨리고 파괴했다.

조선신궁, 남산을 유린하다

일본은 1910년 8월 한일병합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도성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특히 1914년에는 도성 밖까지 경성부로 포함하는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한양도성은 그 의미를 잃고 말았다. 또한 서울을 경성(京城)이라 칭하고 도시를 개조한다는 명목으로 ‘경성시구개수(京城市區改修)’ 사업을 실시하여 도성과 성문을 본격적으로 헐기 시작했다. 1914년에는 소의문을, 1915년에는 돈의문

도로개수가 이루어진 남대문통 조선은행 앞 광장 도로 개수를 마친 조선은행 앞 광장의 모습으로, 일제는 ‘경성시구개수(京城市區改修)’ 사업을 통해 한양도성을 본격적으로 헐기 시작했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돈의문 성벽

일제는 도시계획을 명목으로 1915년 돈의문을 헐어 없앴다. 돈의문 주변 성벽 일부는 현재 돈의문뉴타운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을 헐었고, 1926년에는 일본 황태자의 결혼식을 기념하여 경성운동장을 지으면서 홍인지문과 광희문 사이의 성벽을 파괴하고 성벽 하단부의 석재는 관중석을 만드는 데 썼다. 이때 이간수문도 헐었고, 1938년에는 도로를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혜화문 육축을 철거하였다.

일본은 도성을 훼손하면서 성문을 매각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1914년 소의문을 헐 때는 경매에 붙였는데, 보전하는 데 경비가 들 뿐만 아니라 보전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1915년 돈의문을 헐 때도 목재를 경매에 붙여 205원 50전에 팔아치웠고, 석재 일부는 도로를 고치는 데 썼다.

1925년 일본은 조선신궁(朝鮮神宮)과 참배로를 만들면서 남산 주변의 성벽을 대거 훼손하였다. 구한말 도성을 개방하면서 서울로 들어온 일본인들은 충무로와 필동 등 남산 일대에서 집단으로 살았다. 이들은 1910년 남산에 한양공원(漢陽公園)을 만들었는데, 조선신궁은 그 공원에 들어섰다.

남산은 경복궁에서 마주 보이는 산으로, 조선시대에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겼다. 태조는 도읍을 정한 뒤 한양의 수호신사로 북악산에 북악신사(北岳神祠)와 남산에 목멱신사(木覓神祠)를 두었다. 목멱신사는 조선의 국사당(國師堂)이었다. 국사당에서는 사사



조선의 국사당이었던 목멱신사

로운 치성은 할 수 없었고 오로지 국가와 관련된 제를 올렸다. 이러한 국사당을 일본은 강제로 철거하고 남산에 일본 천황을 모시는 신사(神社)를 지었다.

일본의 신민화정책을 상징하는 신사는 일제강점기에 전국적으로 무려 1,141개나 세웠다. 이 중 남산의 조선신궁은 약 12만 7,900평에 달하는 규모로 세웠는데, 이곳에는 일본 건국신화의 주신인 아마테라스 오미가미(天照大神)와 함께 조선을 병합한 뒤 죽은 메이지왕의 신위를 안치하고서 조선인들에게 참배를 강요했다.

그러나 조선신궁은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사라졌다. 패전한 일본은 광복 다음날인 8월 16일 승신식(昇神式)이라는 이름으로 폐쇄행사를 한 뒤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스스로 해체 작업을 하였다. 전국에 있는 신사는 광복과 함께 우리 손으로 파괴했지만 조선신궁만은 일본인들이 직접 해체한 것이다.

어둠의 역사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기나긴 식민지에서 벗어나 마침내 광명을 찾았다. 한양도성도 비로소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볼 수 있었다.



남산 중턱에 자리한
조선신궁
조선신궁 뒤로 보이는 산은 남산 잠
두봉이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남산 마루에서 본 서울.
남산 등성을 따라 이어지는 한양도성이 들어온다.





5. 한양도성, 현재와 공존하며 새로이 태어나다

광복 후에도 끝나지 않은 도성의 수난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한양도성은 일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러나 수난은 끝나지 않았다. 한양도성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참화를 면치 못했고, 1953년 휴전 이후에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 속에 파괴되어갔다.

광복 후 간략한 한양도성의 수난사는 다음과 같다.

- 1955. 경신중고교 신축으로 성벽 철거.
- 1959. 국회의사당 건립으로 남산 성벽 철거.
- 1964. 자유센터 건립으로 남소문 터 일대의 성벽 철거(1962~1964).
- 1966. 퇴계로 연장공사로 광희문 부근 성벽 철거.
- 1972. 남산종합승선탑 설치로 남산 마루 성벽 철거(1969~1972).
- 1983. 금호대로 확장공사로 성곽 철거(7m).

한양도성의 수난은 주로 남산 일대에서 있었다. 남산의 성벽은 1959년 국회의사당을 건립하면서 철거되기 시작하여 1964년 남소문터 일대, 1972년 남산 마루의 성벽이 철거되었다.

1962년 9월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은 서울에 자유센터를 건립하



동대문운동장 주변(1967년)
광복 후 서울운동장으로 개축된 동대문운동장 주변으로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동대문운동장 일대 항공사진 (1988년)

동대문쇼피타운과 경찰기동대 건물이 신축되었고, 인근 지역에 새로운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 있다. 한양도성의 성곽은 찾아볼 수 없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는 공사를 시작하여 1964년 3월에 마쳤다. 자유센터는 장충동과 한남동에 걸친 부지에 세웠는데, 이때 남소문터 일대의 성벽이 철거되었다. 그리고 타워호텔(지금의 반얀트리클럽&스파 서울)-자유센터-신라호텔로 연결되는 남산의 동쪽 자락은 도성의 울타리에서 호텔의 울타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1969년부터는 남산종합송신탑을 건설하면서 남산 마루의 성벽을 철거하였다. 이 탑은 북한의 대남방송 청취를 방해할 목적

으로 세웠는데, 지금은 근대화의 상징물이 되었다. 그리고 1966년에는 퇴계로 연장공사를 하면서 광희문 부근의 성벽을 철거하였고, 1983년에는 금호대로를 확장하면서 성곽을 철거하였다. 이 밖에도 용산 일대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AFKN 전파를 송출하는 시설을 남산 동봉 정상에 세우면서 이중철조망을 둘러쳐 성벽을 따라 도는 길을 막아버리는 등 도성의 수난은 그치지 않았다.

새롭게 복원되는 한양도성의 가치와 의미

한양도성 복원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1961년 창의문 동쪽 성벽 보수를 시작으로 1961년 7월부터 1963년 5월까지 숭례문 중수 공사를 하였고, 1963년에는 흥인지문을 보수하고 인왕산과 백악 지역의 성곽을 보수하였다. 1970년에는 창의문과 숭례문을 보수하고 1972년에는 창의문 주변의 성곽을 보수하였다. 또한 1963년에는 한양도성을 사적으로 지정한 데 이어 1969년에는 한양도성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하여 다시 지정하였다.

본격적인 복원사업은 1974년 8월 ‘서울성곽보수정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루어졌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 124부대가 휴전선을 뚫고 청와대가 있는 백악까지 침투해 총격전을 벌였다. 이에 정부는 백악과 인왕산에 군부대를 증강 배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또한 1974년에는 베트남이 통일되면서 안보의식을 강화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성곽 복원을 활용하여 국가 안보의식을 주입했다. 그리고 서울성곽보수정화계획은 이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복원사업은 도성문을 옮겨 다시 짓는 등 많은 오



창의문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점을 남겼다. 대표적으로 광희문과 숙정문, 혜화문을 다시 지었는데, 광희문은 교통 장애를 이유로 남쪽으로 12m 옮겨 지었고, 제 모습을 찾기 어려웠던 숙정문은 옛 모습을 되살리며 다른 도성문을 참조하여 지었다. 그리고 혜화문은 현대적인 기술로 다시 지어 원래의 모습을 잃고 말았다.

복원사업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복원사업은 시대가 바뀌면서 한양도성의 가치와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

되었는데, 도시와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복원하고 정비하며 시민들이 함께 하는 한양도성으로 새로이 태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한양도성 복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

- 1975. 광희문 홍예 석축을 해체하여 남쪽으로 15m 이전 복원(1974~1975).
- 1976. 삼청지구 성곽 복원(1,994m, 1975~1976). 숙정문 복원(1975~1976).
- 1977. 광희지구 성곽 복원(32m, 광희문 좌측, 1976~1977).
- 1978. 성북지구 성곽 복원(1,355m, 말바위 정상~보성중고교 후문, 1976~1978).
남산지구 성곽 복원(1,639m, 1977~1978).
장충지구 성곽 복원(1,053m, 1977~1978).
- 1979. 청운지구 성곽 복원(1,323.7m, 1지구 창의문~인왕산 668m, 2지구 사직터널 상부에서 서북쪽 655.7m, 1977~1979).

1980년대

- 1980. 삼선지구 성벽 정비(1,037.3m, 한국신학대학~동송아파트, 1979~1980).
청운지구 성곽 복원(200m, 1979~1980).
- 1982. 동송지구 성벽 정비(1,062.7m, 동송동~종로 6가, 1980~1982).
- 1983. 장충지구 성곽 정비(13.8m).
- 1986. 삼청지구 성곽 보수(14.5m, 종로구 부암동).
- 1987. 동송지구 성곽 보수(5m, 종로구 이화동과 성북구 삼선 1동 경계).
창의문 북쪽(창의문~스카이웨이) 성벽 해체 보수(10m).
- 1988. 성북지구 성곽 보수(성곽 해체보수 10m, 여장 해체보수 12.75m).
삼청지구 성곽 보수(성곽 하부 보강공사 9m).
- 1989. 삼청지구 성곽 보수(성곽 해체보수 15.3m, 여장 해체보수 18.35m).
혜화지구 성곽 해체보수(3m).

- 1990. 청운지구 성곽 보수(창의문 좌측 70m 지점: 성곽 상부 16.2m, 하부 6.6m).
- 1991. 청운지구 성곽 보수(8.5m). 삼청지구 성곽 보수(10m).
- 1993. 삼청, 청운지구 성곽 보수(47.3m). 남산 제3봉수대 복원.
- 1994. 해화문 북서쪽으로 13m 이전 복원 및 주변 성곽 복원 (106.5m, 1992~1994).
남산지구 성곽 보수(91.4m), 여장 설치(93m):(1993~1994)
흥인지문 웅성 보수. 장충지구 성곽 보수(26.43m).
- 1995. 송례문 성벽, 계단, 여담 줄눈 보수(1994~1995).
- 1997. 송례문 문루 지붕 해체보수.
흥인지문 보수(동북측 흥예 석축, 남측 여장 및 웅성, 1996~1997).
인왕산 성곽 보수(1996~1997): 성곽 해체 및 축조(58m), 여장 설치 (30m).

새롭게 보수한 성벽

백범광장에서 송례문 쪽으로 내려 가는 순성길 성벽. 옛 돌과 지금의 돌이 마치 경계처럼 보인다.



1998. 인왕산 성곽 보수(45m, 1997~1998).
 인왕산 성곽 보수(40m), 여장 설치(20m).
 흥인지문 문루 및 북측 성벽 보수(36.7m, 1997~1998).
 낙산 성곽 보수(10.1m, 한성대학교 뒤편).
1999. 혜화문 주변 성곽 보수(성곽 17m, 여장 3.6m).
 삼청지구 성곽 보수: 성벽(33m) 및 여장 보수 14타(창의문 - 숙정문).
 흥인지문 보수 및 북측 날개성벽 보수(27.5m).

2000년대

2000. 흥인지문 여담 복원 설치
2002. 인왕산 지역 성곽 여장 복원 22타(2001~2002, 종로구 체부동, 1타=3.15m).
 올리브타워(구 명지빌딩: 중구 서소문) 신축부지 내 성곽 해체 이전(3.7m), 복원 및 정비(56.6m).
2003. 광희문 지구 성곽 보수(99.3m, 중구 광희동 2가).
 흥인지문 북측 성벽 보수(2002~2003): 해체 후 재축(9.7m), 여장 보수(26.5m).
2005. 대한상공회의소 서측 성벽 복원(104m, 남대문로 4가).
 인왕산(7타), 카톨릭대 구간(2타) 성곽 및 여장 보수 · 정비 7타.
 광화문 구간 성곽 복원 및 주변 정비(2003~2005).
2007. 흥인지문 서북 웅성 해체 보수(2002~2007).
 인왕산지구(사직공원~창의문) 성벽 복원 · 정비(381.8m, 1단계 2006~2007).
2008. 인왕산지구 성벽 복원 · 정비(283.5m, 2단계 2007~2008). 숭례문 화재.
2009. 이간수문 및 성벽 복원(142m), 흔적 표시(123m).
2010. 인왕산지구 성벽 복원 · 정비(300m, 3단계 2008~2010).
 남산 회현자락 성벽 복원 · 정비(아동광장, 84m, 1단계 2009~2010).
2011. 인왕산지구 성벽 복원 · 정비(296m, 4단계 2009~2011).



흥인지문 성벽 보수

낙산으로 넘어가는 순성길 성벽을 새로이 단장해 놓았다.

- 월암근린공원 구간 성곽 보수(140m), 여장 정비(80m, 2010~2011).
- 2012. 남산 회현자락 성벽 복원 · 정비(백범광장, 244.9m, 2단계 2011~2012).
- 인왕산지구 성벽 복원 · 정비(216m, 5단계 2010~2012).
- 2013. 숭례문 복원(2010~2013).
- 2015. 흥인지문 응성 여장 해체 보수(103m, 2013~2015).
- 흥인지문, 광희문 주변 단절 성곽 연계성 회복 공사(2014~2015)
- 2016. 남산 회현자락 성벽 복원 · 정비(중앙광장, 448m, 3단계 2013~현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한양도성

한양도성은 1993년 그 동안 출입을 통제한 인왕산 구역을 개방하고 2006년 북악산 구역까지 개방하면서 비로소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한양도성의 참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을 활발하게 하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1999년 주한 러시아대사관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유적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송례문 주변과 정동 일대, 장충동 일대, 인왕산, 남산 백범광장 등지에서 시굴과 발굴 조사를 진행하며 한양도성의 옛 모습을 살리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 1999. 주한 러시아대사관 건립 예정부지에서 유적 시굴조사.
- 2002. 서소문지구 잔존 한양도성 유구 시굴조사(2001~2002).
- 2003. 장충동 한양도성 시굴조사.
- 2004. 청계천 유적의 오간수문지 발굴조사(2003~2004).
- 2005. 대한상공회의소 구간 내 한양도성 유구 시굴조사(2003~2005).
- 2008. 남산 봉수대지 발굴조사.
타워호텔 리모델링 부지 시굴조사(2007~2008).
종로구 송월동 한양도성 발굴조사.
- 2009.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건립 부지 내 발굴조사(2008~2009).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발굴조사(아동광장).
- 2010. 송례문 복원정비사업 내 발굴조사(2008~2010).
창덕여중 중 · 개축 공사부지 내 발굴조사.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발굴조사(백범광장, 2009~2010).
- 2011. 인왕산 5단계 한양도성 복원정비 구간 시굴조사.
- 2013. 광희문 관광자원화 사업부지 내 발굴조사.
청운대 구간 순심로 발굴조사.



남산 백범광장 한양도성 발굴조사
현장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 2014. 한양도성 시장공관 구간 시굴조사.
흥인지문 북측 성벽 추정지역 발굴조사.
- 2015.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발굴조사(중앙광장, 2013~2015).

2009년 서울시는 ‘남산 르네상스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자 관광명소인 남산은 차츰 역사성을 회복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한양도성의 가치를 살리고 있다.

한양도성은 2011년 ‘서울성곽’에서 ‘서울 한양도성’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어 2012년 11월 23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다.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울의 문화유적은 종묘(1995)와 창덕궁(1997), 조선왕릉(2009)이다. 서울시는 이에 더하여 한양도성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에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널리 알릴 계획이다.



중구의
한양도성 제2장
각자성석



1. 한양도성 역사를 새긴 각자성석

한양도성의 성벽에는 드문드문 글자들이 새겨진 성돌이 있다. 한양도성을 쌓은 사람과 날짜, 담당 군현(郡縣), 축성구간을 새겨 놓은 것이다. 이 글자들을 보면 한양도성을 언제, 누가 쌓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글자가 새겨진 성돌을 한양도성 ‘각자성석(刻字城石)’이라 한다. 쉽게 말해 각자성석은 글자를 새겨놓은 한양도성의 성돌을 말한다.

288개의 한양도성 각자성석

한양도성 각자성석은 1916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일본의 사학자이자 조선총독부의 편집과장이었던 오다 쇼고가 가토 간가쿠와 공동조사를 하여 6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일신보(毎日申報)에 ‘성벽문학’이란 제목으로 연재를 하며 한양도성 각자성석을 소개한 것이다. 오다 쇼고는 이를 토대로 1931년에 한양도성 각자성석이 모두 122개이며, 이 중 102개가 판독 가능하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양도성 각자성석 연구는 광복 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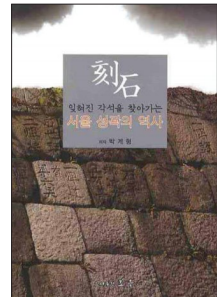


남산 자락의 각자성석. 국립극장 오른쪽으로 나 있는 한양도성 순성길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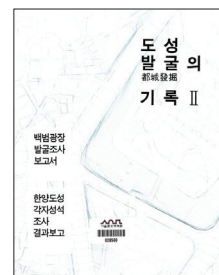
2008년 사학자 민덕식은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가 출간하는 <향토서울> 71호에 89개의 각자성석을 소개하였고, 2008년 8월에는 <잊혀진 각석을 찾아가는 서울 성곽의 역사>의 저자 박계형이 이 책을 통해 66개의 각자성석을 소개하였다. 이어 2009년에는 서울시에서 115개의 각자성석을, 2012년에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도성발굴의 기록Ⅱ 한양도성 각자성석 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152개의 각자성석을 소개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문인식(당시 한양도성도감 도성관리팀장, 현 성동구 도시관리국장)이 <한양도성의 각자성석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통해 272개의 각자성석을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4년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漢陽都城都監)’은 문인식이 연구 발표한 272개의 각자성석을 중심으로 한양도성의 각자성석을 발굴하는 조사를 실시하여 모두 288개의 각자성석을 찾아냈다. 아울러 288개의 각자성석을 정리하여 2015년 11월 <한양도성 각자성석과 축성기록>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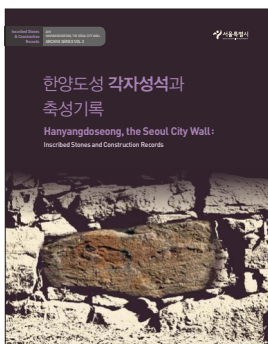
한양도성도감은 한양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잊혀진 각석을 찾아가는 서울 성곽의 역사>



<도성발굴의 기록Ⅱ 한양도성 각자성석 조사 결과보고>



〈한양도성 각자성석과 축성기록〉

의 전담조직이다. 2012년 9월 28일 ‘한양도성연구소’와 함께 설치되었으며, 한양도성의 문화자원을 발굴하며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우리 국민들에게 한양도성의 의미와 참모습을 널리 알리고 있다.

참고로 이 책의 ‘중구의 한양도성 각자성석’은 한양도성도감의 〈한양도성 각자성석과 축성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에 수록한 한양도성 각자성석의 사진과 성돌에 새겨진 원문은 한양도성도감의 도움으로 수록하였음을 밝힌다.

천자문 글자로 구간을 표시한 한양도성

한양도성은 태조 대에 처음 쌓을 때 백악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600척씩 97개 구간으로 나누어 쌓았다. 그리고 전체 97개 구간을 크게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 도(道)에 분담시키고 각 구간마다 천자문 순서대로 이름(구간명)을 붙였다. 즉 천자문에서 한 글자씩 따서 천(天), 지(地), 현(玄), 황(黃)…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것인데, 첫 구간인 ‘천(天)’ 구간부터 97번째 ‘조(弔)’ 구간까지 그 구간의 성돌에 천자문 글자를 하나씩 새긴 것이다.

또한 도성을 쌓는 공사는 전국의 양인들을 동원하여 하였다. 국경 인근 지역을 제외한 평안도(서북면)와 함경도(동북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의 양인들을 동원하였는데, 한양도성의 지역별 축성구간은 다음과 같다.

태조 대의 한양도성 지역별 축성구간

지역	구간	구간 수	축성길이
함경도(동북면) 이남	백악 정상~숙정문(天~日)	9	5,400척(1,690.5m)
강원도	숙정문~혜화문(月~寒)	8	4,800척(1,502.7m)
경상도	혜화문~남산 잠두봉(來~珍)	41	24,600척(7,701.3m)
전라도	남산 잠두봉~돈의문(李~龍)	15	9,000척(2,817.5m)
평안도(서북면) 이남	돈의문~백악 정상(師~弔)	24	14,400척(4,508.0m)
합계	天~弔	97	58,200척(18,220m)

한양도성 천자문 구간

1 天 하늘 천	2 地 따 지	3 玄 검을 현	4 黃 누르 황	5 宇 집 우	6 宙 집 주	7 洪 넓을 홍	8 荒 거칠 황
9 日 날 일	10 月 달 월	11 盈 찰 영	12 仄 기울 측	13 辰 별 진	14 宿 잘 숙	15 列 별일 열	16 張 베풀 장
17 寒 찰 한	18 來 올 래	19 暑 더울 서	20 往 갈 왕	21 秋 가을 추	22 收 거둘 수	23 冬 겨울 동	24 藏 감출 장
25 閏 윤달 윤	26 餘 남을 여	27 成 이룰 성	28 歲 해 세	29 律 가락 률	30 呂 음률 러	31 調 고를 조	32 陽 별 양
33 雲 구름 운	34 騰 오를 등	35 致 이룰 치	36 雨 비 우	37 露 이슬 로	38 結 맺을 결	39 爲 할 위	40 霜 서리 상
41 金 쇠 금	42 生 낳을 생	43 麗 고울 려	44 水 물 수	45 玉 구슬 옥	46 出 날 출	47 崑 메 곤	48 岡 메 강
49 劍 칼 검	50 號 이름 호	51 巨 클 거	52 闕 대궐 궐	53 珠 구슬 주	54 稱 일컬을 칭	55 夜 밤 야	56 光 빛 광
57 果 과실 과	58 珍 보배 진	59 李 오얏 이	60 柰 능금 내	61 菜 나물 채	62 重 무거울 중	63 芥 겨자 개	64 薑 생강 강
65 海 바다 해	66 鹹 짭 함	67 河 물 하	69 淡 묽을 담	69 鱗 비늘 린	70 潛 잠길 잠	71 羽 깃 우	72 翔 날 상
73 龍 용 룡	74 師 스승 사	75 火 불 화	76 帝 임금 제	77 鳥 새 조	78 官 벼슬 관	79 人 사람 인	80 皇 임금 황
81 始 처음 시	82 制 지을 제	83 文 글월 문	84 字 글자 자	85 乃 이에 내	86 服 옷 복	87 衣 옷 의	88 裳 치마 상
89 推 밀 추	90 位 자리 위	91 讓 사양할 양	92 國 나라 국	93 有 있을 유	94 虞 헤아릴 우	95 陶 질그릇 도	96 唐 당나라 당
97 弔 조상할 조							

한양도성도감이 조사한 288개의 각자성석은 세종 대의 것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순조 대와 숙종 대, 태조 대의 순으로 많았는데, 이는 태조 대에 처음 쌓은 한양도성을 세종 대에 대대적으로 다시 쌓았기 때문이다. 즉 태조 대에 석성과 토성으로 쌓은 것을 세종 대에 석성으로 다시 쌓으면서 각자성석도 세종 대의 것이 가장 많은 것이다.

한양도성 각자성석 시대별 현황

태조	세종	광해군	효종	숙종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연대 불명	합계
29	118	1	1	23	2	38	4	2	1	69	288

한양도성의 공사실명제 각자성석

한양도성 각자성석은 시기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각자성석에 새겨진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느 시기에 도성을 쌓았는지 알 수 있고, 어느 지역이 담당한 축성 구간인지, 담당한 군현은 어디이고 담당관과 석수 등은 누구인지도 알 수 있다.

남산 자락의 각자성석





남산 자락의 한양도성 순성길. 이 길을 따라 오르내리면서 각자성석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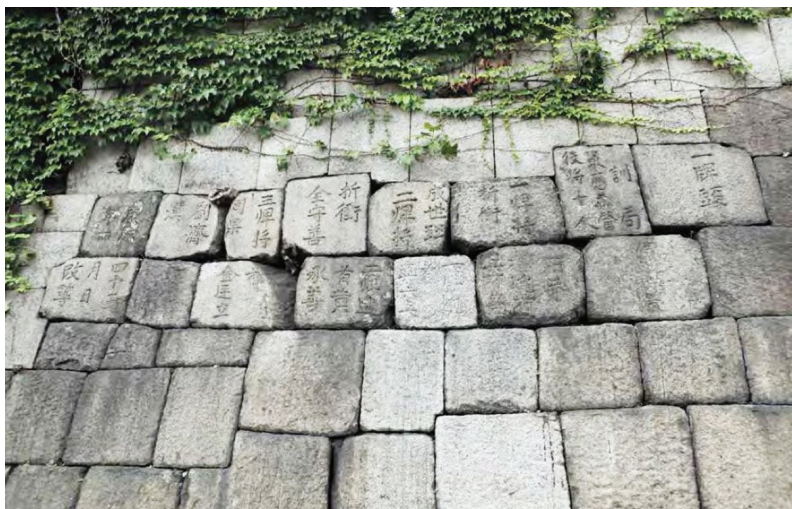
그러나 한양도성 각자성석에 모두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 두어 자만 새겨진 것도 있고 글자가 새겨져 있으나 판독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다. 또 비교적 상세히 새겨져 있으나 중간 중간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새겨진 것들도 있다.

한양도성 각자성석은 태조 대에서 후대로 내려올수록 그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다. 우선 태조 대의 각자성석에는 천자문의 글자들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천자문 글자를 보면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어느 구간에 도성을 쌓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세종 대의 각자성석에는 담당 군현이 새겨져 있다. 이를 보면 어느 도의 어느 군현에서 쌓은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담당 군현까지 새긴 것은 나중에 담당 구간이 허물어지면 책임자 문책은 물론 그 군현이 책임지고 허물어진 구간을 다시 쌓게 하기 위해서였다.

효종과 현종 대의 각자성석에는 감역(監役)이나 감역관(監役

한양도성 낙산 구간 초입에 모아 놓은 각자성석



官) 등 공사감독관까지 새겨져 있다. 담당 군현을 새긴 것에서 더 나아가 공사시점과 감독관, 석수 등의 직책과 이름까지 새긴 것이다.

그런데 감독관과 석수 등의 이름이 새겨진 성돌은 효종 대보다 앞선 광해군 시기에도 발견되었다. 이를 보면 이전부터 상세한 내용을 새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 태조 이후 후대로 가면서 책임자와 담당자, 날짜 등 성돌에 새기는 내용을 보완하며 더 상세히 새겼던 것이다. 이는 곧 공사실명제라 할 수 있는데, 후대로 가면서 이를 더욱 확실히 하여 도성 수축에 만전을 기했을 것이다.

이처럼 공사실명제가 정착하면서 숙종 대의 각자성석에는 책임자의 이름과 수축한 날짜는 물론이고 소속 군문과 직책 등 더 상세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순조 대의 각자성석에도 성벽을 수축한 연대와 담당관, 석수 등 공사를 담당한 관련자의 직책과 이름이 새겨져 있다.

2. 중구의 한양도성 각자성석

한양도성 각자성석은 중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중구에는 모두 96개의 각자성석이 있는데, 이는 전체 288개 중에서 1/3을 차지한다. 한양도성 각자성석이 중구에 많은 것은 남산 기슭의 성벽에 다수의 각자성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태조 대의 각자성석이 가장 많은 중구의 각자성석

시대별로 보면 세종 대의 각자성석이 38개로 가장 많았다. 태조 대 25개, 숙종 대 14개로 그 뒤를 이었다. 세종 대의 각자성석이 가장 많다는 것은 중구의 한양도성이 세종 대에 다시 쌓은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중구의 도성 구간은 태조 대에 처음 쌓을 때 토성이 많았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즉 토성 구간은 글자를 새겨 넣기가 어려웠을 것인데, 세종 대에 토성 구간을 허물고 석성으로 다시 쌓으면서 새로이 글자를 새겨 넣었을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태조 대의 각자성석이 25개나 있다는 것이다. 전체 288개의 각자성석 중 태조 대의 각자성석은 29개인데, 그 중 대부분이 중구에 있는 것이다.



태조 대에 쌓은 남산 자락의 한양도성

중구의 한양도성 각자성석 시대별 현황

태조	세종	효종	숙종	순조	연대 불명	합계
25	38	1	14	2	16	96

중구의 각자성석을 행정구역 분포로 보면 신당동과 장충동에 가장 많다. 전체 96개 중에 신당동 37개, 장충동 33개로 모두 70개나 된다. 이는 광희문 구간과 남산 기슭의 성벽에서 각자성석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자성석은 성벽이 아닌 곳에서도 볼 수 있다. 바로 남산 자유센터와 반얀트리클럽&스파 서울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성벽을 허물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성돌로 옹벽과 담장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벽을 허문 뒤 성돌을 건물을 짓는 데 썼고, 이런 과정에서 각자성석이 섞여 들어간 것이다.

중구의 한양도성 각자성석 분포

남산	광희동	남창동	신당동	을지로	장충동	충정로	회현동	합계
14	2	7	37	1	33	1	1	96

남산의 한양도성 각자성석

남산 기슭에서는 천자문을 새긴 각자성석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천자문을 새겼으니 태조 대의 성벽일 것이다.

장충체육관 고개 위에서 체육관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보면 한양도성 성곽길이 나온다. 비탈진 길 주택가를 따라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서 시작하는 성곽이 광희문에서 이어져 온 성곽이었다. 지금은 멸실되어 광희문에서 이어지는 성곽을 볼 수 없지만 여기서부터는 성곽을 따라 한양도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길을 따라 성곽을 둘러보면 ‘곤자육백척(崧字六百尺)’이라 새겨진 성돌이 나온다. 곤(崧)은 천자문의 47번째 글자이고 600척(六百尺)은 도성을 쌓은 길이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성돌이 있는 구간은 태조 대에 처음 쌓은 한양도성의 47번째 구간이라는 뜻이다.

곤 자 다음의 글자는 강(崗) 자와 검(劍) 자다. 이 글자들이 새겨진 각자성석은 남산 자유센터와 반얀트리클럽&스파 서울에서 볼 수 있다.

먼저 강 자가 새겨진 성돌은, 자유센터 정문으로 들어가 오른쪽을 보면 높은 축대가 있는데 그 축대에 ‘강자육백척(崗字六百尺)’이라 새겨진 성돌이 있다. 또 검 자가 새겨진 성돌은, 반얀트리클럽&스파 서울 남쪽으로 석축이 있는데 거기에 ‘검자육백척(劍字六百尺)’이라 새겨진 성돌이 있다.



장충체육관 뒤로 이어지는 한양도성 순성길 입구 건너편 주택의 담장으로 쓴 성돌. 광희문에서 남산 구간으로 이어지는 성벽은 현대에 들어와 주택의 축대로 사용되었다.

자유센터 정문 오른쪽의 축대. 한양도성의 성돌을 사용하였다.





한양도성의 성돌을 사용한 반안트리클럽&스파 서울 축대. 한양도성 각자성석이 축대에 박혀 있다.

강자육백척은 한양도성의 48번째 구간, 검자육백척은 49번째 구간을 뜻한다. 그런데 이 글자들이 새겨진 성돌은 한양도성의 성벽하고는 무관한 축대와 석축에 박혀 있다. 이는 앞서 말했듯 성벽을 허물고 공사를 하면서 성돌을 썼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각자성석의 의미는 차치하고 한양도성의 의미마저 외면했던 개발시대의 문화 파괴의 모습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남산 기슭에는 천자문의 52번째 글자인 궐(闕) 자, 54번째 글자인 칭(稱) 자, 55번째 글자인 야(夜) 자, 56번째 글자인 광(光) 자, 59번째 글자인 이(李) 자, 60번째 글자인 내(奈) 자가 새겨진 각자성석이 있다.

한양도성과 운명을 함께 한 석수 ‘안이토리’

한양도성 각자성석에 새겨진 글은 단순한 표기가 아니다. 도성을 쌓은 시기와 사람들을 그려볼 수 있는 역사다. 두어 자가 새겨져 있든 그보다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든 성돌에 새겨진 글자에는 도

성을 쌓은 사람들의 숨결이 담겨 있다.

1711년(숙종 37) 4월 8일 승정원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금위영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수구문을 개축할 때 홍예석(虹霓石)을 자리 잡으면서 저희 영의 석수(石手) 안이토리(安二土里)가 돌에 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 모로 치료를 하였지만 끝내 운명하였습니다. 지극히 놀라고 참담합니다. 저희 영에서 약간의 쌀과 포목을 지급하여 염을 하고 장사를 지내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계를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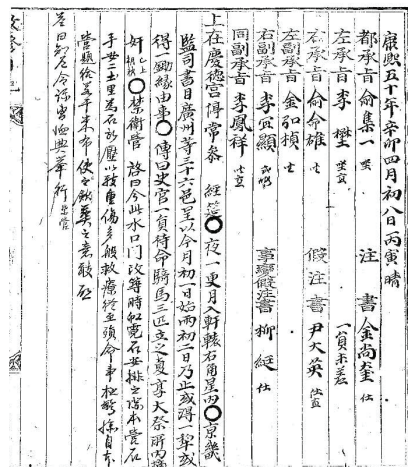
임금이 알겠다고 답을 하고, 담당 호조에 홀전(恤典)을 행하라 명하였다.

안이토리는 한양도성을 수축할 때 참여한 석수다. 석수이니 성돌을 깎고 다듬는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광희문을 개축하는 공사를 하다가 돌에 깔려 죽었다. 아마도 홍예석에 깔린 것 같은데, 이 돌도 안이토리가 깎고 다듬었다면 자신이 다듬은 성돌에 깔려 운명을 달리한 것이다.

안이토리의 이름이 새겨진 각자성석은 세 곳에서 발견되었다.

하나는 국립극장에서 남산으로 오르는 한양도성 순성길에서 볼 수 있다. 이 길로 들어서서 조금만 올라가면 ‘금도청감관이수지오수준(禁都廳監官李秀枝鳴首俊) 석수편수안이토리(石手邊首安二土里) 경인삼월일(庚寅三月日)’이라 새겨진 성돌이 나온다. 1710년(경인년, 숙종 36) 3월에 금위영 도청 감관 이수지와 오수준이 감독을 맡고 석수 책임자 안이토리가 도성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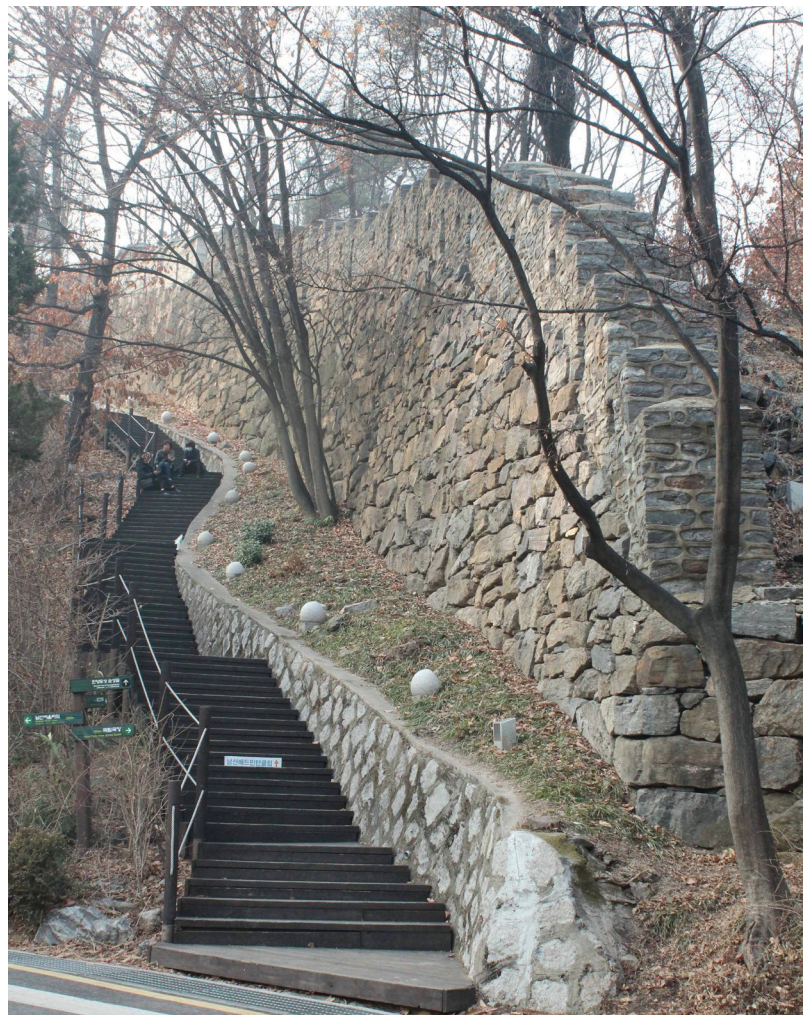
다른 하나도 거기서 100미터 정도 올라가면 볼 수 있다. 성돌에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안이토리 이야기

는 ‘도청감관조정원오택윤상후(都廳監官趙廷元鳴澤尹商厚) 편수안이토리(邊首安二土里) 기축팔월일(己丑八月日)’이라 새겨져 있다. 1709년(기축년, 숙종 35) 8월에 도청 감관 조정원, 오택, 윤상후 세 사람이 감독을 맡고 석수 책임자 안이토리가 도성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백악 마루 밑 도성의 바깥 체성에 있다고 한다. 여기의 성돌에는 ‘정해칠월일(丁亥七月日) 감관이준강김흥석○○조(監官李俊綱金興錫○○祚) 편수안이토리(邊首安二土里)’라 새겨



국립극장 오른쪽으로 나 있는 남산의 한양도성 순성길. 이 길을 따라 오르면 안이토리의 이름이 새겨진 각자성석을 만날 수 있다.



‘금도청감관이수지오수준(禁都廳監官李秀枝鳴首俊) 석수편수안이토리(石手邊首安二土里) 경인삼월일(庚寅三月日)’이라 새겨진 각자성석.



‘도청감관조정원오택윤상후(都廳監官趙廷元鳴澤尹商厚) 편수안이토리(邊首安二土里) 기축팔월일(己丑八月日)’이라 새겨진 각자성석.

져 있다. 1707년(정해년, 숙종 33) 7월에 감관 이준강, 김홍석이 감독을 맡고 석수 책임자 안이토리가 도성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감독은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앞의 두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이 ‘○○조’라고 새겨져 있어 이름은 알 수 없다.

이를 보면 안이토리는 1707년 7월에 백악 구간의 도성 공사에 참여한 뒤 1709년 8월과 1710년 3월 2년에 걸쳐 남산 구간의 도성 공사에 참여했다. 그리고 남산 구간의 공사를 한 지 1년 만인 1711년 4월 광희문 개축 공사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만약 그가 사고로 죽지 않고 무사히 일을 마쳤다면 광희문에도 ‘신묘사월일(辛卯

四月日) 편수안이토리(邊首安二土里)’라 새겨진 성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돌을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안이토리가 언제 태어나 어떻게 가정을 꾸렸고, 자식은 몇이고 살림살이는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금위영에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 약간의 쌀과 포목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신임이 두텁고 기술이 좋은 석수였을 것이다. 도성을 공사할 때마다 성돌에 책임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보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장인(匠人)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죽었다. 남편을 잃은 아내와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은 날벼락 같은 비보에 목 놓아 울었을 테고, 슬픔도 잠시, 가장이 없는 살림과 생계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막막했을 것이다.

역사는 민중을 기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는 민중이 만들어 간다. 한양도성 또한 안이토리 같은 수많은 민중이 만들었다. 이름 없는 민중들이 한양도성을 오늘날까지 있게 하였다.

각자성석은 한양도성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각자성석을 통해 한양도성이 지나온 시간과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양도성을 쌓은 사람들의 숨결과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그래서 각자성석에 새겨진 글을 보면 그 옛날 한양도성을 쌓았던 사람들과 시간이 그려지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한다.

3. 중구의 한양도성 각자성석 도록

중구의 한양도성 각자성석은 모두 96개로, 이 중 52개는 사진으로 수록하고 도록 뒤에 일람표를 수록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한양도성 각자성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강 자 육 백 척

岡字六百尺

판독원문

강(岡)은 천자문의 48번째 글자로, 한양도성의 48번째 구간이라는 뜻이다.

뜻풀이

태조 5년(1396) | 외부 5단 | 113×4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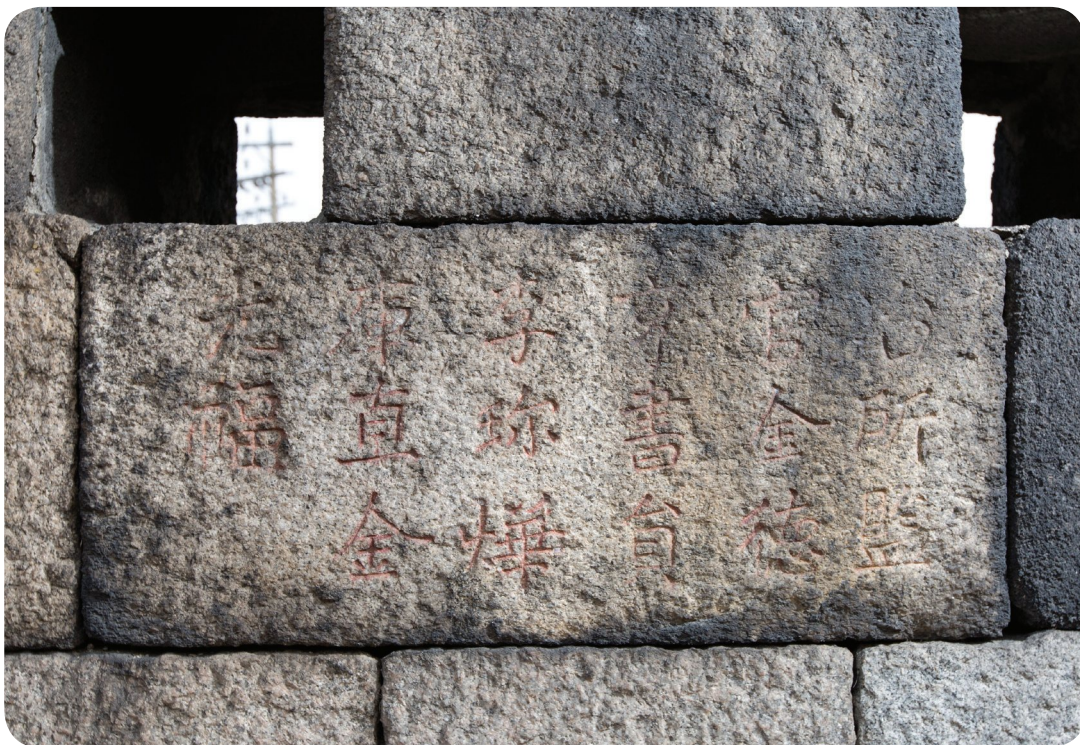
시기 위치 크기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89

소재지

판독원문 중 [] 표시는 글자가 확실하지 않아서 추정한 글자이며, ○ 표시는 판독을 할 수 없는 글자들이다.

이 책에 수록한 사진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에서 제공하였다.



치 소 감 관 김 덕 형 서 원 이 진 엽 고 직 김 광 복
治所監官金德亨 書員李珍燁 庫直金光福

순조 연간 | 내부 여장 원충안(좌) 밑 | 84×37cm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105-30

공사감독관 김덕형, 하급관리 이진엽, 김광복의 이름을 새겼다. 서원(書員)은 관아의 하급관리, 고직(庫直)은 관아의 창고를 지키는 사람을 말한다.





강 희 사 십 사 년 구 월
康熙四十四年九月 ○ ○ ○ ○

숙종 31년(1705.9) | 외부 1단 | 48×39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0-1

숙종 대인 1705년 9월에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강희(康熙)는 청나라 인황제(仁皇帝)의 연호다.





이 패 장 출 신 최 오 석
二牌將 出身 [催]五碩

이패장 출신 최오석이 공사를 담당하였다는 뜻이다.
패(牌)는 무리, 즉 작업단위 조직을 말하고, 패장(牌將)은 그 패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숙종 31년(1705.9) | 외부 2단 | 46×37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0-1





일 패 장 김 태 호
一牌將 金泰虎

일패장 김태호가 공사를 담당하였다는 뜻이다.

숙종 31년(1705.9) | 외부 3단 | 42×38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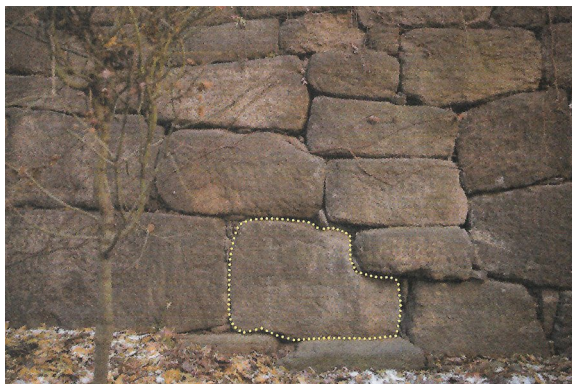




순 천 시 면
順天始面

전라도 순천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세종 4년(1422) | 외부 2단 | 87×62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0-3





봉 화 시 면
奉化始面

경상도 봉화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태조 5년(1396) | 외부 2단 | 140×34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2





순 흥 시 면
順興始面

경상도 영주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순흥(順興)은 영주의 옛 이름이다.

세종 4년(1422) | 외부 2단 | 308×41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2





흥 해 삼 십 육 척
[興]海三十六尺

36척 구간을 경상도 포항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흥해(興海)는 포항의 옛 이름이다.

외부 4단 | 133×68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2





경 산 시 면
慶山始面

경상도 경산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세종 4년(1422) | 외부 1단 | 101×58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내 목 생 내 부 생
來木生奈夫生

외부 1단 | 132×30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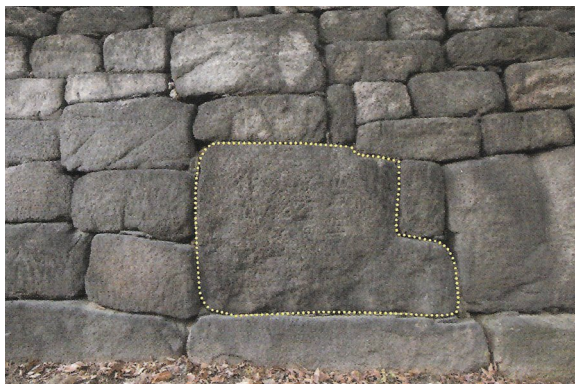




산 석 생 자 육 백 척 려 자 시 면
山石生字六百尺 [麗] 字始面

태조 5년(1396) | 외부 1단 | 159×105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생(生)은 천자문의 42번째 글자, 려(麗)는 43번째 글자로, 한양도성의 42번째 구간이 끝나고 43번째 구간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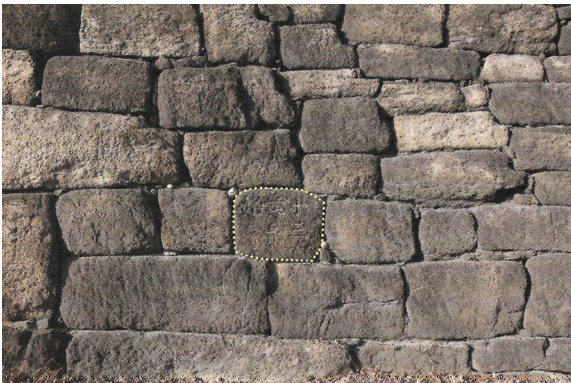




십삼수음시
十三受音始

태조 5년(1396) | 외부 3단 | 58×46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수음(受音)은 각각의 공사 구간에 속한 작은 구간, 즉 소구간을 뜻한다. 그러므로 13척의 소구간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여 자 소 수 음
麗字小受音

려(麗)는 천자문의 43번째 글자로, 한양도성의 43번째 구간에 속한 소구간이라는 뜻이다.

태조 | 외부 1단 | 92×30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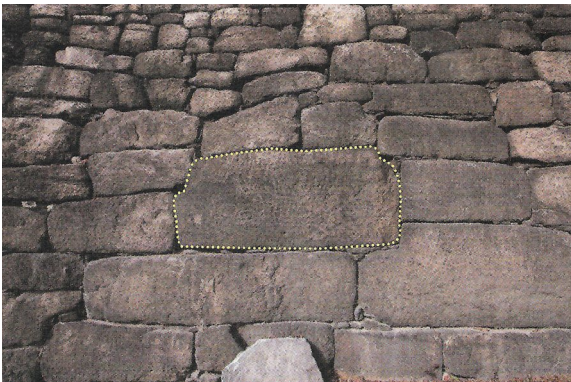




영 일 시 영 일 시 면
迎日始 迎日始面

경상도 포항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영일(迎日)은 포항의 옛 이름이다.

세종 4년(1422) | 외부 3단 | 174×76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의령시면 宜寧始面

경상도 의령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세종 4년(1422) | 외부 3단 | 77×59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함 안 함 안 시 면
咸安 咸安始面

경상도 함안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세종 4년(1422) | 외부 2단 | 120×64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해진시면 海玗始面

전라도 해남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조선 초기 해남과 진도를 합하여 '해진군'이라 하였다.

세종 4년(1422) | 외부 1단 | 85×68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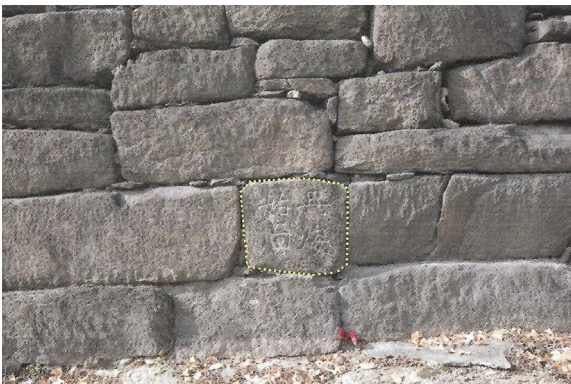




흥 해 시 면
興海始面

경상도 포항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흥해면과 영일군은 1995년 포항시에 통합되었다.

세종 4년(1422) | 외부 2단 | 56×48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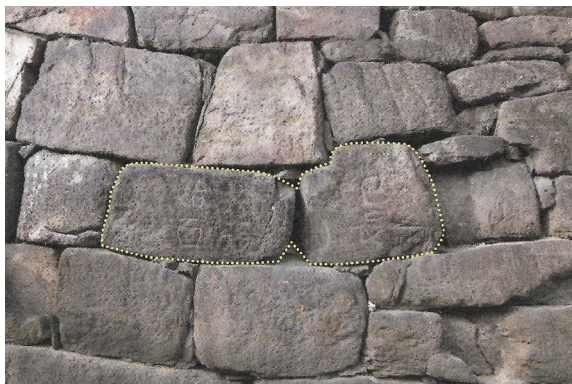




기 장 기 장 시 면
己長 機張始面

경상도 기장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기장은 오늘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다.

세종 4년(1422) | 외부 5단, 4단 | 65×56, 85×41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6





수 자 옥 백 척 옥 자 시 면
水字六百尺 玉字始面

수(水)는 천자문의 44번째 글자, 옥(玉)은 45번째 글자로, 한양도성의 44번째 구간이 끝나고 45번째 구간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태조 5년(1396) | 외부 3단 | 148×47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6





예 천 시 면
醴泉始面

경상도 예천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세종 4년(1422) | 외부 2단 | 113×37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6





을 산 시 면
蔚山始面

경상도 울산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세종 4년(1422) | 외부 3단 | 71×42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6





蔚山終

경상도 울산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남산의 경상도 담당 구간에는 군현 이름에 시면(始面)이나 시(始), 종(終) 자를 붙인 각자성석이 많다.

세종 4년(1422) | 외부 3단 | 84×42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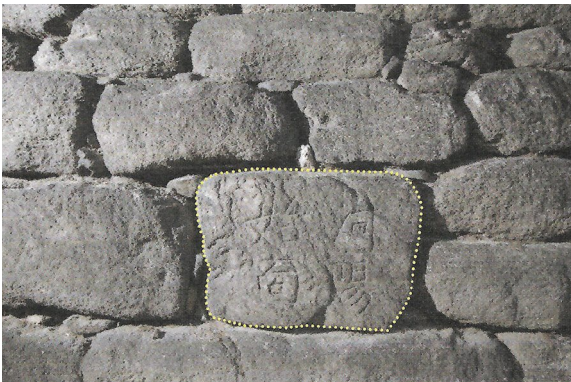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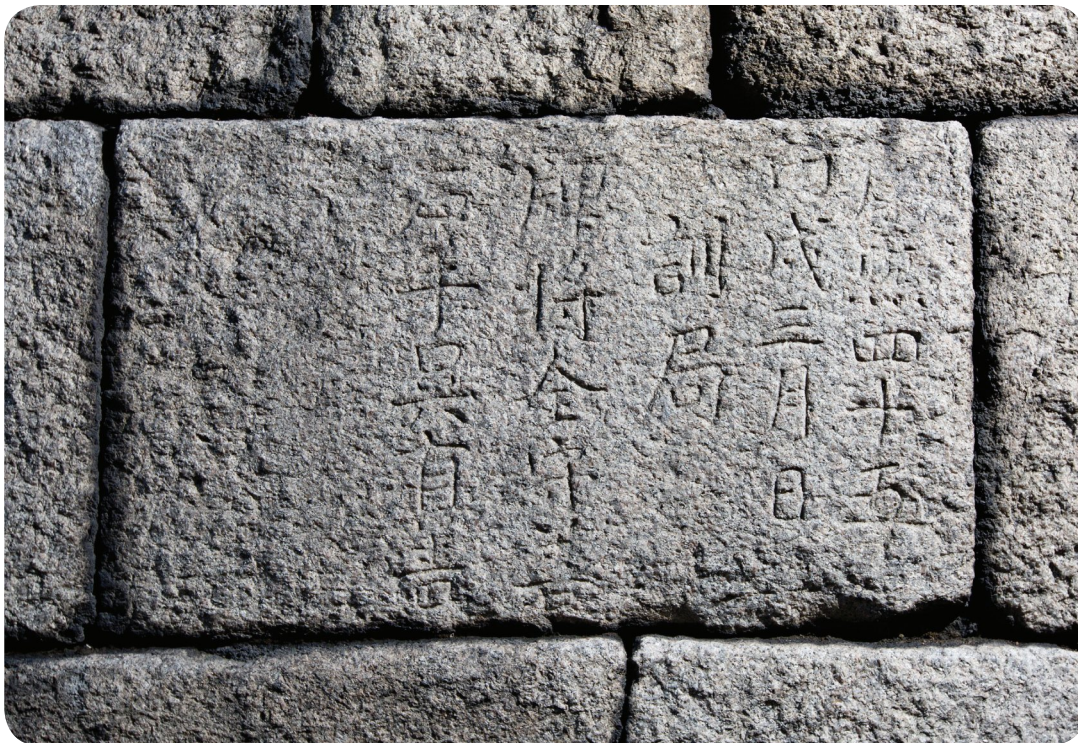


하 양 시 면
河陽始面

경상도 경산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하양(河陽)은 경산 지역의 옛 이름이다.

세종 4년(1422) | 외부 2단 | 75×51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6





강 희 사 십 오 병 술 삼 월 일
康熙四十五 丙戌三月日
 훈 국 패 장 전 수 선 석 수 오 유 선
訓局 牌將全守善 石手鳴有善

숙종 32년(1706.3) | 외부 3단 | 86×52cm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17-1

숙종 대인 1706년 3월에 훈련도감의 전수선이 공사감독을 맡고 석수 오유선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구 성 이 남 상 말
龜城以南 上末

세종 4년(1422) | 외부 4단 | 96×30cm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17-1

평안도 구성 이남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황해도 담당 구간의 각자성석에서는 군현 이름에
상말(上末)이나 하말(下末) 자를 붙인 것들을 볼 수
있다.





태 천 하 말
泰川下[末]

평안도 태천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세종 4년(1422) | 외부 4단 | 42×33cm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17-1





야 자 종
夜字終

야(夜)는 천자문의 55번째 글자로, 한양도성의 55번째 구간의 꼬트머리라는 뜻이다.

태조 | 외부 6단 | 41×18cm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監役判官 金[德] ○
一百五十尺

150척 구간을 감역판관 김덕○이 공사감독을 맡았
다는 뜻이다. 공사감독은 마지막 자를 알 수 없어 정
확한 이름은 알 수 없다.

외부 1단 | 103×55cm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4





검 자 육 백 척
劍字六百尺

태조 5년(1396) | 외부 6단 | 1162×38c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9-9

검(劍)은 천자문의 49번째 글자로, 한양도성의 49번째 구간이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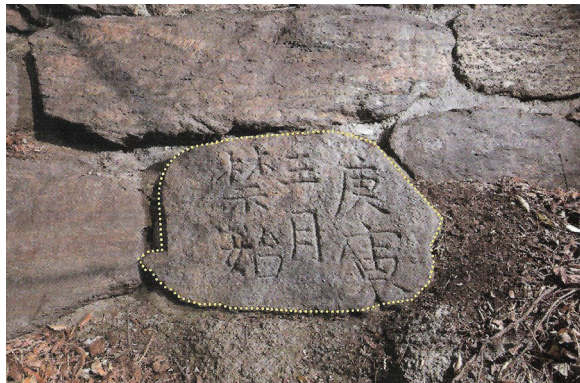




경 인 삼 월 금 시
庚寅 三月 禁始

숙종 대인 1710년 3월 금위영 담당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뜻이다.

숙종 36년(1710.3) | 외부 1단 | 67×44c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9-12





안 음 시 면
安[陰]始面

경상도 함양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안음(安陰)은 함양 지역의 옛 이름이다.

세종 4년(1422) | 외부 2단 | 140×43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13





도청감관조정원오택윤상후
 都廳監官 趙廷元 鳴澤 尹商厚
 변수안이토리기축팔월일
 邊首安二土里 己丑八月日

숙종 35년(1709.8) | 외부 2단 | 125×57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숙종 대인 1709년 8월에 도청 감관 조정원, 오택, 윤상후가 공사감독을 맡고 석수 책임자 안이토리가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십 사 수 음 용 궁 시 면
十四受音[龍][宮]始面

남산의 어느 한 구간의 소구간 14석을 경상도 예천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용궁(龍宮)은 오늘날 예천의 면이다.

태조 5년(1396) | 외부 2단 | 130×53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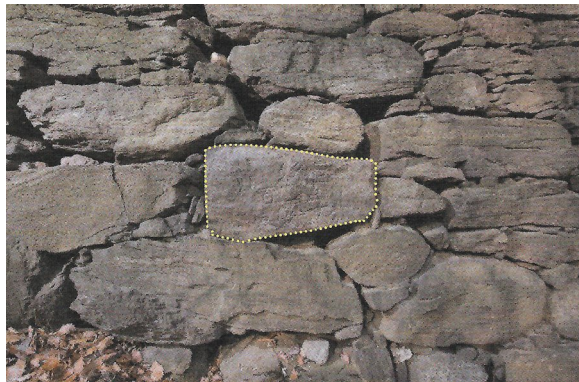




거 자 종 꺾 백 척
巨字終闕○百尺

거(巨)는 천자문의 51번째 글자, 꺾(闕)은 52번째 글자로, 한양도성의 51번째 구간이 끝나고 52번째 구간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태조 5년(1396) | 외부 3단 | 90×50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금 이 소 오 백 칠 십 보
禁 二 所 五 百 七 十 步

금(禁)은 금위영(禁衛營)을 말하고, 이소(二所)는 두 구간, 570보는 도성을 쌓은 거리를 말한다.

숙종 37년(1711.10.29) | 외부 2단, 외부 3단 | 92×40, 145×57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금 도 청 감 관 이 수 지 오 수 준
禁都廳 監官李秀枝 鳴首俊
 석 수 변 수 안 이 토 리 경 인 삼 월 일
石手邊首安二土里 庚寅三月日

숙종 36년(1710.3) | 외부 각 1단 | 45×41, 56×34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숙종 대인 1710년 3월에 금위영 도청 감관 이수지와 오수준이 감독을 맡고 석수 책임자 안이토리가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순 치 십 사 년 팔 월 일 감 역 권 덕 휘 서 원 한
順治十四年八月日 監役權德徽 書員[韓]

충 신 석 수 기 효 개
忠信 石手[奇]孝[盖]

효종 대인 1657년 8월 감역 권덕휘가 감독을 맡고 석수 기효개가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하급관리 한충신 이름도 새겨놓았다.

효종 8년(1657.8) | 외부 4단 | 111×43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제 삼 소 수 음 사 정 우
第三小受音 使鄭祐

남산의 어느 한 구간의 세 번째 소구간을 정우(鄭祐)라는 사람이 맡았다는 뜻이다. 사(使)는 소구간의 공사책임자 직책명이다.

태조 5년(1396) | 외부 1단 | 145×60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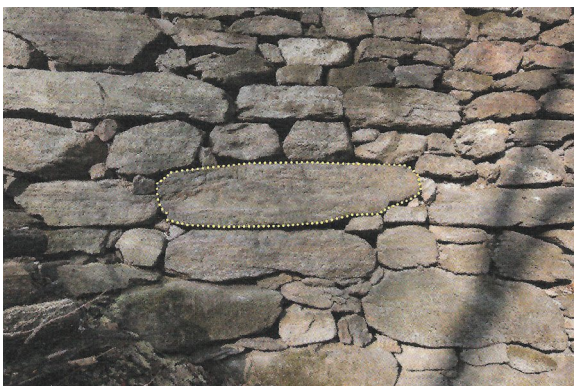




제 오 수 음 판 관 진 원 길
第五受音 判官 陳原吉

남산의 어느 한 구간의 다섯 번째 소구간을 판관 진원길이 맡았다는 뜻이다.

태조 5년(1396) | 외부 5단 | 143×35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제 육 수 음 판 관 장 자 전
第六受音判官張子[璵]

남산의 어느 한 구간의 여섯 번째 소구간을 판관 장
자전이 맡았다는 뜻이다.

태조 5년(1396) | 외부 3단 | 59×52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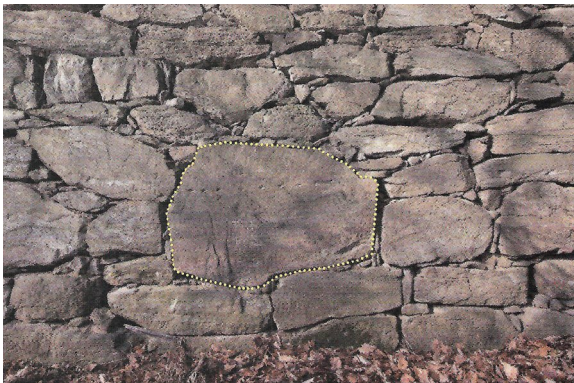


제 칠 소 수 음
第七小受音

제 칠 수 음 판 관 신 용 도
第七受音 判官辛用道

남산의 어느 한 구간의 일곱 번째 소구간을 판관 신용도가 맡았다는 뜻이다.

태조 5년(1396) | 외부 3단 | 149×97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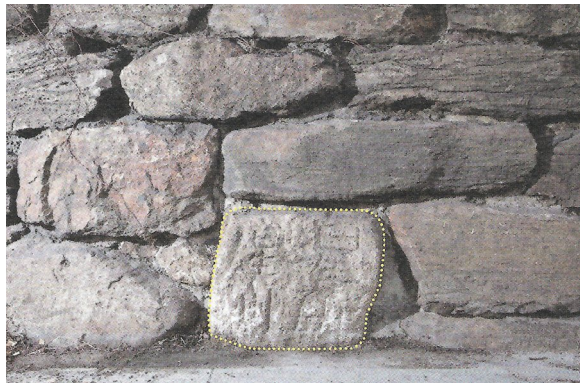




성 주 성 주
星州 星州

경상도 성주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세종 4년(1422) | 외부 1단 | 63×52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59





강 자 육 백 척
岡字六百尺

강(岡)은 천자문의 48번째 글자로, 한양도성의 48번째 구간이라는 뜻이다.

태조 5년(1396) | 외부 5단 | 113×48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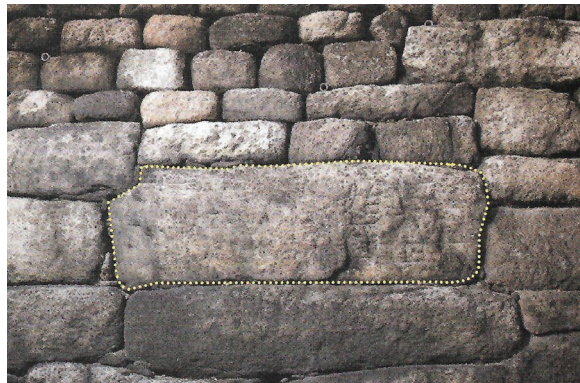




거 창 시 면
居昌始面

경상도 거창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세종 4년(1422) | 외부 4단 | 143×44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13





출 자 육 백 척 곤 자 시 면
出字六百尺 崑字始面

출(出)은 천자문의 46번째 글자, 곤(崑)은 47번째 글자로, 한양도성의 46번째 구간이 끝나고 47번째 구간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태조 5년(1396) | 외부 3단 | 180×36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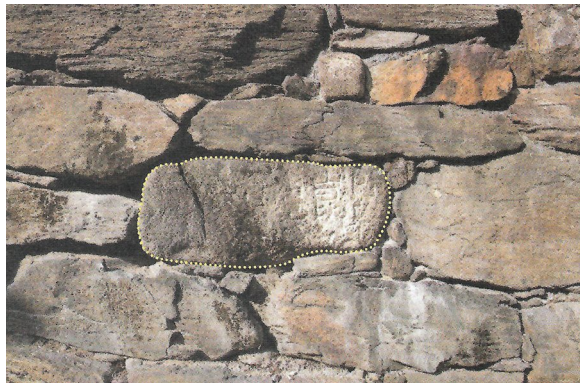




기 곤 자 육 백 척
[己] ○ 崑字六百尺

곤(崑)은 천자문의 47번째 글자로, 여기서부터 한양 도성의 47번째 구간이 시작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태조 5년(1396) | 외부 3단 | 106×43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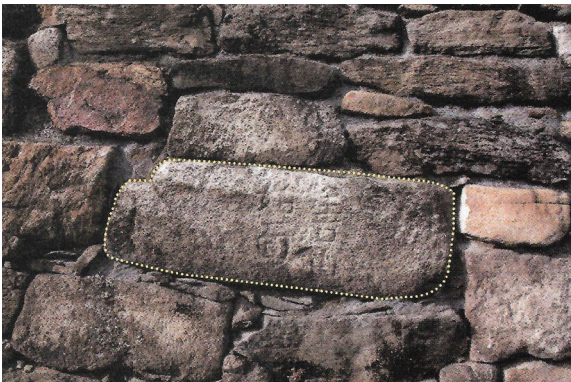




선 산 시 면
善山始面

경상도 구미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선산(善山)은 오늘날 구미시에 읍으로 있다.

세종 4년(1422) | 외부 3단 | 172×58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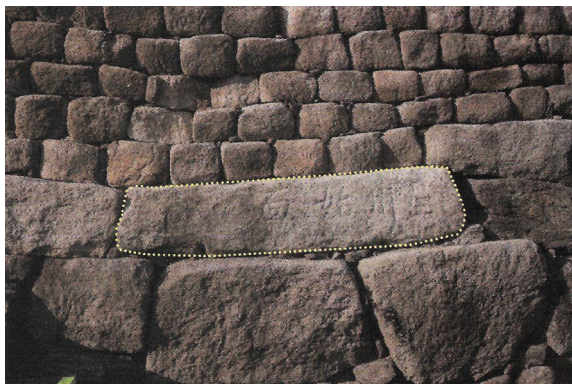




성 주 시 면 星州始面

경상도 성주 지역이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세종 4년(1422) | 외부 3단 | 162×36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5





이 자 종 내 자
李字終奈字

이(李)는 천자문의 59번째 글자, 내(奈)는 60번째 글자로, 한양도성의 59번째 구간이 끝나고 60번째 구간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태조 5년(1396) | 외부 2단 | 117×38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5





칭 자 종 야 자
称字綜夜字

칭(称)은 천자문의 54번째 글자, 야(夜)는 55번째 글자로, 한양도성의 54번째 구간이 끝나고 55번째 구간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태조 5년(1396) | 외부 1단 | 143×52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5





내 자 육 백 척
奈子六百尺

내(奈)는 천자문의 60번째 글자로, 한양도성의 60번째 구간이라는 뜻이다.

태조 5년(1396)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산1-2



중구의 한양도성 각자성석 일람표

판독원문	연번 (고유번호)	추정시기 / 위치 / 크기	주소
검자육백척 劍字六百尺	189 (0939481)	태조 5년(1396) / 외부 6단 / 1162×38c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9-9
언양시 彦陽始	188 (0938877)	세종 4년(1422) / 외부 7단 / 150×58c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9-9
출 ○ ○ [出]	191 (0939441)	외부 1단 / 140×65c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9-11
경인 삼월 금시 庚寅 三月 禁始	190 (0939196)	숙종 36년(1710.3) / 외부 1단 / 67×44c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9-12
감관김수함 군김영득 석수김성복 監官金壽涵 軍金英得 石手金成福 신미팔월일 辛未八月日	131 (0712924)	순조 11년(1811.8) / 내부 여장 원충안(우) 및 / 81×38cm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105-30
치소감관김덕형 서원이진엽 고직김광복 治所監官金德亨 書員李珥燁 庫直金光福	132 (0713114)	순조 연간 / 내부 여장 원충안(좌) 밑 / 84×37cm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105-30
태천하 말 泰川下[末]	220 (1217299)	세종 4년(1422) / 외부 4단 / 42×33cm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17-1
이남태천 以南泰川	221 (1217569)	세종 4년(1422) / 외부 4단 / 46×32cm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17-1
구성이남 상말 古城以南 上末	222 (1217665)	세종 4년(1422) / 외부 4단 / 96×30cm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17-1
통 하말 通○下末	223 (1218727)	세종 4년(1422) / 외부 3단 / 70×33cm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17-1
강희사십오 병술삼월일 康熙四十五 丙戌三月日 훈국 패장전수선 석수오유선 訓局 牌將全守善 石手鳴有善	225 (121161)	숙종 32년(1706.3) / 외부 3단 / 86×52cm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17-1
대리문동 大里門洞	219 (1216696)	외부 1단 / 73×52cm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17-1
산 山○	224 (1219645)	외부 4단 / 83×30cm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17-1
강희사십사년구월 康熙四十四年九月 ○○○○	133 (0717362)	숙종 31년(1705.9) / 외부 1단 / 48×39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0-1
일패장 김태호 一牌將 金泰虎	134 (0717664)	숙종 31년(1705.9) / 외부 3단 / 42×38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0-1
수○○○○김 ○ ○ 手○○○○金 ○ ○	135 (0717700)	숙종 31년(1705.9) / 외부 2단 / 36×38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0-1
이패장 출신 최 오석 二牌將 出身 [催]五碩	136 (0720754)	숙종 31년(1705.9) / 외부 2단 / 46×37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0-1

판독원문	연번 (고유번호)	추정시기 / 위치 / 크기	주소
순천시면 順天始面	137 (0760641)	세종 4년(1422) / 외부 2단 / 87×62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0-3
흥 해삼십육척 [興]海三十六尺	155 (0822723)	외부 4단 / 133×68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2
순흥시면 順興始面	156 (0822797)	세종 4년(1422) / 외부 2단 / 308×41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2
시면 ○○ 始面	157 (0823454)	세종 4년(1422) / 외부 3단 / 89×65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2
봉화시면 奉化始面	158 (0825300)	태조5년(1396) / 외부 2단 / 140×34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2
면 ○○○ 面	159 (0825315)	외부 3단 / 77×59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2
산석 생자 육백척 려 자시면 山石生字六百尺[麗]字始面	141 (0803301)	태조 5년(1396) / 외부 1단 / 159×105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여자소수음 麗字小受音	144 (0806380)	태조 / 외부 1단 / 92×30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해진시면 海珍始面	138 (0800177)	세종 4년(1422) / 외부 1단 / 85×68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해진시면 海珍始面	139 (0800262)	세종 4년(1422) / 외부 2단 / 112×54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함안 함안시면 咸安 咸安始面	140 (0801956)	세종 4년(1422) / 외부 2단 / 120×64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의령시면 宜寧始面	142 (0805821)	세종 4년(1422) / 외부 3단 / 77×59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시면 ○○ 始面	148 (0809452)	세종 4년(1422) / 외부 4단 / 108×42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경산시면 慶山始面	149 (0810951)	세종 4년(1422) / 외부 1단 / 101×58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영일시 영일시면 迎日始 迎日始面	151 (0817480)	세종 4년(1422) / 외부 3단 / 174×76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흥해시면 興海始面	153 (0805821)	세종 4년(1422) / 외부 2단 / 56×48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기천 基川	154 (0821378)	세종 4년(1422) / 외부 3단 / 82×57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웅오 五	147 (0809292)	숙종 35년(1709.10.5 이전) / 외부 2단 / 165×74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어말 末	145 (0806761)	숙종 / 외부 4단 / 110×58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훈 訓	146 (0806936)	숙종 36년(1710.9) / 외부 6단 / 97×49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판독원문	연번 (고유번호)	추정시기 / 위치 / 크기	주소
내목생내부생 來木生奈夫生	143 (0806371)	외부 1단 / 132×30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십삼수음시 十三受音始	150 (0806936)	태조 5년(1396) / 외부 3단 / 58×46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옹 ○○ [容]○○	152 (0817960)	외부 5단 / 133×31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5
수자육백척 옥자시면 水字六百尺 玉字始面	165 (0840787)	태조 5년(1396) / 외부 3단 / 148×47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6
하양시면 河陽始面	160 (0831971)	세종 4년(1422) / 외부 2단 / 75×51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6
기장 기장시면 己長 機張始面	162 (0834275)	세종 4년(1422) / 외부 5단, 4단 / 65×56, 85×41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6
울산시면 蔚山始面	163 (0837033)	세종 4년(1422) / 외부 3단 / 71×42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6
울산종 蔚山終	166 (0843111)	세종 4년(1422) / 외부 3단 / 84×42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6
예천시면 醴泉始面	167 (0843664)	세종 4년(1422) / 외부 2단 / 113×37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6
판독불가	161 (0832895)	세종 4년(1422) 추정 / 외부 2단 / 94×80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6
말 ○○○○[末]	164 (0838212)	세종 4년(1422) 추정 / 외부 4단 / 143×27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6
척 [尺]	169 (0844594)	외부 2단 / 69×50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6
불능	170 (0799266)	외부 1단 / 74×59cm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6
십사수음 옹 궁 시면 十四受音[龍][宮]始面	175 (0855331)	태조 5년(1396) / 외부 2단 / 130×53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4-58
영 천 [永][川]	173 (0850902)	세종 4년(1422) / 외부 2단 / 82×38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4-58
시 ○○○ [始]	174 (0851404)	세종 4년(1422) 추정 / 외부 3단 / 96×35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4-58
일 목 십○○ [一][木] ○+○○	172 (0849300)	태조 5년(1396) 추정 / 외부 4단 / 68×35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4-58
서원 선 생신 광 書員[先]生辛[光] 일 [一]○○	171 (0849290)	외부 2단 / 48×33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4-58
기 곤자육백척 [己]○崧字六百尺	184 (0897275)	태조 5년(1396) / 외부3단 / 106×43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5
칭자종야자 稱字綜夜字	208 (1025608)	태조 5년(1396) / 외부 1단 / 143×52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5

판독원문	연번 (고유번호)	추정시기 / 위치 / 크기	주소
이자종내자 李字終奈字	217 (1119870)	태조 5년(1396) / 외부 2단 / 117×38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5
성주시면 星州始面	182 (0892582)	세종 4년(1422) / 외부 3단 / 162×36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5
선산시면 善山始面	183 (0896515)	세종 4년(1422) / 외부 3단 / 172×58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5
시면 ○○ 始面	178 (0867078)	세종 4년(1422) / 외부 4단 / 116×42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13
안 음 시면 安[陰]始面	176 (0862902)	세종 4년(1422) / 외부 2단 / 140×43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산5-13
거창시면 居昌始面	177 (0865270)	세종 4년(1422) / 외부 4단 / 143×44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13
자 [字]○○○	179 (0869276)	외부 3단 / 118×32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13
훈 訓	181 (0886573)	숙종 36년(1710.9) / 외부 2단 / 61×41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17
출자육백척 곤자시면 出字六百尺 崑字始面	180 (0878584)	태조 5년(1396) / 외부 3단 / 180×36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37
군위시 軍威始	189 (0948209)	세종 4년(1422) / 외부 2단 / 167×57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청보 靑寶	193 (0948833)	세종 4년(1422) / 외부 4단 / 132×89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도청감관 조정원 오택 윤상후 都廳監官 趙廷元 鳴澤 尹尙厚 변수안이토리 기축팔월일 邊首安二土里 己丑八月日	201 (0969245)	숙종 35년(1709.8) / 외부 2단 / 125×57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거자종궐 백척 巨字終闕○百尺	202 (0971606)	태조 5년(1396) / 외부 3단 / 90×50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청보시 靑寶始	194 (095460)	세종 4년(1422) / 외부 3단 / 153×51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영덕 盈德	196 (0950116)	세종 4년(1422) / 외부 1단 / 112×47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제삼소수음 사정우 第三小受音 使鄭祐	200 (0965523)	태조 5년(1396) / 외부 1단 / 145×60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제오수음 판관 진원길 第五受音 判官 陳原吉	203 (0974726)	태조 5년(1396) / 외부 5단 / 143×35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제육수음판관장자 전 第六受音判官張子[璵]	204 (0979424)	태조 5년(1396) / 외부 3단 / 59×52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제칠소수음 第七小受音 제칠수음 판관신용도 第七受音 判官辛用道	205 (0984804)	태조 5년(1396) / 외부 3단 / 149×97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판독원문	연번 (고유번호)	추정시기 / 위치 / 크기	주소
순치십사년팔월일 감역권덕휘 서원 한 順治十四年八月日 監役權德徽 書員[韓] 충신 석수 기 효 개 忠信 石手[奇]孝[盖]	198 (0961291)	효종 8년(1657.8) / 외부 4단 / 111×43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금도청 감관이수지 오수준 禁都廳 監官李秀枝 鳴首俊 석수변수안이토리 경인삼월일 石手邊首安二土里 庚寅三月日	197 (0958864)	숙종 36년(1710.3) / 외부 각 1단 / 45×41, 56×34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금 이소오백칠십보 二所五百七十步	199 (0963436)	숙종 37년(1711.10.29) / 외부 2단, 외부 3단 / 92×40, 145×57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록 [錄]○	195 (0949260)	외부 2단 / 130×127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성주 성주 星州 星州	186 (09039414)	세종 4년(1422) / 외부 1단 / 63×52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59
경주시 慶州始	187 (0904812)	세종 4년(1422) / 외부 6단 / 90×40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59
강자육백척 崗字六百尺	185 (0897347)	태조 5년(1396) / 외부 5단 / 113×48cm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89
판독불가	226 (1364123)	외부 2단 / 84×45cm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10
내자육백척 奈字六百尺	218 (1138497)	태조 5년(1396)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산1-2
순천 順天	130 (0663905)	세종 / 기저부(발굴조사 후 복토) / 80×30cm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2-1
야자종 夜字終	215 (1042567)	태조 / 외부 6단 / 41×18cm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칭자 척하말 稱字○○○○尺下末	206 (1024153)	태조 5년(1396) / 외부 3단 / 101×72cm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칭자 백척 稱字○百尺 야자 백척 夜字○百尺 말○ 末 감 監○○○○○○	207 (1024283)	태조 5년(1396) / 외부 4단 / 120×34cm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판독원문	연번 (고유번호)	추정시기 / 위치 / 크기	주소
아광수음상 夜光受音上 말일천이백척 末一千二百尺 판사강 判事姜○○ 부판사조 副判事曹○○ 감역부사 監役副事 박 익일 朴○益一 백오십척 百五十尺 홍무인구병자 洪武廿九丙子 월일○ 月日○	212 (130611)	태조 5년 / 외부 2단 / 122×51cm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감역판관최유원 일백오십척 監役判官崔有遠 一百五十尺	216 (1046001)	태조 5년(1396) / 외부 1단 / 104×60cm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수어 禦	211 (1030536)	숙종 / 외부 3단 / 124×45cm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감역 일백오 監役○○○○○一百五○○	214 (1040561)	외부 1단 / 63×38cm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부○○ 副○○	209 (1029869)	외부 1단 / 88×43cm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야 夜	211 (1030550)	태조 / 외부 1단 / 74×33cm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감역판관 김 덕 監役判官 金[德]○ 일백오십척 一百五十尺	213 (1035660)	외부 1단 / 103×55cm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4



중구의 한양도성 문화자원

제3장



1. 서울의 대문 숭례문(崇禮門)

한국 건축사에 길이 남을 목조건축물

광화문 정면에 자리한 숭례문은 한양도성의 대문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 500년 문화를 상징하듯 사대문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서울의 목조건축물 중 가장 오래되었다.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는데, 그만큼 한국 건축사에 중요한 건축물이다.

숭례문은 조선시대 초기의 목조건축 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2층으로 이루어진 문루 또한 웅장하고 화려하다. 숭례문은 처음에는 누각이 없이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만 있었는데, 문루를 갖춘 것은 1398년(태조 7)이었다. 그러니까 숭례문은 1396년(태조 5) 한양도성을 쌓을 때 짓기 시작하여 2년 만에 완성한 것인데, 문루는 건축기술이 능숙한 승군(僧軍)을 동원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숭례문은 1448년(세종 30)에 대대적인 개축을 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세종이 숭례문을 헐고 새롭게 지은 것이다.

숭례문을 새로 지은 것은 지대가 낮았기 때문이다. 숭례문은 처음 지을 때 땅을 파서 만들었다. 그래서 낮고 평평한 지대에 있다



국보 제1호 송례문

보니 높이 보이지 않았다. 세종은 이를 보고 땅을 높게 돋우어서 송례문을 다시 세웠다. 땅을 판 지대에 흙을 메우고 높인 다음 그 위에 산맥과 연(連)하게 송례문을 세운 것이다. 이 공사는 1447년(세종 29) 8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하였다.

이후 송례문은 1479년(성종 10)에 대대적인 중수를 하였다. 이는 송례문이 기울었기 때문이다. 세종 대에 높이 다진 지대가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약화되어 송례문이 기울었는데, 이를 보완하여 중수를 한 것이다. 이때 송례문도 홍인지문처럼 옹성을 쌓아야 한

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송례문이 도성 안쪽으로 활처럼 휘어 들어온 곳에 자리하고 있어 웅성은 쌓지 않았다.

불로써 불을 다스린 송례문 현판

송례문은 이름 그대로 ‘예를 숭상하는 문’이다. 그런데 팔대문 중 유일하게 현판을 세로로 썼다. 이는 한양도성을 불(火)로부터 지킨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태조가 한양 천도를 결정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경복궁을 짓는 일이었다. 그런데 경복궁을 지을 때 불이 자주 났다. 그래서 불을 막기 위해 풍수지리설로 풀어보니 북방은 수(水)로서 물을 상징하고, 중앙은 목(木)으로 나무를 상징하고, 남방은 화(火)로서 불을 상징하였다. 이는 곧 남쪽 불을 막아야 경복궁에 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한강 남쪽의 화산(火山)인 관악산으로부터 오는 불기운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관악산은 그 모습이 불꽃이 타 오르는 형상이라 예부터 불의 산(火山) 또는 화형산(火形山)이라 했다.

송례문의 현판을 세로로 쓴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음양오행상 송례문의 ‘송(崇)’은 목(木)이며 ‘예(禮)’는 화(火)에 속한다. 그래서 나무(崇)에 불(禮)이 떨어지면 나무가 타버리는데, 현판의 글씨를 세워서 쓰면 마치 타오르는 불꽃 형상이 되어 송례문에서 불이 다 타버리고 경복궁까지 미치지 못한다 하여 현판을 세로로 쓴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판(懸板)은 글씨나 그림을 새겨 건물이나 문 위에 거는 것을 말한다. 현판은 가정집 문패처럼 명칭을 알려주는 편액(扁額)이 있고, 기둥에 붙이는 주련(柱聯)이 있다. 또 주련이 쌍을



관악산의 불기운을 막기 위해 숭례문 현판을 세로로 써서 걸었듯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도 광화문 앞에 물을 상징하는 해태 상을 만들어 관악산을 바라보게 하여 불기운을 막았다.

이루면 대련(對聯)이라 한다. 현판을 내거는 편액 문화는 동아시아 건축의 특징이기도 한데, 현판의 글귀를 보면 건물의 의미와 목적, 용도 등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판은 거의 다 가로로 쓰고 걸었는데 숭례문처럼 세로로 써서 건 현판은 고종의 서재였던 경복궁 집옥재(集玉齋) 등 단 몇 곳에서만 볼 수 있다.

이처럼 숭례문은 불로써 불을 다스렸는데, 숭례문을 지을 때 화기를 누르는 방편으로 연지(蓮池)라는 연못을 만들기도 하였다. 숭례문 밖 오른쪽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 연못은 성종 대에 한명회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 부분(1629년)

송례문 앞 남지(南池)에서 연꽃을 감상하고 있는 관료들을 그린 그림으로, 아래쪽에 송례문이 보인다.



현재의 송례문 인근에 설치해놓은 남지터표석



가 세종 이래 큰불이 자주 나자 당시엔 메워지고 없었던 연지를 다시 파 화기를 잡자고 하였다 전한다. 또한 광화문 앞에는 지금도 물을 상징하는 해태 상이 서울을 수호하듯 듬직하게 서 있는데, 이 역시 화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홍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할 때 관악산의 불기운을 막기 위해 해태 상을 만들어 관악산을 바라보도록 하였다.

배다리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진 현판

송례문 현판 글씨는 추사 김정희도 감탄할 정도로 매우 힘 있는 필체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를 누가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처음에는 정도전이 쓴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대체로 세종의 만형인 양녕대군이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수광의 <지봉유설> 등 많은 책들이 양녕대군이 썼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사 김정희의 <완당선생전집>에는 신장이 썼다고 기록되어 있고, 중종 대의 공조판서 유진동이 썼다는 주장도 있다.



송례문 현판

추사 김정희도 감탄할 정도로 매우 힘 있는 필체로 유명하다.

이처럼 여러 설이 분분한 송례문 현판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그 하나는, 임진왜란 때 송례문 현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현판 글씨를 써서 달았는데 현판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 뒤로도 현판을 만들어 달았지만 계속해서 떨어져버렸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는데, 아마도 양녕대군이 쓴 진짜 현판이 아니어서 그랬을 것이다.

또 하나는 조선의 수도 한성부의 역사와 모습을 기록한 <한경지략(漢京識略)>에서 전한다. 광해군 때 청파동의 배다리(舟橋) 밑 한 웅덩이에서 한밤중에 서광이 비쳤다. 이를 본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웅덩이를 파보았다. 그랬더니 양녕대군이 쓴 송례문 현판이 나왔고, 이를 다시 송례문에 걸었다는 것이다. 이 현판이 현대까지 전해진 그 현판이라고 한다.

현판이 사라진 이야기와 다시 찾은 이야기는 서로 이어진다. 비록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만큼 송례문이 한양도성을 상징하는 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일제도 허물지 못한 500년 역사



1907년 일본의 군대 해산에 맞서
송례문과 광희문 일대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인 뒤 체포된 대한제국의
군인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송례문은 구한말 대한제국의 군대가 일본에 맞서 결사항전한 역사적인 곳이다. 1907년 8월 1일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날 대대장 박성환은 군대 해산 명령에 굴복할 수 없다며 권총으로 자결하여 죽음을 택했다. 그러자 장병들이 분연히 일어나 무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일본군과 시가전을 벌였다. 장병들이 일본에 맞서 싸운 곳이 바로 송례문과 광희문 일대였다. 그러나 장병들은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맞서 싸웠지만 200여 명이 사상당하고 500여 명이 체포되는 등 패하고 말았고, 결국 군대는 강제로 해산되었다. 조선왕조 500년의 상징인 송례문을 의지하여 일본군과 최후의 일전을 벌인 대한제국의 군인들은 송례문과 함께 역사에 살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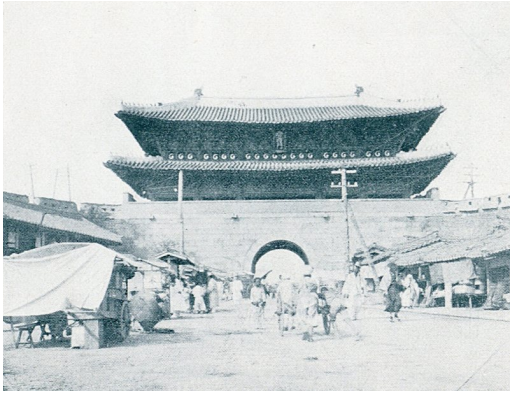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고 한양도성을 노골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다. 송례문도 이를 피할 수는 없었다.

1905년 6월 일본은 송례문 양쪽의 성벽을 헐고 도로를 내려고 했다. 고종은 이를 거부하였는데,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벌이



송례문 문루에서 바라본 남대문로
일대(1910년).

(출처-서울역사박물관)



◀ 송례문 앞 풍경(1910년). 홍예문으로 전차길이 이어져 있지만 이때까지는 성벽이 헐리지 않았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로 고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송례문 성벽을 헐어버렸다. 또한 그 이듬해에는 송례문까지 허물려고 하였다.

1908년 대한제국에 통감(統監)으로 와 있던 이토 히로부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일본 왕자를 초청하였다. 이때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왕자가 송례문을 통과할 수는 없다며 대포로 송례문을 허물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민족의 반대에 부딪쳐 실행하지 못하였고, 대신에 송례문 서쪽 성벽을 헐고 도로를 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남산 쪽으로 이어진 성벽도 헐어버렸다.

▶ 좌우 성벽이 헐린 송례문(1913). 전차 선로가 놓여 있고, 홍예문으로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그러나 송례문은 비록 성벽이 헐렸어도 그대로 보존되어 현대까지 이어 왔다. 한양도성의 상징적 건축물로 600년을 이어오며 서울의 역사가 되었다.

서울의 역사로 다시 선 송례문

일제의 횡철에도 한양도성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자리를 지켜온 송례문은 2013년 서울의 역사로 다시 섰다.

2008년 2월 10일 송례문은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이 저지른 방화로 불에 타고 말았다. 송례문 방화사건은 우리 국민에

2008년 방화로 소실되기 전의
송례문



방화로 소실된 송례문 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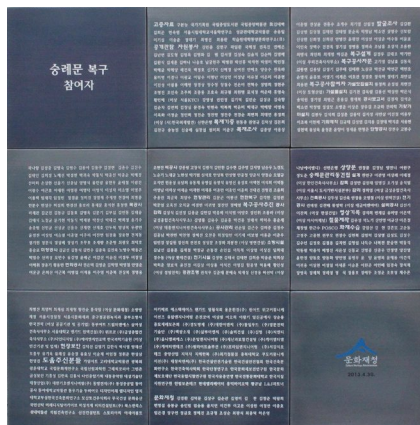
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거침없이 타오르는 불길에 무너져 내리는 송례문을 보면서 국민도 울고 산천도 통곡했다. 이 사건으로 송례문은 2층 문루 거의가 소실되었고, 1층 문루도 일부 불에 타고 말았다. 그나마 송례문이 모두 타지 않았고, 화마에서 현판을 구한 것은 다행이었다.

불에 타 무너진 송례문은 2008년 5월부터 복구 작업에 들어갔

다. 우선 고증과 발굴조사를 통해 복구를 위한 설계를 하였고, 이어 2009년 말에는 대목장과 석장, 단청장 등 중요무형문화재 장인들을 선정하여 ‘승례문복구단’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복구 작업은 5년여에 걸쳐 하였다. 승례문 복구는, 성문은 이전 모습으로 복원하고,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는 부재는 최대한 다시 사용하며, 일제가 허문 좌우측 성곽과 지반을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원칙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철저한 고증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과 기술자들이 참여하여 전통기법으로 복구하였다.

이렇게 복구한 승례문은 2013년 5월 서울의 역사로 다시 섰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전하고 있다.



승례문 복구 참여자 명단. 승례문 관 리사무소 벽면에 부착해 놓았다.

2013년 복구한 송례문 상공에서 바라본 야경





2. 빛나는 광명의 문 광희문(光熙門)

한양도성의 물이 밖으로 흘러나갔던 ‘수구문’

중구의 한양도성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흥인지문에서 광희문까지, 숭례문에서 소의문(서소문)까지, 숭례문에서 남산 방향까지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다. 남은 성벽도 여장과 석축이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이런 가운데 1975년부터 서울의 성곽을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되었고, 광희문도 이때 복원되었다. 그러나 문루는 목조가 아닌 콘크리트로 복원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광희문은 또 다른 이름으로 수구문(水口門)이라 부른다. 수구문이란 별칭은 한양도성을 처음 쌓을 때부터 있었다. 1396년(태조 5) 9월 24일 태조는 한양도성을 다 쌓은 뒤 각 문의 이름을 정하였는데, 사대문과 사소문의 이름을 방향에 따라 정하면서 동남(東南)은 광희문으로 하여 속칭 수구문이라 하였다.

광희문을 수구문이라 한 것은 이름 그대로 도성의 물이 나가는 문이었기 때문이다. 광희문 일대는 지대가 낮아서 남산의 계곡물이 이곳으로 흘러나갔는데, 광희문 북쪽에 치성 6개를 쌓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지대가 낮은 곳의 성곽을 보완하여 수비를 더욱 튼튼히 하려고 치성을 쌓았던 것이다. 또한 지대가 낮아서 이간수문



광희문

을 지어 도성의 물을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였다.

정약용의 <다산시문집> 1권에는 ‘동성의 노래(東城吟)’가 수록되어 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國城有尾閭	도성의 모든 하수 모여드는 곳
光熙小石竇	조그만 바위 구멍 광희문일레
溝瀆如縢絡	사람의 혈맥 같은 수많은 개천
日夜此中漏	밤낮으로 이곳을 새어나가고

이 시에서 광희문은 도성의 모든 하수가 모여드는 곳이라 하였다. 사람의 혈맥 같은 수많은 개천의 물이 광희문을 통해 나간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광희문을 왜 수구문이라 불렀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아울러 도성의 하수가 빠져 나가는 문이었으니 그 기능이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시구문’

광희문은 수구문 말고도 ‘시구문(屍口門)’이라고도 불렀다. 시체가 나가는 문이었기 때문이다. 광희문은 ‘빛 光’ 자에 ‘빛날 熙’ 자를 써서 이름 그대로 ‘빛나는 광명(光明)의 문’이다. 이처럼 빛나는 광희문이 시구문으로 불린 까닭은 소의문과 더불어 상여가 나가는 ‘저승문’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상여는 사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창의문과 혜화문으로도 나갈 수 없었다. 이는 금령(禁令)이었다. 그래서 상여나 시신은 소의문과 광희문으로만 나갈 수 있었다.

조선 후기 문신 박세당의 문집 <서계집(西溪集)>에는 광희문이 어찌하여 시구문이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다.

“수구문 밖에 다리가 있고, 곁에 ‘영도교(永渡橋)’라는 작은 빗돌이 있다. 대개 동망산(東邙山)과 서망산(西邙山) 두 산이 있는데, 동망산은 성도(盛都)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동망산으로 가는 상여는 모두 수구문을 경유하여 이 다리를 지나서 가므로,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영도교는 이름 그대로 ‘영원히 건너는 다리’, 즉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는 다리다. 이 다리는 지금의 중구 황학동과 종로구 송인동 사이 청계천에 있었는데, 왕십리와 뚝섬, 광나루로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영도교는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이 영월로 귀양을 갈 때 부인 정순왕후가 이곳까지 나와서 눈물로 이별을 하였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영이별다리’, ‘영영 건넌다리’라고 하여 영도교라 하였다고 전해온다.

광희문을 통해 나가는 시신은 신당동, 왕십리, 금호동 방면에 묘지를 잡았다. 수구문 밖 신당동 일대에는 공동묘지가 있었고, 신당(神堂)을 중심으로 무당촌을 이루고 있었다. 신당동 지역을 흐르는 신당천(新堂川)을 중심으로 무당들이 많이 살았는데, 신당천은 응봉(鷹峰)에서 흘러 내려와 청계천에 합류하는 지천이었다.

신당천의 원래 이름은 동활인서천(東活人署川)이었다. 조선 후기 신당동에 동활인서가 자리하여 그렇게 불렸다. 신당천이라는 이름으로는 1950년대부터 불렀는데, 이 지천변의 약수동에는 위장병에 효능이 좋은 약수가 있어 약수천(藥水川)이라고도 불렸다. 신당천은 응봉에서 시작해 다산로를 따라 흘러 신당동 떡볶이 골목, 무학동을 지나 광희초등학교 앞, 성동공업고등학교 서쪽을 거쳐 영도교에 못 미쳐 청계천으로 흘러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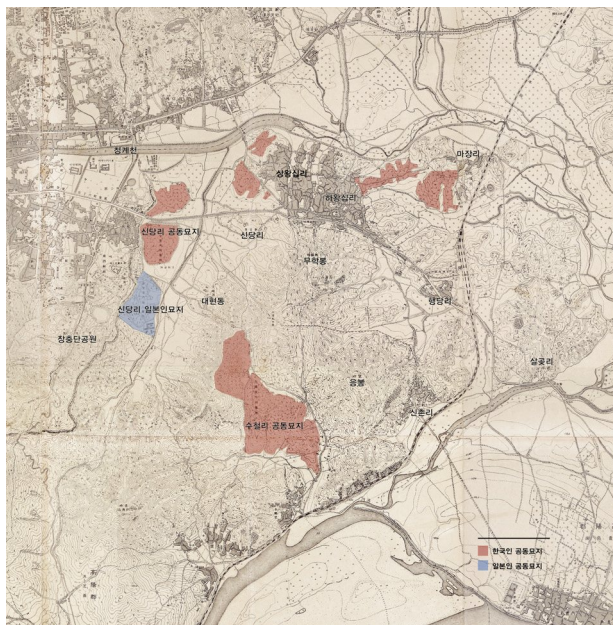
또한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광희동 1가와 광희동 2가를 연결하는 다리를 ‘무당다리’라 불렀다. 이 일대에 무당들이 많이 살아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신당동은 원래 ‘神堂洞’이었는데, 갑오개혁 때 지금의 표기인 ‘新堂洞’으로 바뀌었다. 신당동은 1920년까지만 해도 공동묘지가 있었고, 일본인 전용 화장터인 신당리 화장장이 있었다.

광희문은 돌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내다놓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광해군일기를 보면 ‘돌림병으로 죽은 시체들이 수구문 밖에 서로 겹칠 정도로



광희문 밖 신당리 공동묘지(1915년). 위쪽에 보이는 성벽은 광희문으로 추정된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광희문과 동대문 밖 일대의 공동묘지 분포도(1922년). 붉은 색은 한국인 공동묘지, 푸른 색은 일본인 공동묘지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무녀와 무당들(1930년). 광희문 밖 일대에는 무당들이 많이 살았다. 신당동의 행정명은 여기서 유래했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속종실록에는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가 들판에 내버려져 있는데 수구문 밖에는 유해와 후골(朽骨)이 수레바퀴와 말발굽 사이에 아직도 내버려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광희문 밖은 시신을 내다놓는 곳이었다. 그래서 한때는 광희문 성돌의 돌가루가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다. 이는 광희문 성돌이 죽은 사람들의 병으로 단련되어 그 돌가루가 영험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인데, 지방의 백성들은 한양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광희문 돌가루를 굵어오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세종 대부터 형성된 광희문 밖 민가

광희문 밖은 처음에는 민가가 별로 없었다. 시신을 내보내는 문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광희문 밖에 민가를 형성하였다는 기록은 세종 대부터 보인다. 1424년(세종 6) 4월 18일 세종실록을 보면, 한성부에서 광희문 밖에 새로운 집터로 만들자고 청한다.

한성부에서 계하기를,

“도성 안에 사람은 많고 땅은 비좁아서 대체로 집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만 사람이 일찍이 받은 땅을 혹 빈 터라 하며 혹 집 짓고 남은 땅이라 하여, 백단(百端)으로 다투어서 송사가 끊어지는 날이 없습니다. 동대문 쪽 수구문 바깥에 있는 집 짓기에 적당한 곳을 남대문 바깥 반석방(盤石坊), 반송방(盤松坊)의 예(例)에 의거하여, 본부(本府)에서 호조와 함께 살펴, 한계와 동리 이름을 정해서 집 없는 사람에게 떼어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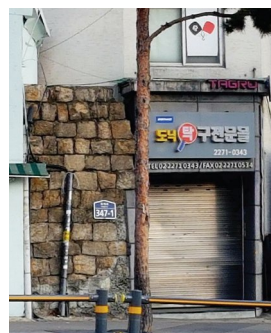


광희문 밖 민가는 세종 대부터 형성되었다. 1438년(세종 20) 1월에는 광희문 밖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현재는 광희문을 복원한 뒤 주변을 녹지화하였다.

이를 보면 도성 안의 인구는 점점 느는 데 비해 백성들이 살 집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광희문 밖에 민가를 이루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서 백성들에게 집터를 나누어주자는 청을 한 것인데, 세종은 이를 받아들여 그 해 11월 동대문과 광희문 밖의 땅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어 살도록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민가는 안정적으로 이루어가며 정착한 듯하다. 이는 1425년(세종 7) 1월 15일 광희문에 방호소(防護所)를 설치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방호소는 적이 침입할 수 있는 군사요충지에 설치하여 방호 임무를 수행하던 경계 감시소인데, 세종은 광희문 동원(洞源)에 1개소 등 모두 13개소의 방호소를 도성에 설치하였다. 또한 1438년(세종 20) 1월에는 광희문 밖에 소나무를 심도록 하였는데, 이 소나무는 노원역(盧原驛)까지 심었다고 한다.

그러나 명종 대에는 광희문 밖 일대에 도둑들이 들끓기도 하였다. 그래서 1554년(명종 9) 명종실록에는 남소문이 막혀 있어 도적들이 광희문 밖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성벽을 넘어 도둑질을 하여 인마(人馬)가 통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남



광희문 성벽은 현대에 들어 도시화를 거치면서 일부 건물이나 주택에 축대로 사용되었다. 지금도 광희문 인근에 가면 이를 볼 수 있는데, 사진은 광희문 도로 건너편의 건물 축대로 사용된 성벽 모습이다.

소문을 열어 도성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광희문 밖에 도둑들이 들끓었던 것은 응봉과 매봉 등 깊은 산으로 이어진 곳이고 광희문이 시신을 내보내는 문이었기에 다른 문보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도성의 병자와 빈민을 구제한 ‘동활인서’

조선 후기 광희문 밖에는 동활인서(東活人署)가 자리하고 있었다. 활인서는 가난한 병자와 전염병 환자를 치료했던 의료기관이다. 도성의 동쪽과 서쪽 두 곳에 설치하였는데, 동활인서는 처음에 동부(東部) 연희방(燕喜坊, 지금의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다가 조선 후기에 광희문 밖 신당동으로 옮겼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을 두고서 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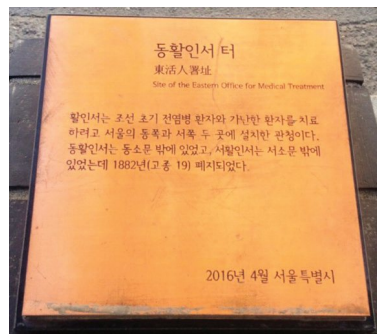


1861년에 제작된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의 동활인서 위치. 동활인서는 지금의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다가 조선 후기에 광희문 밖 신당동으로 옮겼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의 병자들과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여 치료하고 옷과 음식을 나누어주었다. 이후 동서대비원은 1414년(태종 14) 동서활인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466년(세조 12)에는 동활인원과 서활인원을 통합하여 활인서(活人署)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1882년(고종 19) 폐지될 때까지 병자들과 빈민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하였다.

활인서는 공공 의료기관이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휼 기관이었다. 찜질과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전염병이 돌 때는 무당으로 하여금 역귀(疫鬼)를 퇴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호사업을 병행하며 병이 들어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일도 하였는데, 시체 매장을 담당하는 오작인(仵作人)과 환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무당도 두었다.



한성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동활인서 터 표석

이괄이 도주한 광희문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

광희문은 왜국(倭國) 사신이 드나들던 문이었다. 서울을 왕래하는 외국 사신들은 팔대문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했다. 조정에서 지정한 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었다. 조선의 정문인 숭례문은 중국 사신만 드나들 수 있었고, 왜국 사신은 두무개(豆毛浦, 지금의 옥수동) 나루로 한강을 건너 광희문을 통해 도성으로 들 수 있었다. 또 여진(女眞) 사신은 혜화문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왔다.

이처럼 왜국 사신이 드나들던 문이어서 그랬을까, 광희문은 통한의 문이기도 하였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광희문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했기 때문이다. 병자호란은 청나라에 무릎을 꿇은 굴욕의 역사였다.

1636년 12월 청나라 태종은 2만여 명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왔다. 명분은 조선이 정묘호란(1627) 때 약조한 형제지

도성 안쪽에서 바라본 광희문. 1624년(인조 2) 이괄은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광희문을 통해 도망을 갔고, 정묘호란 때 인조는 광희문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했다.



맹(兄弟之盟)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조선을 굴복시키는 것이었다. 조선은 오랑캐와의 형제지맹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청나라가 군신지의(君臣之義)까지 강요하자 화친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청나라 태종이 군사를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온 것이다.

청나라는 조선을 침략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한양 근교에 이르렀다. 그러자 인조는 강화로 몸을 피하기로 하였고, 숭례문까지 나왔지만 이미 청군이 이르렀다는 보고에 늦은 밤 광희문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청군의 포위 속에 흑한과 싸우며 버티다가 결국 이듬해 1월 30일 삼전도(三田渡)에서 항복하고 말았다. 이때 인조는 아홉 개의 계단 위 높은 단상에 앉아 있는 청나라 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하는 항복 의식을 행하였는데, 이를 두고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한다.

또한 1624년(인조 2)에는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광희문을 통해 도망을 갔다. 인조는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공신들 간의 알력이 심했는데, 이괄은 아들이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무고를 당하자 반란을 일으켰다. 1만 2,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양을 점령한 이괄은 선조의 아들 홍안군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며 반란에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파주 길마재에서 크게 패하여 반란은 실패했고, 야밤을 타 광희문을 통해 도주하다가 그의 수하들에게 참살되고 말았다.

그러고 보면 인조는 반란군의 수장이 야밤에 도주한 광희문을 통해 도읍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으니 광희문과 인연이 많다.

광희문에는 치욕의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이 전해온다.

구한말 미국의 선교사 스크랜튼은 광희문 밖에서 병에 걸려 신음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와 치료를 해주었다. 네 살 난 어린 딸 별단이와 광희문 밖에서 구걸을 하며 살던 여인이었다. 치료를 받은 여인은 3주 만에 회복을 하였다. 그 뒤 여인은 패티(Patie)라는 세례명을 얻고 10여 년간 스크랜튼의 가정부로 일했는데, 그의 딸 별단이는 이화학당을 졸업한 뒤 간호사가 되어 보구여관(保救女館)에서 일을 하였다. 보구여관은 오늘날 이화의료원의 전신이며, 미국의 선교사 스크랜튼은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의 설립자이다.



한국인 간호사(1910년)

(출처-서울역사박물관)

3. 광희문 치성

지세가 낮은 광희문 일대에 쌓은 치성

1702년(숙종 28) 8월 우의정 신완은 숙종에게 상소문과 함께 8조(條)의 책자(冊子)를 올린다. 정치의 근본을 세우며 제왕의 도리를 다하고, 나라의 인재를 얻고, 붕당(朋黨)의 폐해를 없애고,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며, 군제(軍制)와 신역(身役), 경계(經界)를 바르게 하고 도성을 수축하자는 것이었다.

도성 수축은 치성을 쌓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병자호란 때 도성을 지키지 못한 것을 언급하고는 우리의 산천이 지세가 가파르고 험하니 산세(山勢)를 따라 돌을 포개어 치성을 덧붙여 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숙종은 충분히 강구하여 처리하겠다고 답한다.

한양도성 수축은 숙종 대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치성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기록은 없지만 도성을 수축하면서 치성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조실록을 보면 알 수 있다.

1752년(영조 28) 11월 제조(提調) 박문수는 영조에게 치성에 대해 아뢴다.

“어제 어영대장이 치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흥인문부터 광희문까지는 지세가 낮아서 갑자기 도적이 밀어닥치면 수비하지 못할 것이니 치성을 더 높이 쌓는 것을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어영대장에게 그 일을 위임하여 더 쌓은 다음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영조는 생각이 같으니 단연코 그 일을 하겠다고 답한다.

이를 보면 치성은 숙종 대에 쌓았을 것이다. 박문수가 치성을 더 높이 쌓아야 한다는 것은 치성이 이미 있다는 말이며,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숙종 대에 도성 수축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치성을 쌓지 않았을 리 없다. 다만 치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숙종 대에는 없고 영조 대에 보일 뿐이다.

그러나 이후의 기록에는 치성은 영조 대에 쌓은 것으로 나온다. 영조실록을 보면 치성을 단순히 보완하여 쌓은 게 아니라 새로이 쌓는 논의를 하고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치성을 더 높이 쌓는 것을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고 한 박문수의 말을 곱씹어봐야 한다. 여기서 ‘결코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은 치성을 쌓는 논의만 계속하고 아직 쌓지 않았다는 뜻이며,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치성을 쌓아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영조실록을 살펴보면 좀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박문수의 의견을 들은 영조는 그 며칠 후인 12월 3일 대신들과 치성에 대해 논의한다.

어영대장 홍봉한이 아뢰기를,

“치성에 대한 그림을 보셨습니까? 광희문 북쪽부터 흥인문 남쪽



조선 후기의 문신 박문수. 영조에게 치성을 쌓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까지 치성 네 군데를 만들도록 정하였습니다.”

우의정 김상로가 말하기를,

“그 간격이 넓고 머니 의당 다섯 군데에 설치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다섯 군데에 치성을 만들기로 정하라.”

하였다.

이를 보면 치성은 새로 쌓은 것으로 보인다. 어영대장이 영조에 게 치성을 쌓을 그림, 즉 위치도나 설계도를 보았느냐고 묻고는 4개의 치성을 쌓기로 했다고 아뢴 것은 치성이 아직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개를 쌓으면 치성의 간격이 떨어져 안 되니 5개를 쌓아야 한다는 우의정의 말은 그때까지 치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미 쌓아놓은 치성이 있었다면 기존의 치성을 고려하여 새로 쌓을 위치와 간격을 정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해 논의를 하였을 것이다.

이 기록을 보면 치성을 어디에 쌓았는지도 알 수 있다. 바로 광희문 북쪽부터 홍인문 남쪽까지 치성을 쌓았다. 홍인문부터 광희문까지 지세가 낮아서 여기의 성곽을 보완하기 위해 쌓은 것이다.

치성을 쌓는 공사는 그 이듬해인 1753년(영조 29)에 하였다. 그리고 처음의 5개에서 하나 더 늘려 광희문 북쪽에 6개를 만들었다. 치성을 늘려 쌓은 것은 치성의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였는데, 이 역시 영조실록을 보면 알 수 있다. 1753년 2월 영조는 친히 홍인문에 행차하여 치성을 쌓을 곳을 둘러본다.

환궁할 때 홍인문에 들러 치성을 마땅히 증축해야 할 곳에 홍기(紅旗)를 세워놓으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한 개의 치장(雉牆) 사이는 130보(步)를 기준으로 하라.”

하고, 성 가까이에 있는 근전(芹田, 미나리밭)에 물을 가득 대놓는 것은 성지(城址)를 해치게 하니 근전을 다 메우라고 명하였다. 예조판서 홍봉한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동문(東門)에는 마땅히 몇 개의 치장을 만들어야 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광희문 이북은 여섯 개의 치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였다.

치장은 곧 치성의 담을 말한다. 영조는 이 담과 담 사이의 간격 기준을 130보로 명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6개의 치성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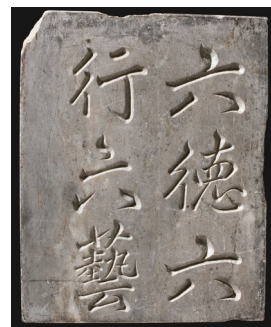
영조는 치성을 쌓는 공사를 각별하게 살폈다. 치성 공사는 영조가 홍인문을 둘러보고 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공사가 한창인 4월 9일에는 종묘의 하향제(夏享祭)를 거행하고 환궁하면서 홍인문에 들러 성을 돌아보고는 치성을 쌓는 역부들에게 술과 고기를 내렸고, 치성 축조를 마친 5월 24일에는 어영대장 홍봉한에게 숙마(熟馬)를 내려주었다.

이렇듯 치성은 영조 대에 광희문 북쪽에 6개를 만들었다.

동대문운동장 일대에서 발굴한 치성과 성곽

그러나 한양도성의 치성은 기록에는 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부지를 조사하면서 치성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유구를 발굴하였다.

한양도성의 참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은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하나는 한양도성의 옛 모습을 발굴



영조대왕 어필각석
(1744년).

영조가 백성을 가르치는 기본 원칙인 육덕(六德)과 육행(六行), 육예(六藝)를 쓴 것이다. 육덕은 지(知), 인(仁), 성(聖), 의(義), 충(忠), 화(和)이고, 육행은 효(孝), 우(友), 목(睦), 인(鄰), 임(任), 홀(恤)이다. 육예는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이다.

(출처-국립고궁박물관)

‘조선명소(朝鮮名所)’ 엽서에 실린
경성운동장
(출처-서울역사박물관)



경성운동장에서 육상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
(출처-서울역사박물관)



하는 것이었는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부지 발굴조사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부지 발굴조사는 2007년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면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경기대회장인 동대문운동장은 1925년 5월 기공하여 그 해 10월 준공되었다. 준공 당시 이름은 ‘경성운동장’이었고, 1945년 광복 후 ‘서울운동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84년 88서울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건설한 잠실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서 동대문운동장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동대문운동장은 잠실종합운동장이 세워지기 전까지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종합운동장이었다. 주경기장인 축구장을 비롯해 육상 경기장, 야구장, 수영장, 배구장, 연식정구장 등을 갖추고 있었고, 국제축구대회와 국제육상대회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적인 대회는 모두 동대문운동장에서 열었다.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을 세우면서 우리나라 대표 종합운동장의 지위를 넘겨주게 되었고, 이후 국제대회가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옮겨가면서 그 명맥만 유지하다가 2003년 육상경기장을 폐쇄하면서 더 이상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육상경기장 폐쇄와 함께 임시주차장과 품물시장으로 사용되다가 2007년 12월 18일 동대문야구장을 철거한 데 이어 2008년 5월 14일 주경기장인 축구장까지 완전히 철거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는 이 부지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만들었는데, 이 공원은 2009년 10월 27일 개장하였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개장하기 전까지 동대문운동장 일대에서는 한양도성 발굴조사가 있었다.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수행한 이 조사에서는 한양도성의 성곽 기저부와 치성의 유구를 발굴하는 수확을 올렸다. 발굴한 성곽 기저부는 123m로, 동대문에서 광희문까지 이어지는 구간이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동대문운동장을 지으면서 허물었던 구간인데, 발굴 당시 성벽은 최고 4.1m 높이였고, 바닥의 폭은 8~9m 규모였다.

성곽 기저부와 함께 발굴된 치성은 동대문과 광희문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있었다. 그러니까 영조실록에 전하는 기록과 일치하는 것이다. 치성의 규모는 남북 10.2m, 동서 8.3m였다. 동대문운동장 일대의 발굴조사를 통해 동대문에서 광희문까지 이어지는 성곽과 치성을 발굴한 것은 한양도성의 축성법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성과였다.



동대문운동장 일대에서 발굴한
성곽(위)과 치성 터(아래)
(출처-서울역사박물관)



4. 한양도성의 수문

80여 년 만에 세상에 나온 이간수문(二間水門)



이간수문 발굴 현장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한양의 물길은 9개였다. 그 중 하나가 이간수문을 통하는 남소문동천(南小門洞川)이다. 남소문동천은 이름 그대로 남소문을 지나 청계천과 합류하는 하천이다. 그래서 이간수문천(二間水門川)이라고도 불렀다.

남소문동천은 남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국립극장 동남쪽으로 흘러 장충단공원과 장충단길을 지나 광희동 네거리까지 내려온다. 여기서부터는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한 갈래는 국립의료원을 거쳐 청계천으로 흐르고, 한 갈래는 동대문운동장이 자리했던 이간수문을 통해 청계천으로 흘러들어간다. 남소문동천은 지금도 장충단공원에서 볼 수 있다. 다른 곳은 복개를 하여 볼 수가 없다.

이간수문은 오간수문 바로 남쪽에 있었다. 수문이 2칸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이간수문이다. 이간수문은 1926년 일제강점기에 경성운동장(동대문운동장)을 만들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간수문의 일부를 철거하고 나머지는 흙을 덮어 없애버린 것이다. 그러던

것이 2009년 동대문운동장을 헐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짓는 과정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발굴되었다. 일제가 땅 속에 묻은 지 80여 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세상에 나와 빛을 본 이간수문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사와 병행하여 복원해 놓았다. 발굴 당시 이간수문은 윗부분의 홍예(虹霓, 무지개 모양의 반원형 문) 돌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수문에 설치했던 목재도 남아 있었다.

수문은 도성 안에서 바깥으로 물을 빼내는 물길이다. 따라서 지대가 낮은 지형을 이용해 설치해야 한다. 치성 역시 지세가 낮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쌓았는데, 이간수문도 이러한 지세 때문에 설치한 것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한 이간수문은 길이 7.4m, 높이

이간수문



5.4m였다. 또한 물이 흘러나오는 도성 안에 건물지(建物址) 10곳과 집수시설 2곳, 우물 4곳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간수문에는 바닥이 파이지 않도록 ‘장군석’이 설치되어 있다. 물이 들어오는 쪽의 두 홍예 사이에는 물줄기를 두 갈래로 갈라서 양쪽 수문으로 흘러들게 하는 ‘물가름돌’도 있다. 보기에다 큼지막한 물가름돌은 홍수가 나면 이간수문의 홍예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한다.

임꺽정이 도주한 오간수문(五間水門)



오간수문.

이 수문을 통해 조선시대 의적 임꺽정이 관군을 피해 도망을 갔다고 전한다.

“임꺽정이 조그마한 도적으로 많은 죄를 짓고도 오래도록 법을 피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치욕만 당하고 쉽게 잡지 못하니, 이는 오로지 경외(京外)가 무비(武備)를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1561년(명종 16) 12월 18일 명종이 각 도에 무예를 단련하라며 내린 전교다. 임꺽정이 출몰하는 황해도는 물론이고 평안도와 함경도, 강원도, 경기도 등 각 도에 대장을 한 명씩 임명하고서 임꺽정을 책임지고 잡으라 하였는데도 번번이 놓치고만 있으니 이런 전교를 내린 것이다.

임꺽정이 나타났다는 제보에 그 즉시 군사 500여 명을 보냈는데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기록도 있다. 임꺽정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다는 기록도 있다. 그래서 명종은 임꺽정을 잡았다는 군사들을 사형에 처하고 이들의 수장인 의주 목사는 파직하는 등 엄히 다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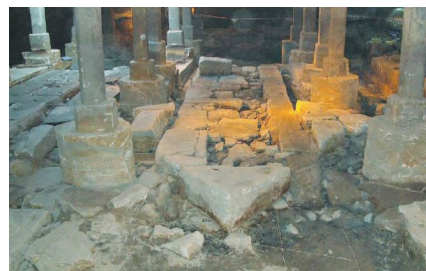
양주의 백정 임꺽정은 연이은 흉년에도 관리들의 수탈이 누그러들지 않자 무리를 이끌고 황해도 구월산 등지를 소굴로 삼아 의

적이 되었다.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의 관아와 한양의 부잣집을 털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한양은 물론 전국 5도를 다니면서 관군을 괴롭히며 민심을 흔들어 놓았고, 나라를 소란에 빠뜨렸다. 그러자 명종은 각 도에 임꺽정을 잡는 책임자를 임명하고 거짓 보고를 한 군사들은 사형에 처하면서까지 임꺽정을 잡아들이라고 독려했다. 결국 임꺽정은 붙잡히고 마는데, 관아와 부잣집을 터는 도적이 임꺽정이라고 정체가 밝혀진 지 3년 만에 잡힌 것이다. 그렇게 체포된 임꺽정은 15일 만에 죽음을 당하였다.

명종실록에 임꺽정은 ‘대적(大賊)’이라 쓰여 있다. ‘국가에 반역한 큰 도적’이라는 것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임꺽정을 홍길동, 장길산과 함께 조선의 3대 도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임꺽정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었다. 백성들은 임꺽정을 의적(義賊)이라 불렀고, 임꺽정이 나타나도 관아에 신고하지 않고 숨겨주었다. 그리고 임꺽정이 죽은 뒤에도 의적으로 떠받들며 무수한 이야기를 낳았다. 이러한 임꺽정을 벽초 홍명희는 대하장편소설로 재미있게 풀어냈고, 소설 <임꺽정>은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조선 초유의 대작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임꺽정이 오간수문을 통해 도주를 하였다 전한다.

“임꺽정이다!”

심야에 전옥서가 소란스러워졌다. 습격이었다. 횃불이 여기저기서 난무하고 함성이 들렸다. 그날 밤 임꺽정은 옥에 갇힌 가족을 구출해 청계천 쪽으로 도망갔다. 관군이 급히 뒤쫓았지만 그는 흥인지문 부근에서 종적을 감췄다. 주변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오간수문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이곳은 창살로 막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지만 힘이 장사인 임꺽정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오간수문 교각 발굴 현장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수문 뒤편 갯바치 마을에서 며칠 머물다 지금의 청계천 4가 쪽 배
오개로 도망갔다.

수문은 도둑이나 죄인들이 드나드는 통로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성문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 당연히 그러할 터인데, 임꺽정도 다
른 방도가 없어 수문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다.

오간수문은 동대문에서 을지로로 가는 성벽 아래 청계천 6가에
있었다. 수문이 5칸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오간수문이다.

오간수문은 태조 대에 도성을 쌓으면서 5척 높이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수문을 쇠창살로 막아놓았다.
1760년(영조 36)에는 청계천을 준설하면서 수문 앞에 쌓인 토사
를 걷어내고 복원하였는데, 청계천 준천공사를 그려놓은 수문상친
림관역도(水門上親臨觀役圖)를 보면 5개의 홍에 수문에 쇠창살을
막아놓은 것이 그대로 나온다. 또한 1900년대의 사진에도 물가름
돌이 견고하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의 오간수문은 재현해 놓은 것이다. 오간수문은 1908년 동

동대문 일대의 청계천 복개공사(1965년)

오간수문은 1950년대 말부터 시작
한 청계천 복개공사로 완전히 사라
졌다가 2003년 청계천 역사유적 발
굴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
의 오간수문은 복원하여 재현해 놓
은 것이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에 재현해 놓은 오간수문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대문 부근의 성벽과 함께 헐렸는데, 이후 1950년대 말부터 시작한 청계천 복개공사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다가 2003년 청계천 역사유적을 발굴하면서 오간수문의 홍예와 기초부, 돌거북 등을 발굴하였고, 2004년 복원하여 재현해 놓았다.

5. 비운의 역사로 사라진 남소문(南小門)

남소문이 서 있던 버티고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남소문은 장충동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버티고개에 있었다. 버티고개는 신당동에서 약수동,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와 한남동에서 장충단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통틀어서 말한다. 옛날에는 버티고개, 번티고개, 번도, 번티(番峙), 부어터고개라 하였고, 한자명으로는 부어치(扶於峙), 벌아령(伐兒嶺)이라 했다. 현대에 와서는 약수동고개, 장충단고개라고도 하였다.

버티고개라는 지명의 유래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한자명인 벌아령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서울의 진산인 삼각산은 인수봉이 어린애를 업고 나가는 형상이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서쪽의 무악과 떡고개(餅市峴)를 두어 어머니가 떡을 가지고 아이를 달래서 머무르게 하고, 남쪽에는 벌아령을 두어 아이가 나가면 벌을 주고 못 나가도록 막았다고 한다. 이 벌아령이 차츰 변하여 버티고개가 되었다고 한다.

또 하나는 순라꾼들의 외침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조선시대에 버티고개는 인적이 드문데다가 길도 좁았다. 게다가 도적들도 많았다. 어둡고 불안한 고개이니 도적들에게는 맞춤형 길이었을 것

이다. 그래서 순라꾼들이 야경을 돌았는데, 도적을 발견하면 ‘번도!’라고 외치며 뒤를 쫓았다. 버티고개는 ‘번도’라는 말이 변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번도가 번티로 변하여 번티고개라 하다가 지금의 버티고개가 된 것이다.

이렇듯 지명의 유래에서 보듯이 버티고개에는 실제로 도적들이 자주 출몰하였다.



남소문이 있었던 국립극장 앞
버티고개

1431년(세종 13)에는 버티고개에 있는 초막을 도적떼가 습격해 승려 3명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달아났고, 1469년(예종 1)에는 도적떼가 남소문을 지키는 군사들을 죽이는 등 도성 내외를 소란케 하여 남소문을 폐쇄하기도 했다. 또 1479년(성종 10)에는 버티고개 일대에 소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었는데, 이 숲에 도적들이 숨어들어 소나무를 베어버렸다.

2014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보면 주인공 김수현이 이런 말을 한다. “밤중에 버티고개 가서 앓을 놈.” 이 말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 말은 조선시대에도 하던 말이었다. 사람들은 생김새가 험악하고 마음씨가 곱지 않은 사람을 보면 “밤중에 버티고개에 가서 앓을 놈이다”라고 악담을 한 것이다. 도적같이 생긴 사람이나 행실이 미워서 도적들에게 당해도 썩 사람을 보면 이런 악담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험한 고개에서 몸에 좋은 약수가 솟았다. 버티고개 마루에는 약수터가 있었는데, 물맛이 좋기로 유명해 고개를 넘

북한산과 백악이 연결되는 주맥. 한양도성의 주맥은 한북정맥에서 나온 맥이 도봉산으로 연결되고, 이 산줄기가 삼각산(북한산)의 보현봉을 거쳐 백악(북악)으로 연결된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나드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약수를 마시며 잠시 쉬면서 피로를 풀었다. 지금의 약수동이라는 행정명은 바로 이 약수에서 유래했다.

한강나루로 가는 지름길 남소문

남소문이 언제 없어졌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남소문 터 부근의 성벽도 일제강점기인 1913년 장충단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놓으면서 철거되었고, 광복 후에는 1964년 자유센터를 건립하면서 남소문터 일대의 성벽마저 철거해버렸다. 이로써 비운의 남소문은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는데, 남소문을 세운 연대도 정확하지 않다. 다만 1456년(세조 2) 11월 20일 세조가 종친과 재상들을 거느리고 청학동(靑鶴洞, 지금의 장충동 일대)에 나가 남소문을 세울 예정지를 살펴보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때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한강 나루를 통해 남쪽으로 가려면 광희문을 통과해야 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도성에서 곧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이 필요했다. 이에 대신들이 새로이 문을 하나 세우자는 의견을 냈고, 세조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남소문이 세워졌다.

그러나 남소문은 1469년(예종 1)에 폐쇄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새로 세운 문이 교통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니 폐쇄하자는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동남쪽에 문을 내면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으리라는 음양가(陰陽家)의 주장 때문이었다. 이는 1469년 9월 14일 예종실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좌참찬 임원준, 행 사맹(行司猛) 안효례 등을 불러서 남소문을 막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임원준 등이 아뢰기를,

“음양(陰陽)의 설(說)에 의하면, 이 문은 정오방(正吾方)이므로 성상의 생년(生年)에 금기(禁忌)가 됩니다.”

하였다.

이 기록을 보면 남소문을 왜 폐쇄하였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또한 당시에는 남소문을 열어놓으면 여자가 바람이 나고, 장안의 풍기가 문란해진다는 말이 돌았는데, 이 역시 남소문을 폐쇄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남소문을 세운 뒤 음양가의 주장이 맞았다는 풍문이 떠돌았다.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죽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장안에는 남소문 때문에 의경세자가 죽었다는 말이 퍼지면서 음양가의 주장이 맞았다는 말이 돌았다. 실제로 남소문을 폐쇄한 이유가 음양설에 따른 것이었으니 이는 단순한 풍문이 아닐 터였다. 이는 남

남소문 터 표석

국립극장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버티고개 반안트리클럽&스파 서울
둘레길에 있다.



소문을 폐쇄하자는 논의를 한 지 닷새 뒤의 예종실록을 보면 알 수 있다. 1469년 9월 19일 대신들은 다시 한 번 남소문을 폐쇄하자고 한다.

남소문을 막는 것의 편부(便否)를 물으니, 임원준이 대답하기를,

“도읍을 정하던 당초에 어찌 경영(經營)할 때에 잘 헤아리지 않고서 이 문을 설치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이 문을 설치하였으나, 찾길이 통하지 않아서 큰 이익이 없고, 또 음양가가 손방(巽方)을 매우 꺼리므로, 처음에 이 문을 설치할 때에 불편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 과연 뒤에 의경세자께서 홍서(薨逝)하셨으니, 음양가의 설은 비록 믿을 것이 못 되나 이 문은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권감도 아뢰기를,

“막는 것이 온편합니다. 만약에 그대로 둔다면, 문을 굳게 잠그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막자면 인력이 얼마나 드는가?”
하니, 권감이 아뢰기를,
“공력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니, 막도록 명하였다.

이를 보면 남소문을 폐쇄한 이유와 함께 남소문을 세운 이유도 알 수 있다. 도읍을 정하고 한양도성을 쌓을 때 남소문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다 까닭이 있고, 뒤늦게 교통이 불편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새로이 문을 세웠으나 길이 통하지 않아서 큰 이익이 없으며, 음양가의 주장대로 의경세자가 죽었으니 남소문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남소문을 언제 세웠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세조가 남소문 터를 살펴본 것은 1456년 11월 20일이었다. 그리고 의경세자가 죽은 것은 1457년 9월이었다. 따라서 남소문은 그 사이에 세워졌을 터인데, 성문을 추운 겨울날 한 달 만에 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니 세조가 행차한 그 이듬해인 1457년 초에 세워졌을 것이다.

이처럼 10여 년 만에 폐쇄된 남소문은 이후 다시 열자는 진언이 계속 이어졌지만 열리지 않았다. 풍수금기설(風水禁忌說)을 따르는 반대론에 부딪혀 번번이 열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남소문이 영구히 폐쇄된 것은 아니었다. 왕명에 따라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열기도 하였다. 이는 숙종실록을 보면 알 수 있다.

1679년(숙종 5) 4월 19일 숙종실록에는 남인의 중진 허적이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 남소문을 다시 열자고 청하니 숙종이 윤허하

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두 달 뒤인 6월 29일 반대에 부딪친다.

병조판서 김석주가 남소문을 열게 된 잘못을 논하기를,

“도성의 동남쪽에 있었던 남소문을 오늘날 폐쇄하였는데, 감여가(堪輿家)가 매번 말하기를, ‘소양(少陽)의 방위를 폐색(閉塞)하고 개통하지 않기 때문에 왕자와 왕손을 보는 국가의 경사에서 매양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으니, 지금이라도 옛터를 찾아서 소양의 기(氣)를 통한다면 마땅히 상서롭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고 하고, 또 김안로가 임의로 폐쇄한 것이기 때문에 열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양의 방위는 정동(正東)에 있고, 또 동남방은 손방(巽方)이지 진방(震方)은 아닙니다. 또 <여지승람(輿地勝覽)>은 김안로가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경성 성곽조를 상고해보면 문을 여덟만 세웠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 문을 개통시킨다면 아홉이 되어야 하니, 조종(祖宗)께서 건치하신 처음의 제도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도성의 문은 사대문과 사소문 등 팔대문이어야 하고, 그 외의 문을 세우는 것은 도성을 쌓을 때 팔대문을 만든 뜻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소문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710년(숙종 36) 11월 27일 숙종실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전(前) 인의(引儀) 안정기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대부아현(大負兒峴)과 소부아현(小負兒峴) 사이에 한 폐문(閉



1930년대의 한강 나루터
(출처-서울역사박물관)

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남소문입니다. 그곳으로부터 한강까지 거리가 1, 2리쯤인데, 두 현으로부터 강변까지 소성(小城)을 쌓으면 용도(甬道)를 쌓은 형세를 이룰 수 있어서, 성 안과 성 밖에 여러 창고(倉庫)를 수용할 수 있으니, 그 구문(舊門)을 열고 곡식을 실어 들여서 한편으로는 청야(淸野)하는 방도를 삼고, 한편으로는 곡식이 넉넉한 형세를 삼는 것이 제1의 방책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해조(該曹)에 내렸으나 마침내 채택하여 시행한 것이 없었다.

군국(軍國)의 계책을 상소한 이 내용은 제5의 방책까지 열거하고 있다. 그 중 으뜸인 제1방책은 남소문을 열고 군사적으로 활용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시행되지 않았고, 이에 군국의 계책을 잇달아 상소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두 한탄하였다고 한다.

“인재(人才)가 나오지 않는 것은 남소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열기를 청합니다.”

1675년(숙종 1) 6월 11일 술사(術士) 김진발은 숙종에게 상소를 올려 남소문을 열어야 한다고 청한다. 조선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얻으려면 폐쇄된 남소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남소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보다는 조정의 안녕과 도성의 평화가 더 중요했을 것이다. 왕조 시대이니 당연할 터이다. 군사적으로 활용가치가 높고, 인재도 얻을 수 있다고 한 남소문은 그렇게 타고난 운명을 어찌지 못하고 비운의 역사로 남았다.

6. 남산에서 최초로 발굴한 성랑(城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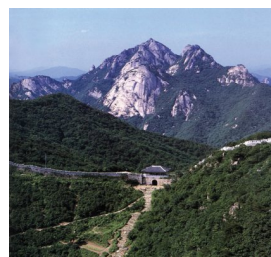
도성을 지키는 초소 성랑

한양도성에는 75개의 성랑이 있었다고 전한다. 성랑은 도성을 수비하기 위해 성벽 위에 세운 방어용 시설로, 군사들의 숙소이자 초소였다. 군사들이 주둔하여 도성 밖의 상황을 살피며 성을 지키고, 전시에는 적을 공격하는 시설이었다. 또한 각종 물자를 비축하는 창고로도 쓰였다.

조선왕조실록에 성랑에 대한 기록은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한양도성의 성랑은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에 비해 적었다. 북한산성에는 143개, 남한산성에는 115개가 있었는데, 도성을 지키는 성랑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던 것이다.

성랑은 태조 대에 한양도성을 처음 쌓을 때부터 지었을 것이다. 도성을 쌓으면서 성을 지키는 초소를 짓지 않았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양도성의 성랑을 지었다는 기록은 영조실록에 처음으로 나오고, 현종 대에 지은 성랑만 기록되어 있다. 먼저 영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렇다.

1747년(영조 23) 영조는 어영대장 구성임에게 도성을 수호하는



북한산성

북한산성에는 143개의 성랑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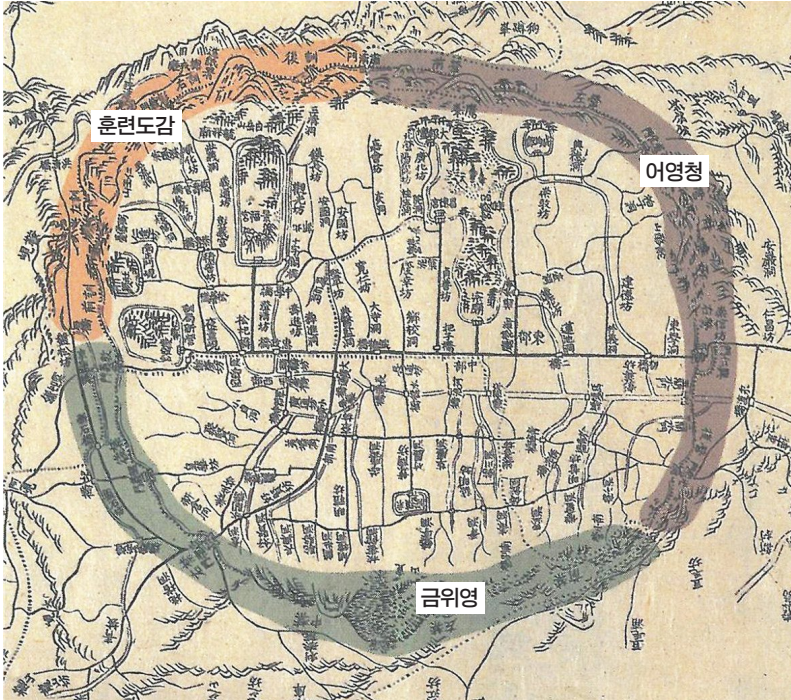
절목(節目)을 올리도록 명하였다. 당시 병비(兵備)가 허술하여 조정에서 늘 근심하였는데 의논하는 자들이 더러는 강도(江都, 강화도)가 수호할 만하다고 하고, 더러는 도성이 수호할 만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구성임이 전적으로 도성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모두 이를 좇았고, 마침내 구성임의 주장대로 시행되어 강상(江上)의 모든 창고를 철거하여 성 안으로 옮기되, 금위(禁衛)의 두 창고를 먼저 옮겨서 세웠으며, 성을 돌아가며 성량을 쌓았다. 이때에 이르러 도성을 수호하는 절목을 만들어 오부(五部)의 주민은 진신사족(搢紳士族)을 제외하고 오위장(五衛將)에게 나누어 소속시키도록 하였다.

이때 성을 빙 둘러 쌓은 성량은 75개였다. 성량은 성벽에서 5보(步) 떨어진 곳에 세웠고, 돈의문에서 숙정문에 이르는 구간에 24개, 돈의문에서 광희문에 이르는 구간에 24개, 숙정문에서 광희문에 이르는 구간에 27개였다.

백성과 함께 도성 사수를 천명한 영조

영조가 성량을 대대적으로 지은 것은 수도방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전까지 조정은 전란이 나면 도성을 벗어나 몽진을 하여 항전을 했다. 도성을 떠난다는 것은 곧 도읍을 버리는 것이고, 백성을 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왕실은 도성을 사수하며 결사항전하기보다는 백성을 버리고 몸을 피했다. 그래서 분노한 백성들은 왕이 빠져나간 궁궐을 불태우며 통곡했고, 영조는 이를 헤아리고 있었다.

영조는 무엇보다도 도성을 사수하는 방위체계를 확고하게 다졌다.



도성삼군문분계지도(都城三軍門分界之圖, 1751년)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삼군의 경비구역이 표시된 지도로, '수성윤음'에 첨부되어 있다.

1745년(영조 21)에는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삼군문에 도성의 수비를 분담시켜 도성을 지키는 기본적인 체제를 정비하였고, 1747년(영조 23)에는 도성의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성랑을 쌓았다. 또한 1751년(영조 27)에는 '수성윤음'을 반포하여 도성의 모든 백성들을 삼군문에 배속시켰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삼군문에 속한 백성들이 각자 맡은 도성 구간을 지키게 하였다.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도성을 지키게 하는 수도방위 체제였고, 수성윤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백성과 더불어 도성을 사수하겠다는 영조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다.

삼군영의 도성 관리와 성랑

영조 이후의 성랑 기록은 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한 <일성록

한양도(漢陽圖, 1701년)

정동(正東) 방향에 자리한 흥인지문
과 그 남쪽 밑으로 자리한 광희문 사
이의 성벽이 뚜렷하게 그려져 있다.
여기에 성랑 6개가 있었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日省錄))에서 볼 수 있다.

1844년(헌종 10) 5월 18일에 훈련도감 공사구간의 여장 1,574
타를 수축하고 성랑 27처를 신축하여 오늘 공사를 마쳤다. 금위영
공사구간의 여장 1,627타를 수축하여 오늘 공사를 마쳤다. 어영청
담당구간의 여장 1,598타를 개수축하고 성랑 27처를 신축하여 오
늘 공사를 마쳤다.

이를 보면 성랑은 헌종 대에 더 쌓은 것으로 보인다. 훈련도감
공사구간과 어영청 담당구간에 각각 27개씩 54개의 성랑을 신축
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양도성에 몇 개의 성랑
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성랑은 초소이자 창고를 겸하였
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하면 더 지을 수 있고, 전략적으로 불필요
한 곳의 성랑은 폐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영조 대에 75개를 세웠다는 것이다. 이는 영조

대에 삼군영이 관리한 도성 구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먼저 훈련도감은 숙정문 동변에서 돈의문 북변까지 4,850보의 구간에 걸쳐 성랑 24개를 두고서 도성을 수비했다. 금위영은 돈의문에서 광희문 남촌까지 5,042.5보의 구간에 걸쳐 성랑 24개를 두고서 도성을 수비했다. 어영청은 광희문에서 숙정문까지 5,042.5보의 구간에 걸쳐 성랑 27개를 두고서 도성을 수비했다. 특히 어영청 구간인 광희문 북쪽에는 치성 6개도 있었다.

기록에서 현실로 나온 남산의 성랑

치성과 마찬가지로 성랑도 기록에만 있고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 성랑 터 하나가 2003년 남산 봉수대지 발굴조사에서 발굴되었다. 정확한 지점은 제4봉수대 추정 지점(남산 정상과 잠두봉 포토아일랜드 중간 지점) 인근이었다.

남산에서 발굴한 성랑 유구는 영조 대의 성랑으로 보고 있다. 성벽에서 9m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었고, 정면 3칸×측면 1칸 구조였다. 이 성랑은 도성을 지키는 초소가 아닌 각종 물자를 비축하는 창고용 성랑으로 보고 있다.

남산 자락에서 발굴한 성랑은 기록으로만 볼 수 있었던 성랑을 처음 발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광희문에서 숭례문 구간에 20개의 성랑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남산에서 발굴한 성랑은 이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성랑은 숙정문과 축대바위 사이에서 발굴되었다.



잠두봉 포토아일랜드에서 남산으로 오르는 한양도성 순성길. 이 길은 남산의 제4봉수대 추정 지점으로, 성랑은 이 부근에서 발굴되었다.



성랑 발굴 현장
(출처-서울역사박물관)

7. 국태민안을 기원한 목멱신사(木覓神祠)

남산, 조선을 수호하는 신령한 산

남산은 조선을 수호하는 신령한 산이었다. 그래서 한양 천도 초기에는 백성의 출입을 제한하고 벌채를 금하는 등 엄격히 보호했다.

한양도성은 자연지리와 풍수지리에 따라 내사산을 이어가며 쌓았다. 주산(主山)인 백악산을 중심으로 좌청룡 낙산, 우백호 인왕산, 안산(案山)인 남산을 빙 둘러서 쌓은 것이다.

남산은 나라의 안녕과 백성들의 복을 비는 신성한 산이었다. 1395년(태조 4) 태조는 남산을 호국의 신으로 삼고 목멱신사를 세웠다. 이어 1396년(태조 5)에는 남산을 목멱대왕(木覓大王)으로 봉하고 공식적인 국가 제사를 지내는 사당(국사당)으로 삼았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 대사가 있으면 반드시 산천에 제를 지냈는데 목멱신사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곳을 하고 산천제를 하였던 곳이다. 해마다 봄 가을에는 초제(醺祭, 별을 향하여 지내는 제사)를 지냈고, 기우제(祈雨祭)와 기설제(祈雪祭), 재해(災害)를 물리치는 제사와 더불어 왕이 병이 들었거나 왕실에 병환이 있으면 목멱산신에 제를 올리고 빌었다. 즉 나라에 변고나 재앙이 있



남산 팔각정
목역신사는 남산 마루 지금의 팔각
정 자리에 있었다.

을 때마다 이를 물리치는 제를 올린 것이다.

또한 왕들은 왕도를 세우고 한양도성을 쌓을 때마다 목역산신에 제를 올렸다.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한 후 왕도를 건설할 때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산천(山川)의 신에게 제를 올리고 왕도를 세우는 사유를 고하였는데, 그 고유문(告由文)을 보면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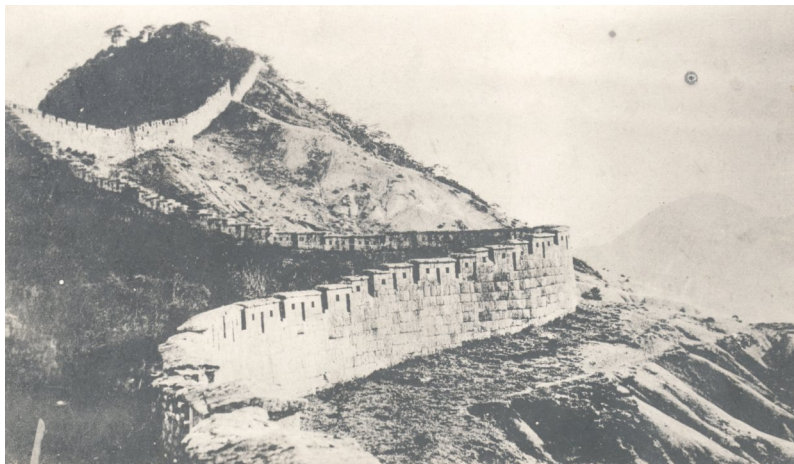
왕도 건설의 염원을 담은 고유문



이른 아침 목맥산에 돋는 해를 그린 겸재 정선의 목맥조돈(木覓朝墩, 1741년)

“왕은 이르노라!

그대 백악과 목맥산의 신령과 한강과 양진(楊津) 신령이며 여러 물귀신이여! 대개 옛날부터 도읍을 정하는 자는 반드시 산(山)을 봉하여 진(鎭)이라 하고, 물(水)을 표(表)하여 기(紀)라 하였다. 그러므로 명산(名山) 대천(大川)으로 경내(境內)에 있는 것은 상시로 제사를 지내는 법전에 등록한 것이니, 그것은 신령의 도움을 받고 신령의 도움에 보답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건대, 변변치 못한 내가 신민의 추대에 부대끼어 조선 국왕의 자리에 앉아, 사업을 삼가면서 이 나라를 다스린 지 이미 3년이라. 이번에 일관의 말에 따라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종묘와 궁궐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미 날 짜를 정했으나, 크나큰 공사를 일으키는 데 백성들의 힘이 상하지 아니할까, 또는 비와 추위와 더위가 혹시나 그 때를 잃어버려 공사에 방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이제 문하 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김사형과 판삼사사 정도전 등을 거느리고 한마음으로 재계하고 목욕하여, 이달 초삼일에 참찬문하부사 김입견을 보내서 폐백과 전



한양도성 백악구간 성벽을 담은 일제시대 사진 엽서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물을 갖추어 여러 신령에게 고하노니, 이번에 이 공사를 일으킨 것은 내 한 몸의 안일(安逸)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 제사를 지내서 백성들이 천명을 한없이 맞아들이자는 것이니, 그대들 신령이 있거든 나의 지극한 회포를 알아주어, 음양을 탈 없이 하고 병이 생기지 않게 하며, 변고가 일지 않게 하여, 큰 공사를 성취하고 큰 업적을 정하도록 하면, 내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도 감히 나 혼자만 편안히 지내지 않고 후세에 이르기까지 때를 따라서 제사를 지낼 것이니, 신도 또한 영원히 먹을 것을 가지리라. 그러므로 이에 알리는 바이다.”



한양도성 백악구간(일제시대)
(출처-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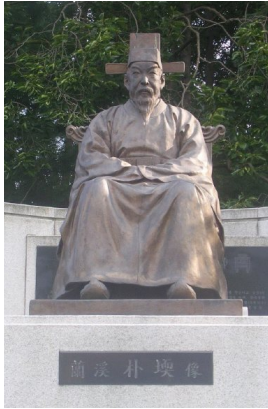
도성의 사당 목멱신사

목멱산과 백악의 산신에게 올리는 제는 도성을 쌓고 수축할 때도 빠짐없이 올렸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적인 제를 올리는 공식적인 사당의 모습은 국사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처음에는 초라했다. 이는 세종실록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1430년(세종 12) 2월 19일 조선 초기의 문신이자 훗날 왕산악, 우륵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박연은 세종에게 목멱신사의 격을 갖추어 줄 것을 아뢰었다. 당시 박연은 종오품의 봉상판관(奉常判官)이었는데, 음악 서적을 편찬하고 궁중악기를 만들면서 음악과 관련한 상소를 자주 올렸다. 제를 올릴 때는 무악을 쓰니 박연은 당연히 목멱신사를 눈여겨보았을 것이다.

박연이 말하기를,

“옛날의 제도를 잘 살펴보면 바다, 산, 강의 신에게는 모두 사당집이 있어 명궁(明宮), 재려(齋廬), 신주(神廚), 신고(神庫)가 갖추



왕산악, 우륵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박연. 세종에게 목역신사의 격을 갖추자고 하였다.

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그 정성과 공경함이 극진하였사운데, 신사(神祠)는 봉상시 관원인 제가 감히 아는 체할 바가 아니오나, 삼각산과 목멱산의 사당은 곧 도성(都城) 중의 사당으로서 단(壇)과 낮은 담은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그 구조를 보온즉 제묘(祭廟) 3칸만 세웠사운데, 규모가 좁고 누추하며, 재려와 주방과 공간이 전혀 건조되지 않았사오니, 제사지내는 날에 만약 바람 불고 천둥 치고 비 오고 눈 오는 변이 있으면, 제찬(祭饌)을 감독하여 마련할 적에 가리고 덮은 것이 없고, 향을 받은 대신과 대감, 향관들이 밤새도록 옷이 젖게 되오니 매우 미편합니다.

또 그 변(簋), 비(篚), 조(俎), 두(豆)와 등(甑), 형(銅), 준(尊), 탁자(卓子) 등의 물건을 짊어지고 오르고 내리면서 제사 때마다 번갈아 돌려쓰게 되니 역시 매우 타당치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려와 신주를 세워서 비에 젖지 않도록 준비하고, 신고를 세워서 제기(祭器)를 각기 따로 간수하여 번갈아 쓰지 못하게 하고, 사당의 안에 면장(面帳, 앞에 늘어뜨린 휘장), 지의(地衣, 가장자리를 형겅으로 꾸미고 크게 만든 돛자리), 도벽(塗壁) 등의 장식은 신(神)이 의지하는 곳이니, 도리상 마땅히 맑고 깨끗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진설한 것이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찢어지고 더러워져서 신을 공경하는 예에 부끄러움이 있사오니, 지금부터는 그 시일이 오래 되고 가까운 것을 참작하여 고치고 바뀌서 새롭게 하도록 하시기 바라오며, 신탁(神卓)의 설비는 전찬(奠饌)하는 데 관계되오니 설만히 할 수도 없으며 더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신이 삼각산과 목멱산의 신위(神位)와 탁자를 보오니, 삼각산 것은 거칠게 만든 널빤지 상 두 개를 맞대어 놓았으며, 목멱산 것은

상을 만들지 않고 널빤지 두 조각으로써 두 쪽 마구리에 킴목을 받쳐 놓았습니다.

이 두 사당의 신탁이 법에 어긋남이 이와 같아서 이미 상(床)의 제도가 틀렸고, 또 칠을 하지 않았으므로 더럽고 때가 끼었으며, 또 진설하는 데 있어서도 길이와 넓이가 넉넉하지 못하오니 진실로 설만함이 그지없사온즉, 누가 성중(城中)에 나라 제사를 지내는 곳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겠습니까.

신이 이 폐단을 예조에 보고하고 선공감에 공문을 보낸 지가 이미 해포가 되었습시다마는, 영선(營繕)하는 일이 번다하여서 지금까지 고치지 못하였사오니, 속히 고쳐서 일체 진설이 합당하게 되도록 하옵시고, 모든 기구의 만들고 꾸미기를 정밀히 연구하여서 하며, 홍색과 흑색으로 칠을 하여 이를 신고(神庫)에 잘 간수하고 아무 때에나 마구 내 쓰지 못하게 하며, 그 전에 쓰던 상은 그대로 보존하여 상시에 쓰도록 하는 것이 또한 옳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시어 마땅하다고 여기시면 좇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를 보면 조선 초기 목역신사의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다.

목역신사는 곧 도성의 사당, 말 그대로 국가적인 사당이였다. 그래서 정성과 공경함으로 극진히 살피고, 그에 맞는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그 규모를 보면 제묘 3칸에 좁고 누추하고, 주방과 곳간도 없이 비바람이라도 치면 제를 올릴 수 없을 지경이였다. 또 제를 올릴 때 쓰는 음식과 물건도 소홀히 다루며 제사 때마다 번갈아 돌려 썼고, 제기마저 관리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제를 올리는 상도 널빤지로 썼으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 초라한 규모와 모습



지금의 남산도서관과 안중근의사기념관 일대에 남산의 소나무를 베어다가 방대한 규모로 세운 조선신궁.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신사였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이 선연히 그려질 것이다.

목멱신사는 이때부터 정비되었을 것이다. 박연의 상소를 보고 세종이 그대로 하라 하였으니 국사당으로서 격을 갖추어 나갔을 것이다.

목멱신사를 강제로 밀어낸 조선신궁

목멱신사는 남산 꼭대기 지금의 팔각정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1925년 일제강점기 때 인왕산 국사당 자리로 옮겨졌다. 일제가 남산에 조선신궁을 지으면서 목멱신사가 그들의 신궁보다 높이 있다고 하여 강제로 옮긴 것이다.

조선신궁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신사였다.

안중근의사기념관과 남산도서관, 지금은 철거된 남산식물원을 아우르는 자리에 방대한 규모로 들어선 조선신궁은 남산의 소나무를 베어다가 지었다. 조선은 목멱산의 소나무가 무성해야 왕조의 정기가 산다는 이유로 남산의 소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해 왔는데, 그런 소나무를 일제는 마구 베어다 쓴 것이다. 또한 조선의 영산인 남산을 무참히 파괴하고 뱃나무를 심었다.

조선총독부는 의무적으로 신사 참배를 강요했다. 조선인들에게 ‘황국신민의 서사’를 외우게 하였고,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주입하는 도구로 썼다. 송례문에서 조선신궁 앞까지 참배로를 내고 송례문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성곽을 허물고 찾길을 냈다. 그리고 조선신궁 입구에서 정전이 있는 광장까지 돌계단 384개를 놓았다.

이 계단은 지금도 참혹한 역사를 간직한 채 남아 있다. 서울시교육청 용산도서관 옆으로 난 가파른 계단과 서울시교육정보연구원(옛 어린이회관) 옆에서 백범광장으로 내려가는 긴 계단이 그것인데, 용산도서관 옆으로 난 가파른 계단은 바로 인기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 나오면서 유명해진 ‘삼순이 계단’이다. 지금은 연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 나오면서 유명해진 일명 ‘삼순이 계단’. 일제는 송례문에서 조선신궁 앞까지 참배로를 내고 조선신궁 입구에서 정전이 있는 광장까지 돌계단 384개를 놓았다. 그 계단 중 하나가 이 계단으로, 지금도 참혹한 역사를 간직한 채 남아 있다.

인들이 데이트 코스로 많이 찾는 이 계단은 1920년대만 해도 고급 석재인 화강암으로 만들었고, 우리 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가 드리운 곳이다.

조선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일장기를 들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참배를 했던 조선신궁은 일본 식민통치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체되었고, 일본인들이 집단으로 살았던 충무로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역사적 인물 충무공 이순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리고 조선신궁을 만들어 성지로 여겼던 자리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세웠다.

목멱신사는 일제에 의해 훼손되어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다. 다 행한 것은 인왕산으로 옮길 때 사당의 일부를 옮겨 조립해서 그 형태와 구조가 원형과 비슷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목멱신사를 옮긴 인왕산 국사당은 1973년 중요민속자료 제28호로 지정되었고, 이곳의 무신도 28점은 1970년에 중요민속자료 제17호로 지정되었다.



인왕산 국사당

8. 전국 봉화의 종착점 남산 봉수대

세종 대에 설치한 목멱산 봉수대

한양도성 수호와 더불어 나라를 지키는 주요 군사시설 중 하나는 봉수대였다. 봉수대는 높은 산봉우리에서 밤에는 횃불을, 낮에는 연기를 피워 전국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위급한 소식을 한양으로 전달하는 시설물이다. 말하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통신수단이었는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있었다고 전한다.

조선시대 봉수대는 전국에 620여 개소가 있었다고 한다. 이들 봉수는 남산 봉수대로 집결하였는데, 남산 봉수대는 전국에서 올라오는 봉수의 종착점이었다.

남산 봉수대는 남산의 옛 이름인 ‘목멱산 봉수대’라고도 하였고, 서울에 있다 하여 경봉수(京烽燧)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 봉수는 해안과 변경에 위치한 연변봉수(沿邊烽燧), 연변봉수를 한양으로 이어가며 전달한 내지봉수(內地烽燧), 연변봉수와 내지봉수가 연결되어 전국의 모든 봉수가 집결하는 남산의 경봉수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봉수대는 화급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산 정상이나 산마루에 설치하였고, 봉수의 간격은 보통 30리 정도였다.



조선의 통신수단이었던 남산
봉수대

남산 봉수대는 1394년(태조 3)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뒤 설치하였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 대에 설치한 것으로 나온다. 1422년(세종 4) 11월 14일 세종실록 기록을 보면 병조에서 남산의 봉화에 대해 매일 보고서를 올리겠다는 보고를 한다.

병조에서 제하기를,
“입직(入直)한 삼군 수령관이 삼군 중에서 다섯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남산의 밤에 봉화와 낮에 연기를 바라보고 날마다

보고서를 본조에 바치도록 하려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를 보면 남산에 봉화가 5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군 5명을 뽑아서 남산의 봉화를 살피게 한다는 것은 곧 5개의 봉화가 있었고, 날마다 이를 맡아서 지키게 했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석 달 뒤인 1423년(세종 5) 2월 26일 세종실록에는 좀 더 상세한 기록이 나온다. 병조에서 “서울 남산의 봉화 다섯 곳을, 본조(本曹)가 진무소(鎭撫所)와 더불어 산에 올라 바라보고 불을 들어 서로 조준한 뒤에 땅을 측량하여 설치하였는데, 그 지명과 내력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기록해 올립니다” 하고 세종에게 보고한 것이다. 그리고 제1봉화는 명철방(明哲坊, 지금의 오장동 방향)의 동원령(洞源嶺)에, 제2봉화는 성명방(誠明坊, 지금의 목정동 방향)의 동원령에, 제3봉화는 훈도방(薰陶坊, 지금의 예장동 방향)의 동원령에, 제4봉화는 명례방(明禮坊, 지금의 명동 방향)의 동원령에, 제5봉화는 호현방(好賢坊, 지금의 회현동 방향)의 동원령에 설치를 하였다는 보고를 한다. 이를 보면 세종 대에 남산에 5개의 봉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남산으로 집결한 봉화의 경로

남산 봉수대는 남산의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5개의 봉수대가 차례로 설치되어 있었다. 봉화의 경로는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봉수는 함경도에서 강원도를 거쳐 경기도 양주(지금의 광진구)의 아차산으로 이어지는 봉화를 받았고, 제2봉수는 경상도 해

안의 동래 다대포에서 충청도를 거쳐 경기도 광주로 이어지는 봉화를 받았다. 제3봉수는 평안도 의주에서 황해도와 경기도를 거쳐 한양의 무악으로 이어지는 봉화를 받았고, 제4봉수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바닷길을 따라 경기도를 거쳐 한양의 무악으로 이어지는 봉화를 받았다. 그리고 제5봉수는 전라도 순천 해안에서 충청도와 경기도 해안을 거쳐 양천(지금의 강서구) 개화산으로 이어지는 봉화를 받았다.

봉화는 햇불과 연기의 수를 조정하여 전했다. 봉화를 한 번 드는 것을 일거(一炬)라 하여 위급한 상황에 따라 수를 달리한 것인데, 평상시에는 일거, 국경과 바다에 적이 나타나면 이거, 적이 해안이나 변경 등 국경에 접근하면 삼거, 적이 국경을 침범하면 사거, 침범한 적과 전투를 벌이면 오거를 올렸다. 또한 비바람이 치거나 날씨가 나빠 봉화를 올릴 수 없으면 포성(砲聲)과 각성(角聲)으로 인근 주민과 수비군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위급할 때는 봉수군이 다음 봉수대까지 달려가 알리기도 하였다.

평시에도 점검한 국토방위 안전망

봉화는 반드시 위급한 상황에서 올리는 것만은 아니었다. 평상시에도 1거를 올려 나라에 이상이 없음을 날마다 점검하였는데, 그만큼 백성들의 안전과 국토방위에 철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봉화는 국가의 안녕을 책임지는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봉화 관리를 잘못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면 엄중히 문책을 하였다. 또한 봉화를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수단으로 이용하면 엄히 다스렸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와 관련한 기록이 있다.

1701년(숙종 27) 3월 8일 숙종실록을 보면 봉화를 사사로이 들



해동팔도봉화지도

전국에 걸쳐 봉화를 올리는 산악을 표시한 지도.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2007년 보물 제1533호로 지정되었다. 이 지도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었다가 벌을 받은 일이 나온다.

목덕산에 봉수를 맡은 자가 이미 불을 들었는데, 갑자기 봉대(烽臺) 밑에 두 사람이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물어보니, 이는 청산현(靑山縣)의 기병(騎兵) 보인(保人) 서일입과 최여상이었다. 이들이 말하기를,

“원통한 정상이 있어서 조정에 호소하려고 감히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니, 병조에서 두 사람을 유사(有司)에 내려 보내 엄하게 핵심하여 죄를 정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억울한 일을 호소하려고 봉화를 든 기록을 보면 봉화가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과 사사로운 억울함은 그 경중을 떠나 구분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봉화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남산 봉수대는 1895년까지 500여 년에 걸쳐 그 역할을 다하며 유지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봉수대 터만 남아 있고 사라졌다. 현재 남산 팔각정 옆에 있는 봉수대는 고산자 김정호가 만든 조선의 지도책 <청구도(靑丘圖)>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고증을 거쳐 1993년에 복원한 것이다. 복원한 봉수대는 남산의 제3봉수대이며, 서울 특별시 기념물 제14호로 지정되어 있다.

9. 남산에 자리했던 군사시설

남별영(南別營)

남산은 적의 외침을 막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방패였다. 봉수대를 비롯해 각종 군사시설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금위영과 어영청의 분영(分營)인 남별영과 남소영, 무기고와 군사창고 등이 있었다.

남별영은 1730년(영조 6) 남산 아래 남부 낙선방(樂善坊)에 설치되었는데, 지금의 ‘한국의 집’ 남쪽 필동 2가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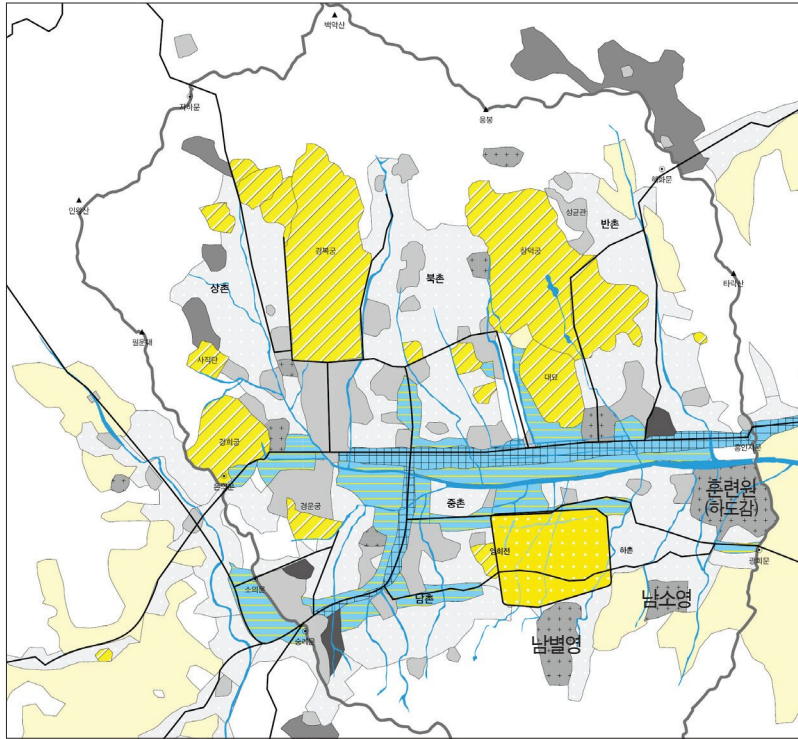
남별영은 금위영의 주요 분영이었다. 그래서 초관(哨官) 1명과 별기위(別騎衛) 2명이 향군(鄉軍) 15명을 두고서 입직을 하였고, 101칸 규모의 남창(南倉)과 104칸 규모의 하남창(下南倉)을 두고 있었다. 또한 남창 서쪽 기슭에는 17칸 규모의 화약고가 있었다.

남별영은 조총 훈련과 사습(私習) 등 금위영 군사들의 군사훈련장이기도 하였다. 또한 금위영 별시사(別試射)와 관무재(觀武才) 등 금위영 군사들이 시험을 치르는 곳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남별영 안에는 골짜기에 천우각(泉雨閣)이란 정자가 있어 여름이면 피서지로 유명했는데, 천우각은 지금도 남산골 한옥마을에 그 모습을 지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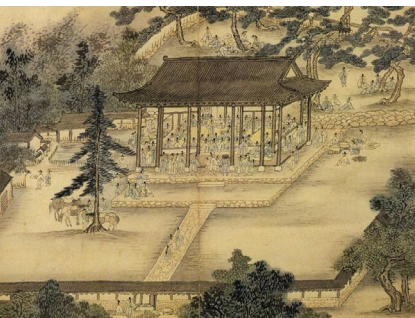


남산골 한옥마을에 있는 남별영터, 남소영 터 표석

광희문 인근의 군사시설 터. 흥인지문과 광희문 사이에 훈련원(하도감)이 있었고, 광희문 안쪽으로 남소영, 남별영이 있었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남소영(南小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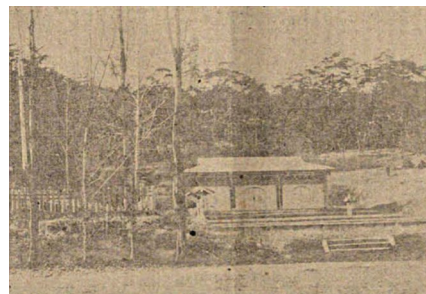
단원 김홍도의 남소영도

남소영은 1695년(숙종 21) 남소문 동쪽인 남부 명철방(明哲坊)에 설치되었는데, 지금의 장충동 2가 장충단공원 사전(祠殿) 터 아래 있었다.

남소영은 194칸 규모에 초관 1명과 향군 12명이 입직하며 관리를 하였다. 아울러 52칸 규모의 화약고와 18문의 창고가 있었다. 화약고는 초관 1명과 향군 6명이 입직하며 관리하였고, 창고 13문에는 군기(軍器)를, 4문에는 군물(軍物)을, 그리고 1문은 예비로 비워 두었다. 그러니까 남소영은 화약 등 각종 군기를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군기를 관리하기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남소영은 공간도 상당히 넓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각종 무과의 시험 장소로 사용되곤 하였다. 조선시대 무과 시험은 훈련원(訓練院)과 모화관(慕華館)을 1, 2소(所)로 하여 보았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많으면 3소를 마련하여 보았다. 정조실록을 보면 1800년(정조 24) 3월의 무과 시험에 35,891명이 응시하여 남소영을 3소로 하여 시험을 치렀고, 정조가 직접 남소영에 행차하여 각종 무과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남소영 터에는 훗날 대한제국 최초의 국립묘지라 할 수 있는 장충단이 들어섰다. 구한말 고종은 을미사변과 임오군란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과 열사들의 제를 지내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1900년 9월 장충단을 세우고 매년 봄가을에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장충단은 일제에 의해 1910년 8월 폐사되었는데, 일제



1913년 매일신보에 게재된 장충단 모습

남소영 터에는 대한제국 최초의 국립묘지라 할 수 있는 장충단이 들어섰다.





수표교.

이 다리는 청계천을 가로질러 만든 돌다리로, 물의 수위를 측정하던 관측기구인 수표(水標)를 세우면서 수표교라 불렀다. 청계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1965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놓았다.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수표(水標). 세종 대에 한강변과 청계천 두 곳에 설치하였는데, 현재 남아 있는 청계천의 수표는 성종 대에 돌기둥을 개량하여 만든 것으로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세종대왕기념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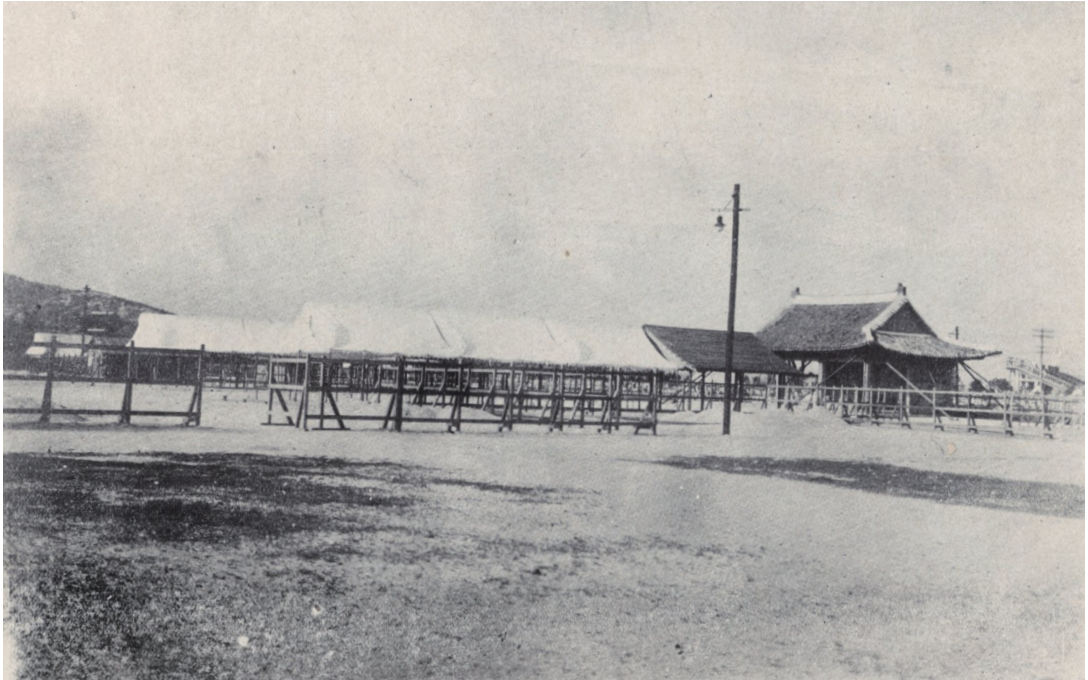
는 제단을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장충단 비와 석물을 모두 땅에 파묻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는 이곳에 벚꽃을 심고 공원으로 만들었다. 또한 상해사변(上海事變)에서 전사한 일본군 육탄삼용사의 동상과 이토 히로부미의 조상을 모신 박문사(博文寺)를 세웠다.

일제가 짓밟고 유린한 장충단은 광복과 함께 박문사와 동상을 철거하면서 제 모습을 찾는 듯했다. 그러나 장충단은 한국전쟁으로 모두 파손되고 지금은 장충단비만 남아 있다. 서울특별시 지방유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이 비는 원래 1967년에 준공한 국민전용 숙소 영빈관에 있었는데, 1969년 지금의 수표교 서편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비에 새겨진 ‘獎忠壇’은 순종이 황태자 시절 쓴 글씨이며, 뒷면에는 민영환이 쓴 글이 새겨져 있다.

하도감(下都監)

광희문과 동대문 사이에는 훈련도감의 분감인 하도감(下都監)이 있었다. 하도감은 왕의 신변과 한양을 수호하며 지방군의 훈련과 치안을 담당했던 훈련도감의 분영이다. 임진왜란 중인 1594년(선조 27)에 유성룡의 제청으로 창설되었는데,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식 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이 무예를 연마한 곳이다. 1881년(고종 18)에 창설된 별기군은 어려서부터 무예 수련을 통해 고급 무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창설되었는데, 나이가 어리고 신체가 강건한 80여 명을 특별히 선발하여 2월부터 9월까지의 비파정에서, 10월부터 정월까지는 하도감에서 훈련을 하였다.

하도감은 갑신정변 때 고종이 이곳에서 3일간 머물며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하도감



은 390칸 규모로 훈련도감 중에서는 가장 컸다. 그리고 지금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터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굴되었다.

일제는 하도감 터를 별기군 훈련원으로 사용했다. 이 터는 지금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국립의료원 부지를 아우를 정도로 넓었다. 사진은 1926년 순종의 영결식 준비를 마친 훈련원 모습이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10. 한양도성의 비밀통로 암문(暗門)

인조의 밀서를 전했던 암문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 천민임에도 불구하고 비중 있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대장장이 ‘서날쇠’다. 영화에서 서날쇠는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신한 인조의 밀서를 삼남(충청, 전라, 경상)의 조선군에게 전달한다. 청나라 군대가 겹겹으로 에워싼 산성을 비밀통로로 빠져나와 목숨을 걸고서 인조의 밀서를 전달한 것이다.

서날쇠는 실제로 남한산성에 살았던 ‘서흔남(徐欣南)’이란 인물을 모티브로 했다고 한다. 서흔남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볼 수 있는데, 1779년(정조 3) 8월 7일 정조실록에 “병자란 때로 말하면 서흔남은 사노(私奴)에 지나지 않는데 노병(虜兵)이 세 겹으로 에워쌌을 때에 홀몸으로 빠져나가 능히 삼남(三南)의 여러 도(道)에 명을 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영화에서 서날쇠가 인조의 밀서를 품에 감추고 산성을 빠져나간 문은 암문(暗門)이다. 암문은 적이 관측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한 문으로, 일종의 비밀통로다. 정문이 아닌 사잇문이어서 크기도 작고, 적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어떠한 시설도 없이 은밀하게 문만만 들어 놓았다. 성곽의 굴곡진 곳이나 수목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후

미진 곳에 만들었고, 노출에 대비하여 주위에는 암문을 막을 수 있는 큰 바위를 놓았다. 즉 도성 안쪽 암문 옆에 큰 바위를 놓고 유사 시에는 그 바위로 암문을 막았던 것이다. 그리고 평시에는 도성민들이 출입하며 양식과 가축, 수레 등이 드나들었고, 전시에는 구원병이나 군수품을 조달하며 비밀스럽게 적을 공격하기도 했다.

암문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남한산성이다. 남한산성에는 16개의 암문이 있는데, 홍예문 같은 아치형 암문이 10개, 네모난 우물 정(井)자 형태의 암문이 6개가 있다.

남한산성에 암문이 많은 것은 평지에 있는 성보다 지형적으로 암문을 설치하기에 유리한 산성(山城)이었기 때문이다. 즉 암문은 성의 규모보다는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만들었을 것이다. 또한 암문은 비밀통로여서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많겠지만 암문이 많을수록 그만큼 방어하기도 어려움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남한산성 암문

도성민들의 지름길 장충동 암문

우리나라는 ‘성곽의 나라’라는 별칭만큼 수많은 성들이 있다. 중부지방 이남에만 1,000여 개 이상의 산성과 읍성의 터가 있다. 1997년 수원의 화성을 비롯해 고구려의 유산인 오녀산성과 국내성, 환도산성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이를 봐도 우리나라가 성곽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성들에 암문이 있었을 터인데, 그 수는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양도성에도 제법 많은 암문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양도성의 암문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지금까지 발견한 한양도성 암문은 모두 8개인데, 백악 구간에 3개, 낙산 구간에 3



남산 구간 암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서울클럽으로 가는 사잇골목과 신당 2동 사이에 있다.

개, 남산 구간에 1개, 인왕산 구간에 1개가 있다.

남산 구간의 암문은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서울클럽으로 가는 사잇골목과 신당 2동 사이에 있다. 높이 3.1m에 1.5m의 폭으로 설치되어 있고, 지금도 주민들이 이 문으로 남산을 드나든다.

이 암문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사라진 남소문 역할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소문은 한강나루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한강나루로 가려면 광희문을 통해야 했는데, 그 길이 멀어서 남소문을 세웠던 것인데 그 남소문을 폐쇄하였으니 한강나루로 빠르게 가려면 당연히 이 암문을 통해 갔을 것이다.

또한 이 암문은 버티고개, 남소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인적이 드물었던 버티고개는 도적들이 자주 출몰하여 순라꾼들이 주의 깊게 살폈던 곳이다. 순라꾼들은 이 암문으로 드나들며 순라를 돌았을 것이고, 도성민들도 도적을 피해 이 암문을 이용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적들도 이 암문을 유용하게 이용하며 순라꾼들을 피해 다녔을 것이다.

지금의 장충단공원 근방에 있었던 남소영의 군사들도 이 암문을 자주 이용했을 것이다. 수도방위를 맡은 어영청의 분영이었던 남소영은 각종 군기를 보관하는 군사창고였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군사들에게 군기를 지급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기민하고 신속해야 한다. 유사시가 아닐지라도 훈련에 임하는 군사들에게 신속하게 군기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암문은 매우 유용했을 것이다.

암문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암문의 특성상 문헌이나 지도에 기록을 별로 남기지 않은 것이다. 이런 암문이 중구에 남아 있다는 것은 한양도성을 연구하는 사료적인 의미를 넘어 그 옛날 이 문으로 드나들었을 도성민들의 삶과 생활을 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백악 구간 암문



낙산 구간 암문



인왕산 구간 암문

11. 한양의 그린벨트 성저십리(城底十里)

부석소와 채석장



썰기구멍이 나 있는 남산 구간의
성돌

장충체육관 고개에서 성곽길로 들어서는 초입에는 세 개의 썰기구멍이 나 있는 성돌이 있다. ‘썰기’란 큰 바위나 돌을 쪼개기 위해 깊은 구멍을 내는 것을 말한다. 큰 바위를 쪼갤 때는 정(釘)으로 적당히 구멍을 낸 다음 주로 밤나무를 박아 넣고 거기에 물을 부어 놓는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불어나며 팽창하는데, 그 힘으로 바위가 쪼개진다. 이를 두고 ‘돌을 뜯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바위를 깨뜨려서 석재를 떠내는 일을 ‘부석(浮石)’, 또는 ‘벌석(伐石)’이라 하였다. 이 일을 전담한 기구로는 부석소(浮石所)를 두었는데, 부석소는 오늘날 채석장(採石場)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

한자 뜻대로 풀어보면 부석소는 ‘돌을 뜨는 곳’이고, 채석장은 ‘돌을 깨는 곳’이다. 말 그대로 부석소는 돌을 정교하게 떠내는 곳이고, 채석장은 돌을 발파하여 깨내는 곳이다. 이는 실제로 돌을 뜨거나 깨내는 작업장에 가서 보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돌을 다루는 작업을 보면 부석과 채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부석소는 어디에 있었을까?

조선시대에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도성 밖 일정 구간까지 개발을 제한했다. 이 구간을 성저십리라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한양의 그린벨트였다.

왕실의 안전과 도성민들의 환경을 위한 성저십리

성저십리는 도성을 기준으로 사방 10리 안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은 한성부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니까 도성과 성저십리를 포함하는 지역이 지리적인 공간으로는 한양이었던 것이다.

성저십리는 한양 천도 후 도성을 만들면서부터 형성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성저십리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양주(楊州) 송계원(松溪院), 대현(大峴)에 이르고, 서쪽은 양화도(楊花渡)와 고양(高陽) 덕수원(德水院)에 이르고, 남쪽은 한강과 노량진에 이른다 고 하였다. 북쪽으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북한산을 경계로 삼았다. 지금으로 보면 동쪽으로는 수유고개와 중랑천, 서쪽으로는 마포 망원정(望遠亭)과 홍제천, 남쪽으로는 한강, 북쪽으로는 은평구 대조동 관고개까지 성저십리였다. 행정구역으로는 중구와 동대문구 일부,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등이 해당하는데, 조선 초기부터 성저십리에 포함된 중구 신당동은 1751년(영조 27) 수성윤음의 ‘도성삼군문분계



부석소



채석장



경성도(京城圖)

한양을 둘러싼 도성 밖 10리 안을 성저십리라 한다.

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錄)’에 따르면 도성 밖 남부 두모방 ‘신당리계’였다.

성저십리의 인구는 조선 초기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1428년(세종 10) 한성부 오부(五部)의 호수는 16,921호, 성저십리의 호수는 1,601호였다. 도성의 인구는 103,328명이었고, 성저십리의 인구는 6,044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가면서 성 밖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1789년(정조 13) 성저십리의 인구는 76,782명이었다. 그래서 성저십리에 방(坊)을 따로 설치하고 다스렸다.

구전으로 전하는 중구의 채석장

성저십리를 둔 이유는 왕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성민들의 환경을 쾌적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부석소는 성저십리 밖에 두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 광해군이 창덕궁을 재건할 때는

돌을 운반하여 다듬어서 무너진
성곽을 보수하는 모습
(한양도성박물관 촬영)



창의문 밖에 두기도 하였다. 또 숙종 대에 도성을 보수할 때는 정릉 근처의 청수동에 두었다. 도성 공사처럼 대규모 공사를 하며 돌이 많이 필요할 때는 부석소를 성저십리 안에 두었던 것이다. 부석소에서 뜯은 돌은 소가 끄는 수레로 성벽까지 운반하였고, 거기서부터는 인부들이 목도로 옮겼다. 그래서 운반을 하다가 무거운 돌에 깔려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중구에도 채석장이 있었다고 한다. 중구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구토박이회’ 초대 회장으로 오랫동안 모임을 이끌었던 김성환(85세) 씨의 증언에 따르면 장충체육관 뒤편의 지금의 장충고등학교 인근에 채석장이 있었다고 한다. 김성환 씨는 어렸을 때 이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양도성을 처음 쌓은 태조 대에 성돌은 공사장 인근에서 캐서 썼다. 세종 대에도 그랬다. 그렇다면 남산 구간의 한양도성은 장충고등학교 인근에 있었다던 채석장에서 돌을 캐어 썼을지도 모른다. 물론 도성이나 성저십리에서는 돌을 뜨거나 켤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채석장이 예전부터 있었다면 이를 발굴 조사하여 새로운 역사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록

1. 한양도성 살펴보기
2. 한양도성 순성길
3. 한양도성 순성 안내도

1. 한양도성 살펴보기

한양도성의 전체 길이는 18.627km, 성벽의 높이는 5~8m다. 성곽은 내사산인 백악산(북악산), 낙타산(낙산), 목멱산(남산), 인왕산의 능선을 따라 쌓았다. 자연의 형상과 일체화하여 지었고,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8개의 성문과 2개의 수문을 내었다.

그러나 한양도성은 구한말 근대화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평지 구간의 성벽은 대부분 철거되었다. 현재는 13.370km의 성벽만 남아 있는데, 세계에 남아 있는 수도 성곽 중 가장 길다.

- 한양도성 전체 길이 : 18.627km
- 지형을 고려한 실제 길이 : 19.151km
- 현재의 성벽 길이 : 13.370km
- 멸실된 성벽 길이 : 5.257km
- 보수 및 복원공사 구간 길이(1961~2012년) : 12.854km
- 성벽 높이 : 평균 5~8m
- 성문
 - 사대문: 흥인지문(동대문), 돈의문(서대문), 숭례문(남대문), 숙청문(북대문)
 - 사소문: 흥화문(혜화문), 소덕문(소의문), 광희문(수구문), 창의문(자하문)



태조 대의 축성방식(1390년대)



세종 대의 축성방식(1420년대)



숙종 대의 축성방식(1700년대 초)



순조 대 이후의 축성방식(1800년대 초)

태조 대의 축성방식(1390년대)

한양도성을 처음 쌓을 때는 토성과 석성으로 쌓았다. 평지(平地)는 토성으로, 산지(山地)는 석성으로 쌓은 것이다. 산지 구간에 쌓은 석성은 편마암과 화강암을 주로 사용하였고, 자연석에 가까운 돌로 허튼층쌓기를 하였다. 일직선으로 쌓은 것이 아니어서 줄눈이 일정하지 않고, 돌 사이의 틈은 작은 돌로 메웠다.

시대별 축성방식

세종 대의 축성방식(1420년대)

태조 대에 처음 쌓은 평지의 토성을 석성으로 고쳐 쌓았다. 면석(面石)을 네모반듯하게 다듬어 썼고, 아랫부분은 큰 돌을 놓고 위쪽으로 갈수록 작은 돌을 쌓아 빈틈없이 쌓았다.

숙종 대의 축성방식(1700년대 초)

성돌이 작아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면석의 크기를 가로 세로 40~45cm 내외로 하여 거의 같은 정방형으로 다듬어 썼다. 벽돌처럼 견고하게 쌓았고, 지형의 경사도와 관계없이 줄눈을 수평으로 맞추었다.

순조 대 이후의 축성방식(1800년대 초)

숙종 대의 방식을 계승하여 쌓았다. 면석은 50~60cm로 하여 숙종 대보다 조금 크게 하였고, 정방형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썼다.

성벽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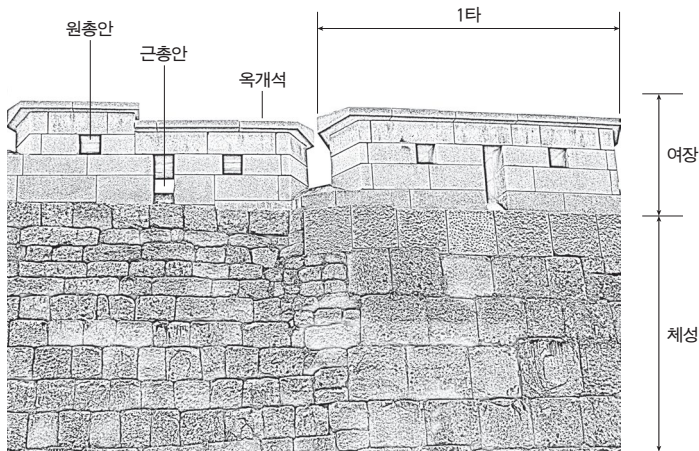
한양도성은 땅을 다진 뒤 지땃돌을 놓고, 그 위로 돌을 쌓아 올려서 지었다. 돌 틈은 잔돌과 흙으로 채우며 체성(體城)을 만들었고, 체성 위에 여장(女牆)을 쌓은 뒤 옥개석을 덮었다.

성벽은 체성과 여장으로 구분한다. 체성은 성벽의 근본인 몸체를 이루는 부분이며, 여장은 체성 위에 낮게 쌓은 담장을 말한다.

여장은 ‘성가퀴’ 또는 ‘성첩’이라고도 한다. 몸을 숨기고 총이나 화포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시설인데, 하나의 여장을 ‘1타’라고 한다.

1타에는 근총안을 중앙으로 하여 양 옆으로 원총안 2개 등 총안이 모두 3개 있다. 근총안은 가까운 곳을 쏘는 총안, 원총안은 먼 곳을 쏘는 총안을 말한다.

여장 위에는 옥개석을 올렸다. 옥개석은 여장 위에 올린 지붕이며, 빗물이 체성으로 흘러드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유사시에는 지붕돌을 밀어 성을 타고 올라오는 적병을 공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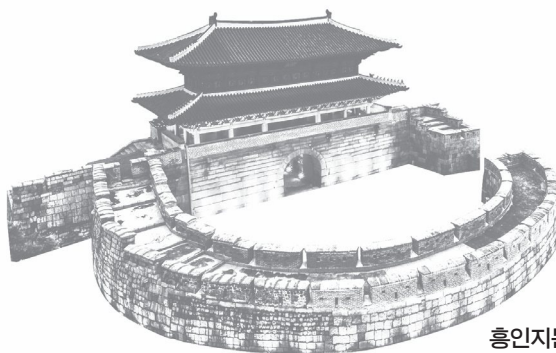
여장과 체성

한양도성은 웅성과 치성, 곡성, 성랑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도성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방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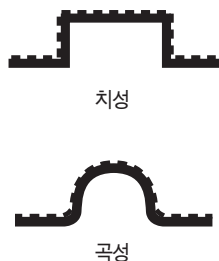
방어시설

웅성(甕城)

성문 앞에 반원형으로 쌓은 작은 성으로, 모양이 마치 항아리와 같아서 웅성이라 한다. 성문에 접근한 적을 에워싸고서 측면과 후방에서 공격할 수 있는데, 웅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공격하기가 쉽다. 또 그 안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성문을 호위하거나 방어를 할 수도 있다.



홍인지문 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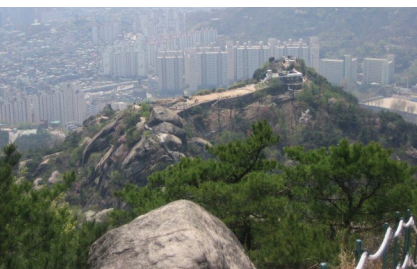


치성(雉城)

성곽 일부를 바깥으로 네모나게 돌출시켜 만든 것으로, 적을 관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면에서 적을 공격할 수도 있다. 여기에 누각이 있으면 ‘포루’라고 하며, 치성은 영조 대에 광희문 북쪽에 6개를 만들었다.

곡성(曲城)

성곽을 쌓을 때 바깥쪽으로 굽은 자연 지세에 맞추어 곡선으로 쌓은 성벽으로, 치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 내사산에서 갈라져 나간 산줄기가 도성을 위협하는 형세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고, 백악산 동측 정상에 백악 곡성, 인왕산 서측 정상에 인왕산 곡성이 있다.



인왕산 곡성

성랑(城廊)

도성을 수비하는 군사의 숙소이자 초소로, 영조 대에 성벽에서 5보(步) 떨어진 곳에 세웠다. 돈의문에서 숙정문에 이르는 훈련도감 담당 구간에 24개, 돈의문에서 광희문에 이르는 금위영 담당 구간에 24개, 숙정문에서 광희문에 이르는 어영청 담당 구간에 27개 등 75개가 있었다.

도성문

성문은 사대문(四大門)과 사소문(四小門) 등 8개의 문을 두었다. 사대문은 도성의 큰 성문인 홍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청문이며, 사소문은 홍화문, 소덕문, 광희문, 창의문이다. 사대문의 동·서·남 세 문은 유교의 덕목인 인의예지(仁義禮智)에서 이름을 지었고, 북문인 숙청문은 풍수지리설에 따라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도성에서 발원하여 성 밖으로 흘러나가는 물길을 위해 홍인지문 남쪽

으로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을 내었다.

왕이 능행(陵幸)을 위해 도성 밖으로 행차할 때는 능의 위치에 따라 승례문과 흥인지문, 돈의문으로 나갔다. 기우제를 지내거나 군사훈련을 참관할 때는 창의문과 홍화문을 이용했고, 중국 사신들은 승례문과 돈의문, 여진족 사신들은 홍화문으로 드나들었다.

도성을 드나드는 이들은 모두 성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었다. 성문을 닫는 시각은 인정(人定, 밤 10시경), 여는 시각은 파루(罷漏, 새벽 4시경)라 했다. 인정에는 28번, 파루에는 33번의 종을 쳤다. 28번은 28수의 별자리에, 33번은 제석천(帝釋天)이 이끄는 33천(天)에 고하는 의미였다.

성문은 의례를 행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장마로 수재가 나면 비가 멎기를 비는 영제(禳祭)를 지냈는데, 흥인지문과 승례문, 돈의문, 숙청문에서 영제를 지내 ‘사문영제(四門禳祭)’라 하였다. 또한 음력 선달그믐에는 궁중에서 모든 재앙과 병마의 근원인 잡귀를 몰아내고 새해의 복을 비는 나례(儺禮)를 지낸 뒤 궁중의 액을 모아 성문 밖으로 몰아내는 의식을 하였다.

흥인지문(興仁之門)

한양도성의 동쪽 문으로 동대문이라고도 한다.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1호로 지정되었다. 흥인지문은 1397년(태조 6) 도성을 쌓을 때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에 세워졌다. 1452년(단종 1)에 고쳐 지었고, 1869년(고종 6)에 전반적인 개축을 하여 새로 지었다. 한양도성의 여덟 개 성문 중 유일하게 웅성을 갖추고 있으며,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져 시대적 변천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흥인문’이었는데, 낙산의 지세가 약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맥을 뜻하는 ‘지(之)’ 자를 넣어 지금의 흥인지문이 되었다.



창의문도
(장시홍 작, 18세기)



흥인지문
웅성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온다.

돈의문(敦義門)

한양도성의 서쪽 문으로 서대문이라고도 한다. 1396년(태조 5) 도성을 쌓을 때 세워졌으나 1413년(태종 13) 폐쇄되었고, 그 북쪽에 서전문(西箭門)을 새로 지어 출입하였다. 1422년(세종 4) 다시 서전문을 헐고 그 남쪽 마루에 새 성문을 쌓고 돈의문이라 하였고, 1711년(숙종 37)에 보수하여 고쳐 지었다. 그러나 1915년 일제의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철거되어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다만 경희궁터에서 독립문 쪽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쯤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의문 현판

송례문(崇禮門)

한양도성의 남쪽 문으로 남대문이라고도 한다.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다. 1396년(태조 5)에 짓기 시작하여 1398년(태조 7)에 완성하였고, 1448년(세종 30)에 개축하였다. 풍수지리에 따라 편액도 다른 문들과는 달리 세로로 썼고, 오행에서 남쪽을 가리키는 예(禮)를 숭상한다는 의미를 담아 송례문이라 하였다.

송례문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이다. 팔대문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조선 초기의 건축양식이 잘 나타나 있다. 송례문은 한국전쟁 때 일부 훼손되어 1961년부터 1963년까지 해체를 한 뒤 복원하였다. 이때 풍화된 석재와 썩은 목재를 바꾸고 옛 설계대로 복원하였는데, 복원 공사를 하면서 옛 건축 모습을 볼 수 있는 상량문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송례문은 2008년 2월 10일 화재로 2층 문루가 불에 타고 말았다. 1층 문루도 일부 불에 탔는데, 다행히 홍예문과 석축은 남



방화로 소실되어 복원한 송례문 문루의 아름다운 야경

았다. 화재 이후 2010년 2월 복원 공사를 하여 2013년 5월 4일에 완공하였다. 복원은 역사적 고증을 토대로 전통 방식을 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리면서 일제강점기에 변형된 부분들을 되돌려 놓았다.



숙청문

숙청문(肅淸門)

한양도성의 북쪽 문으로 북대문이라고도 한다. 1396년(태조 5) 경복궁의 주산(主山)인 백악산(白岳山) 동쪽 고개에 지었는데, 백악산 동쪽 고개와 서쪽 고개는 경복궁의 양팔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문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1413년(태종 13) 창의문(彰義門)과 함께 폐쇄한 뒤 소나무를 길에 심고서 통행을 금하였다. 또한 높은 산 중턱에 자리하여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 영구히 닫아 두었다. 다만 가뭄이 심할 때면 이 문을 열고 숭례문을 닫는 풍속이 있었는데, 북은 음(陰)이며 남은 양(陽)인 까닭에 가뭄이 심하면 양을 억제하고 음을 부양한다는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숙청문이 음방(陰方, 여자의 방위)에 있다 하여 이 문을 열어 놓으면 장안의 여자가 음란해 지므로 항상 문을 닫았다는 속설도 전한다.

숙청문은 1504년(연산군 10) 동쪽으로 조금 옮겨 세웠다. 이후 1976년 백악산 일대의 성곽을 복원하면서 편액을 ‘숙정문(肅靖門)’으로 하여 걸었다. 어느 때부터 무슨 이유로 숙정문으로 개칭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523년(중종 18) 중종실록 이후 역대 각 실록에 모두 숙정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531년(중종 26)에는 북정문(北靖門), 1587년(선조 20)에는 숙정문(肅靜門)으로도 표기되어 있는데, ‘정숙하고 고요한 기운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숙정문(肅靖門)’으로 명명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홍화문(弘化門)

1397년(태조 5) 도성을 에워싸는 성곽을 쌓으면서 세웠다. 동문과 북문 사이에 자리하여 동소문(東小門)이라고도 한다. 1483년(성종 14)에 새로 창건한 창경궁의 동문을 ‘홍화’라 이름 지어 1511년(중종 6) 이름을 혜화문(惠化門)으로 고쳤다. 그러나 1928년 일제강점기에 혜화동과 돈암동 사이에 전차 길이 나면서 헐렸다. 지금은 문이 있던 위치(서울 성북구 동소문동)만 알려져 있고, 관련된 유적은 남아 있지 않다. 이후 1992년 복원 공사를 시작하여 1994년 원래 있던 자리에서 북서쪽으로 13m 옮겨서 완공하였다. 이 문은 지금의 수유리를 거쳐 의정부와 양주, 포천 방면으로 통하는 중요한 출입구였다. 북대문이 일반인의 통행을 금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또한 천장에는 봉황을 그려 그 일대의 새들을 보호했다는 말이 전한다.



혜화문

소덕문(昭德門)

속칭 서소문(西小門)이라고도 한다. 숭례문과 돈의문 사이, 지금의 서소문동 큰길에 자리하고 있었다. 광희문과 함께 시신을 성 밖으로 내보내는 문이었는데, 1914년 일제의 의해 그 부근의 성곽과 함께 완전히 철거되어 모습은 사진으로만 전한다.

1396년(태조 5)에 지을 때는 소덕문이라 하였다. 처음에는 토성이었으나 1422년(세종 4)에 석성으로 개축하였다. 1472년(성종 3)에 예종비(睿宗妃) 한씨(韓氏)의 시호를 소덕왕후(昭德王后)라 하여 이를 피해 이름을 소의문(昭義門)으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영조실록에 1744년(영조 20) 문루를 지은 뒤 이름을 ‘소의’로 고쳤다는 기록도 있다.



소덕문

소의문, 서소문이라고도 한다. 광희문과 함께 시신을 성 밖으로 내보내는 문이었다. 현재는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표석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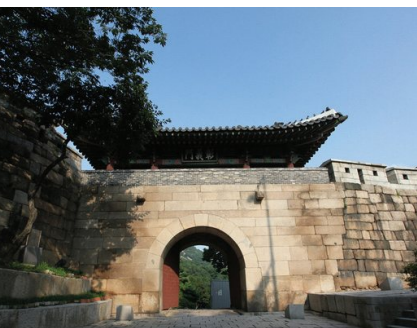
(출처-서울역사박물관)

광희문(光熙門)

수구문(水口門) 또는 시구문(屍口門)이라고도 한다. 서소문과 함께 시신을 내보내던 문이다. 1396년(태조 5)에 지었고, 1711년(숙종 37)에 고쳐 쌓았다. 1719년(숙종 45)에 문루를 짓고 광희문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광희문은 일제강점기에 전차 선로를 놓으면서 성곽을 철거할 때도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문루가 파괴된 상태로 방치되었다. 이를 1975년에 원래 위치에서 남쪽으로 15m 옮겨서 복원하였다(서울 중구 광희동). 복원할 때 문루 12평을 새로 지었고, 주변의 200평을 녹지화하였다.

창의문(彰義門)



창의문

자하문(紫霞門)이라고도 한다. 1396년(태조 5)에 지었으나 경복궁을 내리누르는 위치에 있다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1413년(태종 13) 폐쇄하고 출입을 금하였다. 다만 왕명으로 일시적인 통행은 허가하였고, 국가적인 공역(工役)을 수행할 때처럼 긴요할 때에 한하여 성문을 열었다. 현재의 문루는 1741년(영조 17)에 세웠는데, 사소문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어 중요한 유적이다. 1956년 문을 보수할 때 장여 속에서 묵서(墨書)가 나왔는데, 여기에 1741년 6월 16일에 상량(上樑)하였다고 적혀 있다. 2015년 12월 2일 보물 제 1881호로 지정되었다.

한양도성은 순라를 돌며 관리했다. 도성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화재와 도둑을 막기 위해서였다. 세종 때에는 도성을 고쳐 쌓으면서 성벽 안팎에 순찰을 도는 길(순심로)을 만들었다. 조선 초기에는 순청(巡廳)을 설치하여 순찰하였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삼군문이 도성 수비를 전담하면서 삼군문과 포도청이 나누어 순찰하였다. 순찰 부대는 '패(牌)'라 하였는데, 현종 때에는 삼군문에서 8패(8조)로 나누어 순찰을 돌았다. 각 패는 성안은 10여 명, 성 밖은 6명 내외의 군사로 구성하였고, 사흘에 한번씩 교대로 순찰을 돌았다.

도성 순라

조선시대에는 봄과 여름에 한양도성의 성벽을 따라 돌며 경치를 감상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를 '순성(巡城)'이라 하였는데, 새벽에 길을 나서 해가 저물어야 끝나곤 했다.

도성 순성

도성을 순성하는 풍습은 전통으로 내려와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졌다. 1916년 5월 5일자 매일신보에는 순성 광고가 실려 있다. '함께 할 사람들은 힘써 참가하라(同好의 人士는 奮勵參加하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 광고를 보면 남대문소학교에 모여서 오전 8시에 남대문을 시작으로 서소문, 서대문, 불암, 무학현, 인왕산, 창 의문, 백악산, 숙정문, 성북동, 동소문, 낙산, 동대문, 광희문, 남소문, 장충단, 남산, 한양공원까지 순성한 뒤 마친다고 하였다. 건강한 청장년이라면 특별한 준비물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숙정문에서 점심을 먹은 뒤 도성에 관한



1916년 5월 5일 매일신보의 한양 도성 순성 광고

강연을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그 며칠 뒤인 1916년 5월 14일에도 매일신보에 순성 광고가 등장한다. ‘오늘은 순성하세(今日は 巡城하세)’라는 제목으로 실린 이 글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기사로 보인다. 큼지막한 제목 밑으로는 ‘오늘 일요일은 한양성을 돌면, 오백년의 역사도 생각하면서, 유쾌히 지내는 몇 가지 주의’라는 부제도 달려 있는데, 글을 보면 비바람으로 미루었던 순성을 다시 한다는 내용이다.

이 글은 ‘인왕산의 우리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인왕산 성벽 사진까지 실고 있다. 글의 내용도 그 당시 순성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데, 당시의 모습을 그려보는 의미로 매일신보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겨본다.

오늘은 순성하세

기다리고 기다리던 경성의 순성도 오늘 14일의 일요일을 기약하여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번 주일에 공교히 비바람으로 인하여 연기가 되었지만은 그로 인하여 경성의 성벽에 관한

▲ **각 방면의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전번의 유감을 갚은 듯이 생각됩니다. 경성측후소의 관측한 바를 의지한즉 일요일의 천기는 염



1916년 5월 14일 매일신보의
한양도성 순성 기사

려없다 한즉, 당 한양 사십 리의 성벽을 용쾌히 돌면서 다리 아래의 새 녹음을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못하도록 상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인왕산 북악산 남산면 상상봉에서 첫 여름의 훈풍을 쏘이면서 굽어보는 경치는 실로 장절 쾌절한 감동을 자아냅니다. 다리가 건강함을 자랑하는 청년제군은 서로 다투어 이번 길을 같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 **출발은 오전 8시** 그 전 7시 30분에는 부전면화제조소의 화포를 한양공원에서 올려 집합하는 신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집합하는 처소는 남대문소학교, 회비는 한 푼도 요하지 아니 하며, 점심과 물통을 가지고 오시라 함은 미리 기록하여 두었지만은, 길을 인도할 사람은 전후 두 번이나 실지로 답사를 시험한 본사의 사원이 담당하기로 되었습니다. 행렬의 선두에 옛날의 순성놀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를 든 사람과 구악대가 나가며, 길은 인왕산 북악산 남산의

▲ **세 곳이 임한 길**이오, 그 외에는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 그러나 인왕산의 산꼭대기에는 수십 장의 절벽에 임한 어려운 길이 있는 고로 각기 매우 주의를 하지 아니 하면 안 되겠습니다. 더구나 행렬의 순서를 경쟁하는 의기로 내가 먼저 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앞을 서라 하여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삼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또는 길에 위험한 곳에는 붉은 형짚을 달고, 길을 잃기 쉬운 곳에는 흰 끈을 놓아 있지만은 아무쪼록 인도하는 사람의 가는 뒤로 따라가셨으면 좋을 것이올시다. 그 중에 인왕산과 같은 데는 다른 길로 잘못 들면 그릇하여 짐승을 잡는 함정에 빠질

▲ **위험도 있은즉** 반드시 단체의 한 사람 되는 규례를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도로는 아무쪼록 순성의 흥취를 감하지 않도록 주의하지만은 남의 사유지라던가 시가지와의 관계상 극히 소부분은

성벽을 떠나며 또는 성벽의 한편으로 돌며 혹시 바깥 편으로 돌지 아니 하면 안 될 곳도 있습니다. 또 중로에는 관유사유의 식림지에 사방공사를 설비한 곳도 있고, 또 송림 사이로 가는 일도 있는즉 아무쪼록 덕의를 지켜 손상치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희망하며, 신을 것은 양해라도 넉넉하겠지만은 중로에 이끼가 많은 사이나 암석의 틈을 걸어가지 아니 하면 안 될 곳도 있는즉

▲ **짚신이나 미투리가 제일 편리할 듯합니다.** 단체가 경복궁 뒤의 북악산을 넘어서 정북의 숙정문에 도착하여서는 그곳에서 점심을 먹기로 작정하여 차는 준비하였습니다. 물은 산록의 삼청동에서 길어 올린 감로 같은 약수, 옛날에 어수를 봉하여 유명하던 형에 우 물의 옥천을 길어 올린 것인 고로 아주 맛이 좋을 것이요. 이곳에서 육군 포병 정령 어담(魚潭) 씨의 강화를 들은 후 다시 동소문으로 향하여 출발하면 그로부터 길이 매우 편하게 되어 낙산으로 동대문을 지나 장충단의 언덕에 나오면 거기도 차를 준비하여 있습니다. 일행은 다시 남산 산꼭대기로부터 다리 아래의

▲ **한강을 바라보며** 한양공원으로부터 최초의 출발하던 남대문에 돌아옵니다. 또 도중의 만일을 염려하여 영목 칠성당의원에서 구호반의 사람도 동행합니다. 어찌하였던지 순성의 청쾌한 노름은 작금 비상한 환영으로 실세의 성황을 가히 기약하겠습니다. 한양 오백년의 감상을 옛 성벽의 아래에 찾는 것도 또한 흥미 깊은 일이 아닌가.

▲ **옛날의 순성은 신앙적으로(古時의 巡城은 信仰的으로)**

옛날에는 순성이 성행

이번의 순성은 옛날에도 풍성히 행하던 바이라. 더구나 옛날에 과거를 행하였을 때에는 당시의 고등문관 후보자가 성히 순유를 행하였더라. 순로는 서대문이나 또는 동대문을 시초로 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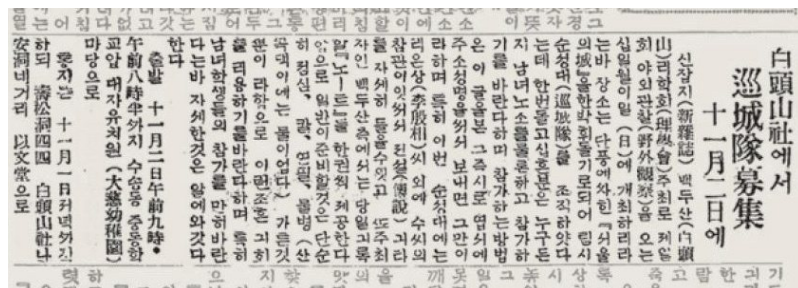


남산 백범광장에서 숭례문 쪽으로
내려가는 한양도성 순성길

▲ 성벽을 한번 돌아가시고 다시 서대문으로부터 동대문, 동대문으로부터 서대문까지 돌았는데 이것은 동그란 데에 가운데를 뚫어 쫓은 모양같이 되어 ‘中’자를 놓고 과거의 점이 되면 매우 길하다고 기꺼워하였던 것이다. 지금의 백작 이완용 씨 자작 박제순 씨 자작 임설준 씨 등도 청년시대에는 매우 많이 놀러다녔던 모양이라. 그러나 순성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꼭 하루에 마치지 아니하면 효험이 없는 것인즉 그것이 또한 재미있는 규정이라 생각하노라. 그 중에는 종로의 상인들도 자기 상점의

▲ 운수를 축수하노라고 남몰래 가만히 성벽을 한번 도는 등 옛날에는 순성을 일종의 신앙으로 여겼던 모양이라. 지금은 성벽의 각 처가 매우 퇴폐하였지만은 옛날에는 성의 동서남북에 영문을 두고, 또한 백간만큼씩 병대의 수직 처소가 있었던 바, 동편을 금위영 서편을 어영청 남편을 훈련도감 북편을 충무청이라 일컬었고, 또 중앙에는 용호영이라는 것을 두었었는데, 그때는 양반의 자제들도 성의 안쪽으로 매우 잘 돌아다녔던 것이다.

순성 광고는 1930년 10월 31일 동아일보에서 또 볼 수 있다. ‘백두산사(白頭山社)에서 순성대(巡城隊)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11월 2일에 순성을 한다는 내용이다. 백두산이학회(白頭山理學會) 주최로 가을 단풍에 물든 서울의 성(도성)을 한 바퀴 도는 제1회



1930년 10월 31일 동아일보의
한양도성 순성 광고

야외관찰을 개최한다는 것인데, 특히 이은상(李殷相) 씨 외에 저명한 인사가 참관하여 도성에 얹힌 전설 등을 자세히 들을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백두산이학회는 소년소녀를 대상으로 과학을 전파하는 학회였다. 이학을 지도할 목적으로 야외관찰, 과학영화회, 과학동화, 실험회, 강연회, 전람회, 발표회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였는데, 1930년 10월 20일 소년소녀 과학 잡지 <백두산(白頭山)>을 창간하고 이를 기념하여 도성 순성을 개최한 것이다.

도성 순성은 일제강점기에도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광고를 낼 정도였으니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성 순성은 일제가 한양도성을 노골적으로 파괴하면서 그 맥을 잇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도성 순성은 광복 후 한양도성의 참모습을 복원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다시 활기를 찾았다. 한양도성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숨을 쉬면서 희미하게 사라져간 옛 풍습도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물론 중구문화원은 한양도성을 둘러보고 답사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순성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의 기획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순성의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다.



소년소녀 과학 잡지 <백두산>
1931년 2월호

2. 한양도성 순성길

한양도성은 백악산(북악산), 낙타산(낙산), 목멱산(남산), 인왕산의 능선을 따라 쌓았다. 그래서 순성길도 북악산 구간, 낙산 구간, 남산 구간, 인왕산 구간으로 나누어 걸으면 한양도성을 하루에 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구간들을 다 돌아보려면 한양도성의 참모습과 의미를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하루 내내 걷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세분하여 둘러보면 한양도성의 모습을 온전하게 볼 수 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를 마련하여 한양도성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해설사와 함께 한양도성을 둘러보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한양도성의 역사와 문화, 인문지리 등 다양한 테마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중구문화원에서는 한양도성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 ‘문화재 탐방교실’을 수시로 운영하며 중구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있다.

먼저 서울시가 추천하는 여섯 구간을 소개한다.



남산 자락의 한양도성 순성길
야경

백악 구간

창의문에서 시작하여 숙정문, 와룡공원을 거쳐 혜화문에 이르는 구간(4.7km, 약 3시간 소요).

낙산 구간

혜화문에서 시작하여 낙산공원, 한양도성박물관, 동대문성곽공원을 거쳐 흥인지문에 이르는 구간(2.1km, 약 1시간 소요).

흥인지문 구간

흥인지문에서 시작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광희문을 거쳐 장충체육관에 이르는 구간(1.8km, 약 1시간 소요).

남산 구간

장충체육관에서 시작하여 장충체육관 뒷길, 나무계단길, N서울타워를 거쳐 백범광장에 이르는 구간(4.2km, 약 3시간 소요).

송례문 구간

백범광장에서 시작하여 송례문, 소의문 터, 정동을 거쳐 돈의문 터에 이르는 구간(1.8km, 약 1시간 소요).

인왕산 구간

돈의문 터에서 시작하여 월암근린공원, 인왕산 순성길을 거쳐 창의문에 이르는 구간(4.0km, 약 2시간 30분 소요).

여기서는 흥인지문 구간을 시작으로 하여 남산 구간, 숭례문 구간으로 이어지는 중구의 순성길을 소개하고, 그 뒤로 이어지는 백악 구간, 낙산 구간, 인왕산 구간을 소개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흥인지문 구간과 숭례문 구간은 멸실된 구간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순성길 곳곳에 한양도성의 역사와 자취가 배어 있다. 비록 멸실되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옛날 한양도성을 쌓았던 시대와 사람들을 그려가며 걷는다면 지금은 사라진 역사가 가슴에 선명히 새겨질 것이다.

흥인지문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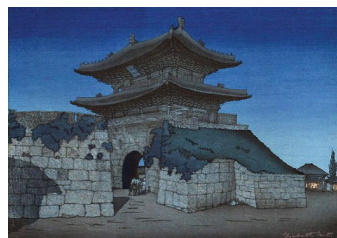
흥인지문에서 광희문을 거쳐 장충체육관에 이르는 구간이다. 흥인지문과 광희문 일대는 지대가 낮아서 도성의 물이 이곳의 수문을 통해 흘러나갔다. 그러나 흥인지문에서 장충동에 이르는 성벽은 일제강점기에 전차 개설과 도로 건설, 경성운동장 건설로 훼손되었고, 광복 후에는 도로 확장과 주택 건설 등으로 대부분이 철거되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역사의 흔적과 마주할 수 있다.



사대문 안에서 바라본 흥인지문

흥인지문

우리나라 보물 제1호로, 1869(고종 6)년에 개축하였다.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이 잘 드러나 있으며, 지대가 낮은 곳에 성을 쌓아서 군사적으로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팔대문 중 유일하게 웅성을 쌓았다. 1907년에 좌우 성벽이 헐리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달빛 아래 서울의 동대문’

한국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세계에 소개한 서양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 1919년 한국을 방문한 뒤 쓴 회고록 〈옛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1946년)에 실려 있다.

이간수문과 오간수문

흥인지문과 광희문 부근은 도성에서 지대가 가장 낮았다. 내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은 모두 수문을 통해 도성 밖으로 흘러나갔다. 이간수문은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한 뒤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관중석 밑에 매몰된 채로 발굴되었다. 다행히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복원하였고, 오간수문은 추정하여 청계천에 재현해 놓았다. 오간수문이 있던 터는 사적 제461호로 지정되었다.



청계천

남산에서 흘러내려온 한양도성의 물은 이간수문과 오간수문을 통해 청계천으로 흘러들었다.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만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 자리에는 훈련도감의 별영인 하도감이 있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지으면서 철거한 동대문운동장 자리에 만들었다. 조선 후기에는 훈련도감의 별영인 하도감과 화약 제조 관서인 염초청이 있었다. 2007년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한 뒤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땅 속에 묻혀 있던 성벽 일부와 이간수문, 치성, 하도감 유구 등을 발굴하였는데, 이 유물들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동대문역사관에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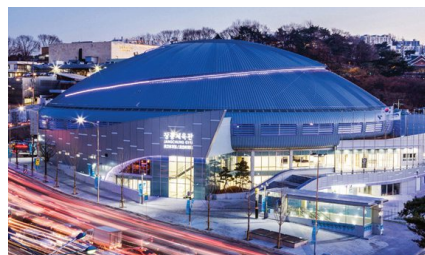
광희문

한양도성의 물이 빠져나가는 곳에 성을 쌓아서 수구문이라고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일부 헐리고 1960년대에도 퇴계로를 내면서 반쯤 헐렸는데, 1975년 원래의 자리에서 남쪽으로 15m 떨어진 현재의 자리에 중건하였다.

장충체육관

광희문 성벽은 장충동 주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지금은 헐리고 볼 수 없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이 일대에 문화주택단지를 조성하였는데, 이때 한양도성의 상당 부분을 훼손했다. 그리고 광복 후에는 1970년대까지 주택을 지으면서 성벽을 파괴하고 허물었다. 지금도 이 일대에서는 한양도성의 성돌을 담장이나 축대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체육관인 장충체육관은 1955년 ‘육군 체육관’으로 만들었다. 이를 1959년 서울시가 인수하여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한 뒤 1963년 장충체육관으로 다시 열었다. 장충체육관은 우리나라 실내 스포츠의 주요 무대였으며, 지금도 해마다 팬들의 성원 속에 프로배구 리그를 비롯한 경기와 축제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 실내 스포츠의 요람 장충체육관. 리모델링을 하여 2015년 1월 새롭게 태어났다.

남산으로 오르는 한양도성 순성길.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의 순성길은 아름답기만 하다.



남산 구간

장충체육관 뒷길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남산은 서울의 안산(案山)이자 중심점이다. 그래서 이곳에 목멱신사가 있었고, 봉수대를 설치하여 나라와 백성들을 지켰다. 그러나 남산 일대의 한양도성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파괴되었다. 이에 1970년대부터 성곽을 보존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벌였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을 통해 옛 모습을 복원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을 바라보고 왼편으로
나 있는 한양도성 순성길

장충체육관 뒷길

장충체육관 뒷길은 대부분 석성으로, 세종 때 새로 쌓은 것이다. 천자문의 47번째 글자인 ‘곤(崑)’ 자가 새겨진 각자성석을 만날 수 있는데, 이 구간은 경상도의 역부들을 동원하여 쌓았다.

남소문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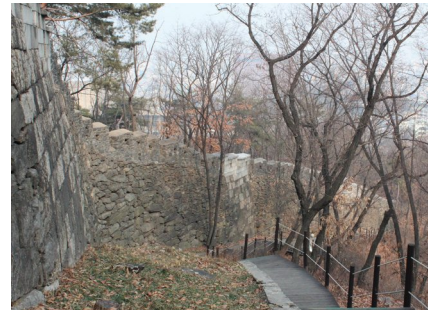
남소문은 광희문을 통해 한강으로 가는 길이 멀어서 1457년(세조 3)에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1469년(예종 1)에 폐쇄하였는데, 이후 계속 닫혀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철거되고 말았다. 지금은 반얀트리클럽&스파 서울 뒷문 오르막길에 남소문 터 표석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장충단길

장충단길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문과 남산 제이 그랜 하우스 담장, 축대 등은 한양도성의 성돌을 옮겨 쌓은 것이다. 이곳에서도 각자성석을 볼 수 있는데, 남산 제이 그랜 하우스 담장에는 ‘경주시(慶州始)’가 새겨진 성돌이, 자유센터 출입구 축대에는 ‘강자육백척(崗字六百尺)’이 새겨진 성돌이, 반얀트리클럽&스파 서울 뒤편 축대에는 ‘검자육백척(劍字六百尺)’이라 새겨진 성돌이 있다.

남산 나무계단길

국립극장을 바라보고 왼편으로 들어서면 나무계단길로 만들어진 한양도성 순성길이 나온다. 계단으로 남산까지 오르는 길로, 태조 대에 처음 쌓은 성벽이 길게 이어져 있다. 한양도성을 쌓은 지 60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쌓은 성벽이 남아 있는데,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남산으로 오르는 나무계단 순성길

서울 중심점

남산은 서울의 중심이다. 실제로 위성항법장치(GPS)로 측량한 결과 남산 정상부가 서울의 중심점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남산 정상에 ‘서울 중심점’을 알리는 조형물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를 보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다.



서울 중심점

목멱신사 터

남산 팔각정 자리는 목멱신사가 있었던 곳이다. 태조는 남산을 목멱대왕으로 삼고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는 제를 지냈는데, 그래서 목멱신사를 국사당(國師堂)이라고 한다. 목멱신사는 1925년 일제강점기에 인왕산 기슭에 옮겨졌다. 광복 후에는 목멱신사 자리에 팔각정을 짓고서 이승만 대통령의 호를 따 ‘우남정’이라고 하였는데, 4·19 혁명 후에 이름을 팔각정으로 바꾸었다.

목멱산 봉수대

목멱산 봉수대는 조선시대 전국에서 올라오는 봉수의 종착점이었다. 목멱산 봉수대는 제1봉수부터 제5봉수까지 모두 5개가 있었는데, 현재의 남산 봉수대는 1993년에 제3봉수를 복원한 것이다.

남산 회현자락 유구 발굴현장

1925년 일제는 지금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일대에 조선신궁을 지으면서 남산의 성곽을 파괴하고 훼손했다. 2013년 서울시는 한양도성 보존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 일대를 발굴하였는데, 땅 속에 묻혀 있던 성곽의 기저부를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때 발굴한 성곽 기저부는 조선시대의 축성기법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백범광장 일대

남산의 백범광장 주변에는 김구 선생과 이시영 선생, 안중근 의사의 동상 등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기념물이 많다. 조선신궁이 있던 자리에 독립운동가들의 동상을 세워 일제의 잔재를 치운 것이다. 백범광장 일대의 한양도성은 조선신궁을 지으면서 모두 철거되거나 훼손되었다. 그래서 다시 복원하여 쌓았는데, 훼손이 심해 원형을 살릴 수 없는 구간에는 성벽이 있던 자리라는 표시를 해 놓았다.



안중근 의사의 '견리사의 견위수명 (見利思義 見危授命)' 탑.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함을 보거든 목숨을 주라'는 뜻이다.

백범 김구 선생 상. 백범광장 일대의 한양도성은 일제가 조선신궁을 지으면서 모두 철거하거나 훼손하였다. 그래서 조선신궁이 있던 자리에 독립운동가들의 동상을 세워 일제의 잔재를 치웠다.



송례문 구간

백범광장에서 송례문을 거쳐 돈의문 터에 이르는 구간이다. 한양도성의 정문인 송례문은 한강과 도성을 최단거리로 잇는 문이어서 사람의 통행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1907년 일제에 의해 양쪽 성벽이 철거되었고, 이후에도 남대문로 주변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때마다 성벽이 철거되어 지금은 옛 성벽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는 밀레니엄 서울 힐튼과 SK남산빌딩 뒤쪽의 성벽,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리브타워로 이어지는 길가에 성벽 일부가 담장처럼 남아 있으며, 창덕여자중학교 담장에서도 성벽을 볼 수 있다.

송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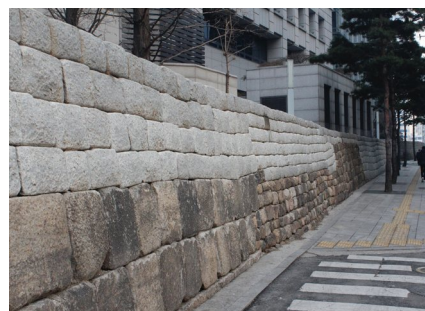
국보 제1호로, 한양도성의 정문이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로, 1395년에 짓기 시작하여 1398년 완공하였다. 이후 1448년에 개축하였다. 그러나 1907년 일제에 의해 좌우 성벽이 헐렸다. 송례문은 2008년 2월 화재로 인해 2층 문루 90% 정도가 소실되었는데, 2013년 5월에 복구하였다. 이때 송례문 서쪽으로 16m, 동쪽으로 53m의 성벽을 연결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 부근 성벽

대한상공회의소 부근에는 한양도성의 성벽 일부가 담장처럼 남아 있다. 구한말 일제는 한양도성을 본격적으로 철거하며 훼손하였는데, 1907년 여기서부터 철거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옛 성돌의 흔적을 발굴하고서 그 위에 새로 몇 단을 쌓아 올렸다.

소의문 터

한양도성의 서남쪽에 있던 문이다. 1396년에 세웠는데, 광희문과 함께 성 밖으로 상여를 내보내던 문이었다. 그러나 1914년 일제



대한상공회의소 부근의 성벽. 일제가 훼손하고 남은 성벽을 보완하여 2005년에 새로 몇 단을 쌓아 올렸다.

가 시구개수사업을 시작하면서 헐어버렸고, 지금은 소의문 터를 알리는 표석만 있다.



서대문 성벽의 옛터

창덕여자중학교 담장

일제가 시구개수사업을 하면서 훼손한 성벽은 창덕여자중학교 담장에 일부 남아 있다. 이는 돈의문과 주변 성곽으로, 학교 담장에는 '서대문 성벽의 옛터'라는 안내문이 있다. 담장 아랫부분에 순조 대에 쌓은 성벽이 조금 남아 있다.

돈의문 터

한양도성의 서대문인 돈의문은 태조 대에 처음 세웠지만 그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돈의문은 1422년(세종 4)에 도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면서 새로이 세웠는데, 현재의 위치는 바로 이 돈의문 터다. 돈의문은 1915년 일제가 이 문을 지나는 전차를 개통하면서 해체하여 건축자재로 팔아버렸다. 지금은 돈의문 터에 공공미술품인 '보이지 않는 문'이 설치되어 있다.



돈의문 터

현재 돈의문 터에는 공공미술품인 '보이지 않는 문'이 설치되어 있다.



돈의문 터에서 인왕산을 넘어 율동주 시인의 언덕에 이르는 구간이다. 풍수상 우백호(右白虎)에 해당하는 인왕산은 거대한 바위산으로 치마바위, 선바위, 기차바위 등 기암괴석이 많다. 인왕(仁王)은 불교식 이름으로, 무학대사가 이 산을 주산으로 삼으면 불교가 융성할 것이라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인왕산 구간

월암근린공원 일대

월암근린공원을 만들면서 서울시 복지재단(구 기상청 건물)의 담장 축대 아래 묻혀 있던 성벽의 일부가 드러났다. 홍파동 홍난파 가옥 부근 연립주택 건물 주차장 뒤편에도 성벽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에 따라 최근에 성벽을 새로 쌓았다.

사직근린공원 부근

한양도성의 성 안과 밖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성 안쪽의 넓은 길에서는 도심의 고층빌딩을 바라볼 수 있고, 바깥쪽 오솔길에서는 담쟁이넝쿨과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성벽을 볼 수 있다.



옛 돌에 새 돌을 얹어 복원해 놓은
월암근린공원의 한양도성 순성길

인왕산 국사당

일제는 남산에 조선신궁을 지으면서 목멱신사를 인왕산으로 옮겼다. 이 신사가 인왕산 국사당이다. 국사당 위쪽에는 ‘선바위’가 있는데, 고깔을 쓰고 장삼을 입은 승려가 참선하는 모양이라서 선바위라 부른다. 선바위는 정도전이 한양도성의 경계를 정하면서 선바위가 있는 곳을 제외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이는 불교를 배척했기 때문이다.



큰 바위들과 어우러져 끊어질 듯 이어지는 인왕산 순성길. 석양이 드리운 한양도성이 몹시도 아름답다.

인왕산 순성길

인왕산은 화강암 덩어리로 이루어진 바위산이라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험준하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성벽 역할을 하였는데, 경사가 급한 곳은 자연 암반이 성벽 역할을 하였다. 큰 바위들과 어우러져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성벽은 한양도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인왕산 정상 가까이에선 무악재와 안산(무악) 방향으로 길게 돌출된 곳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곡성(曲城)을 쌓았다. 곡성은 주요 지점이나 시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지형에 따라 성벽의 일부분을 둥글게 돌출시킨 것을 말하며, 지금도 인왕산 곡성은 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인왕산 구간은 태조와 세종, 숙종, 순조 대의 성돌이 길게 이어져 있다. 인왕산 정상에서 치마바위를 지나면 탕춘대성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곳부터는 성 안팎으로 길이 나 있다. 성돌은 성 바깥길을 따라 걸으면 볼 수 있는데, 축성 시기별로 성돌을 보는 재미도 있다.

창의문

창의문은 인왕산과 백악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사소문 중 유일하게 문루가 남아 있는데, 이 문루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741년 (영조 17)에 다시 세운 것이다. 인조반정 때는 반정군이 이 문으로 도성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여 공신들의 이름을 새긴 현판을 걸어 놓았는데, 이 현판은 지금도 걸려 있다.

창의문에서 백악을 넘어 혜화문에 이르는 구간이다. 한양의 주산인 백악(북악산)은 내사산 중에서 가장 높다. 한양도성을 처음 쌓을 때 백악을 기점으로 하였고, 산세가 ‘반쯤 핀 모란꽃’에 비유될 만큼 아름답다.

백악 구간

백악 마루

창의문에서 백악 마루로 이어지는 구간은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성곽을 쌓아서 절경이 으뜸이다. 이 구간의 순성길은 안전을 위해 모두 계단을 만들어 놓았고, 돌고래 쉼터와 백악 쉼터에서 수려한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백악 마루는 한양도성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경복궁과 세종로는 물론 한강 건너 63빌딩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한양도성을 처음 쌓을 때 공사 구간을 97개로 나누어 구간마다 천자문 순서에 따라 한 글자씩 붙였는데, 이곳이 바로 시작 구간인 ‘천(天)’ 구간이다.

암문 밖 순성길

한양도성의 안과 밖에는 군사들이 순찰을 도는 순성길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어영청, 금위영, 훈련도감의 삼군문이 각각 8패



백악 마루 순성길



백악 마루로 가는 한양도성 순성길. 가파른 경사면이어서 절경이 으뜸이다.

씩 조를 이루어 도성 주변을 순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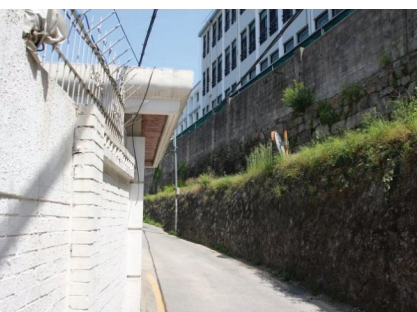
숙정문

백악 곡성

곡성은 인왕산과 백악에 하나씩 있다. 백악 곡성은 한양도성을 둘러싼 서울의 산세가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꼽힌다.

숙정문

한양도성의 북대문으로, 팔대문 중 유일하게 좌우 양쪽으로 성벽이 남아 있다. 1976년에 문루를 새로 지었다.



경신고등학교 담장으로
쓰인 한양도성 성벽

경신고등학교 뒷길에서 혜화문까지 이어지는 골목길

이 길은 비록 성벽이 심하게 훼손되어 군데군데 흔적만 남아 있지만 한양도성의 흔적들을 만날 수 있다. 경신고등학교 뒷길 초입의 성벽은 학교 담장으로 쓰였고, 학교 근처의 주택 담장에서도 축대로 사용된 성돌들을 볼 수 있다. 혜성교회 계단 길 양쪽에도 일부 성벽이 남아 있고, 인근의 구 서울시장공관 담장까지 길게 이어진 성벽을 볼 수 있다.



혜화동 안내센터

한양도성 혜화동 안내센터

혜화동 옛 시장공관을 개조해 안내센터로 만들었다. 한양도성의 성벽을 담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때 철거 논란이 있었으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보존하고 있다. 지금은 한양도성 순성길의 쉼터가 되고 있는데, 전시실에는 순성놀이 기록, 지도로 보는 한양도성 등이 전시되어 있다.

혜화문

한양도성의 북동쪽에 있는 문이다. 영조 대에 문루를 지었는데, 1928년에 일제가 헐어버렸다. 1994년에 원래 있던 자리에서 북쪽으로 옮겨 새로 지었다.

혜화문에서 낙산을 거쳐 홍인지문에 이르는 구간이다. 서울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낙산은 내사산 중 가장 낮다. 생긴 모양이 낙타 등처럼 생겨서 낙타산 또는 타락산이라고도 한다. 낙산 구간은 경사가 완만하여 산책하듯 걷기에 좋고, 성돌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볼 수 있다.

낙산 구간

한양도성 낙산 순성길



가톨릭대학교 뒷길

한양도성을 따라 걷는 길은 대부분 성 안쪽에 있어서 주로 어깨 높이 정도의 여장만 보인다. 그러나 낙산 구간은 성 바깥에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가톨릭대학교를 따라 이어진 성벽 길에서는 한양도성의 웅장함과 견고함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세종과 숙종, 순조 대의 도성의 모습을 비교해볼 수 있다.

낙산공원

장수마을에서 암문을 통해 도성 안으로 들어가면 낙산공원 놀이광장이 나온다. 낙산공원은 전망이 좋아서 저녁노을과 야경을 보는 재미가 일품이다.

한양도성 낙산 순성길



창신동 채석장 터

낙산 성벽 바깥쪽 창신동 일대는 조선시대에 퇴직한 궁녀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다. 이곳에는 깎아지른 돌산 절벽이 있는데,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채석장으로 쓰였다. 덕수궁 석조전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서울에 지어진 석조 건물들은 창신동 채석장에서 캔 돌을 사용하였다.



창신동 채석장 터

동대문성곽공원 각자성석

각자성석은 한양도성 전체 구간 중 동대문성곽공원 옆에 가장 많다. 성곽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각자성석들을 이곳에 모아놓았기 때문이다. 태조 대와 세종 대의 각자성석에는 구간의 이름과 구간별로 축성을 담당한 군현의 이름이, 조선 중기 이후의 각자성석에는 감독관과 책임기술자의 이름과 날짜 등이 쓰여 있다.

한양도성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은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양도성의 역사와 문화, 가치, 순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동대문병원을 철거하고 세운 서울디자인지원센터 1~3층에 있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도성정보센터와 자료실을 갖추고 있으며, 한양도성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방문객들에게 한양도성의 참모습을 알리고 있다.



한양도성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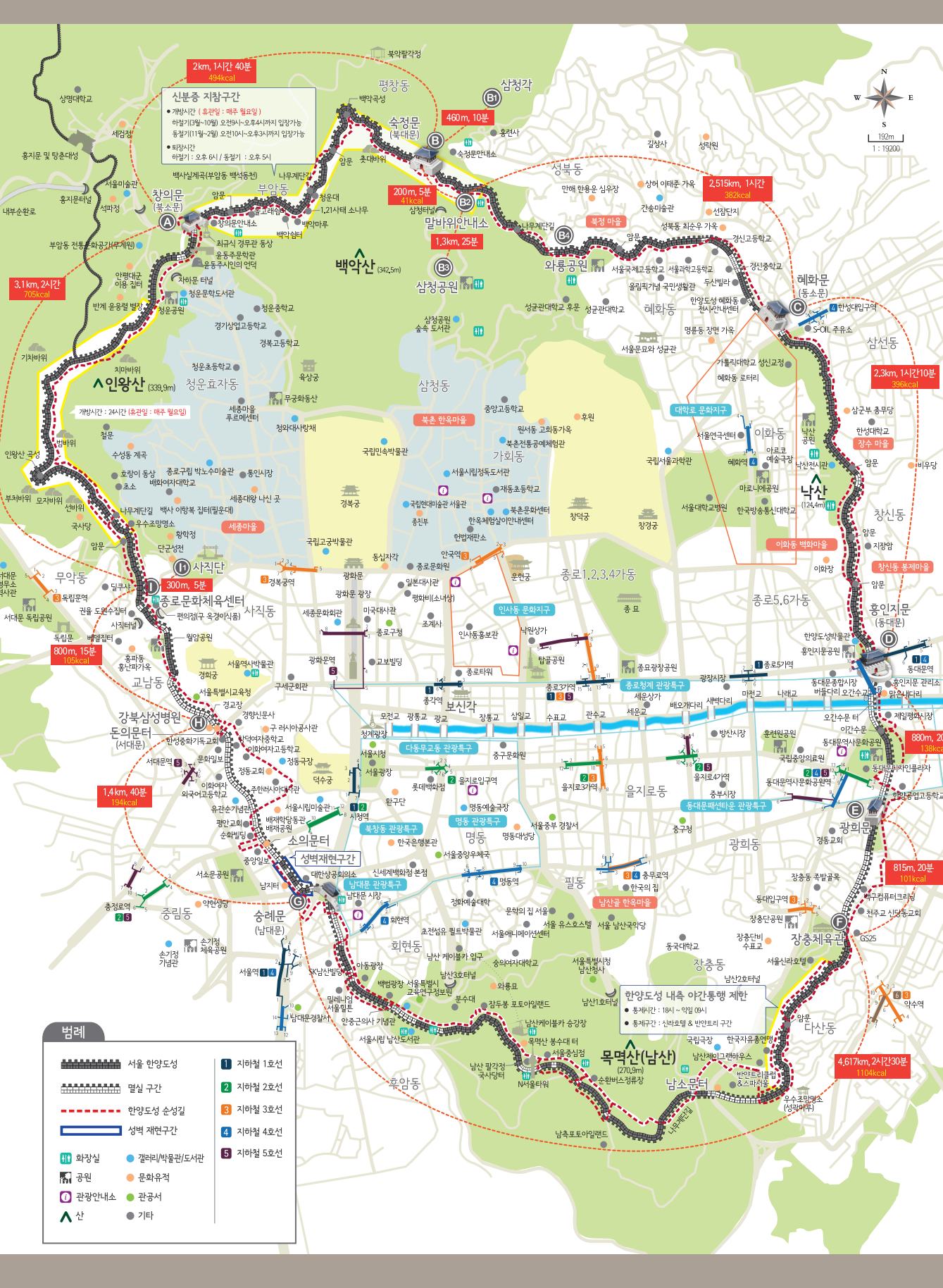
3. 한양도성 순성 안내도



한양도성 순성 안내도는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의
'서울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 안내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은 '한양도성 투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한양도성 소개와 순성 안내, 자료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 홈페이지

<http://seoulcitywall.seoul.go.kr/main/index.do>



범례

- 서울 한양도성
 - 멸실 구간
 - 한양도성 순성길
 - 성벽 재현구간
 - 화장실
 - 공원
 - 관람안내소
 - 산
 - 갤러리/박물관/도서관
 - 문화유적
 - 관공서
 - 기타
- 지하철 1호선
 - 지하철 2호선
 - 지하철 3호선
 - 지하철 4호선
 - 지하철 5호선

한양도성 내측 야간통행 제한

- 통행시간 : 18시 ~ 익일 0시
- 통행제한 : 신라호텔 & 반얀트리 구간

목멱산(남산)
(270.3m)

남산3호터널
남산4호터널
남산5호터널
남산6호터널
남산7호터널
남산8호터널
남산9호터널
남산10호터널
남산11호터널
남산12호터널
남산13호터널
남산14호터널
남산15호터널
남산16호터널
남산17호터널
남산18호터널
남산19호터널
남산20호터널
남산21호터널
남산22호터널
남산23호터널
남산24호터널
남산25호터널
남산26호터널
남산27호터널
남산28호터널
남산29호터널
남산30호터널
남산31호터널
남산32호터널
남산33호터널
남산34호터널
남산35호터널
남산36호터널
남산37호터널
남산38호터널
남산39호터널
남산40호터널
남산41호터널
남산42호터널
남산43호터널
남산44호터널
남산45호터널
남산46호터널
남산47호터널
남산48호터널
남산49호터널
남산50호터널
남산51호터널
남산52호터널
남산53호터널
남산54호터널
남산55호터널
남산56호터널
남산57호터널
남산58호터널
남산59호터널
남산60호터널
남산61호터널
남산62호터널
남산63호터널
남산64호터널
남산65호터널
남산66호터널
남산67호터널
남산68호터널
남산69호터널
남산70호터널
남산71호터널
남산72호터널
남산73호터널
남산74호터널
남산75호터널
남산76호터널
남산77호터널
남산78호터널
남산79호터널
남산80호터널
남산81호터널
남산82호터널
남산83호터널
남산84호터널
남산85호터널
남산86호터널
남산87호터널
남산88호터널
남산89호터널
남산90호터널
남산91호터널
남산92호터널
남산93호터널
남산94호터널
남산95호터널
남산96호터널
남산97호터널
남산98호터널
남산99호터널
남산100호터널

서울의 밤, 찬란하게 빛나는 남산의 야경.





참고자료

이 책의 본문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2015, 〈한양도성 각자성석과 축성기록〉
-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2015, 〈남산에서 찾은 한양도성〉
- 서울역사박물관, 2015, 〈남산의 힘〉
-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2015, 〈도성과 마을〉
-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2015, 〈서울 한양도성〉
- 조영하, 2012, 〈서울, 도성을 품다〉,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2009, 〈남산 봉수대지 발굴조사보고서〉
- 서울역사박물관, 2011, 〈도성 발굴의 기록 1〉
- 서울역사박물관, 2012, 〈도성 발굴의 기록 2〉
- 서울역사박물관, 2016, 〈도성 발굴의 기록 3〉
- 홍순민 외, 2014, 서울역사박물관대학 자료집 〈한양도성의 대문과 소문〉,
서울역사박물관
- 홍순민, 2016, 〈한양도성, 서울 육백년을 담다〉,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 김도형, 2010, 〈순성의 즐거움, 서울성곽 600년을 걷다〉, 효형출판
- 문동석, 2013, 〈한양, 경성 그리고 서울〉, 상상박물관
- 송용진, 2009, 〈송내관의 재미있는 궁궐 기행〉, 지식프레임
- 송용진, 2010, 〈송내관의 재미있는 궁궐 기행 2〉, 지식프레임
- 유홍준, 201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9 서울편(1)〉, 창비
- 유홍준, 201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0 서울편(2)〉, 창비
- 서울학연구소, 2015, 〈중구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사업〉, 서울시 중구청
- 성북문화원, 2014, 〈한양도성 이야기 자원 모음집〉
- 문동석, 2013, 〈서울 중구 12경, 살아 있는 전통을 만나다〉, 서울중구문화원
- 박경룡, 2011,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서울중구문화원
- 토미이 마사노리, 한동수 외, 2009, 〈서울 중구, 남겨진 풍경 지나간 흔적〉,
서울중구문화원
- 박경룡, 2007, 〈정동, 역사의 뒤편길〉, 서울중구문화원
- 김선풍, 2007, 〈중구의 세시와 풍속〉, 서울중구문화원
- 김선풍, 2001, 〈중구의 구전설화〉, 서울중구문화원

신승철, 휴현희, 1999, 〈서울 중구, 도심 속으로의 역사기행〉, 서울중구문화원
이재곤, 1998, 〈남산의 역사와 문화〉, 서울중구문화원
중구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회, 1997, 〈중구 사화〉, 서울중구문화원
김용관, 2012, 〈서울, 한양의 기억을 걷다〉, 인물과사상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서울지명사전〉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서울한양도성 <http://seoulcitywall.seoul.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대한민국역사박물관 <http://www.much.go.kr>
서울역사박물관 <http://www.museum.seoul.kr>
서울학연구소 <http://seoulstudies.uos.ac.kr>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두산백과 두피디아 www.doopedia.co.kr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100.daum.net>

이 책에 사용한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아카이브 http://www.museum.seoul.kr/archive/NR_index.do
한양도성박물관 한양도성아카이브 http://www.museum.seoul.kr/scwm/NR_index.do
서울특별시 서울사진아카이브 <http://photoarchives.seoul.go.kr>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디지털아카이브 <http://archive.much.go.kr/index.do>
국립고궁박물관 <http://www.gogung.go.kr>
서울시설공단 <http://www.sisul.or.kr>
shutterstock <https://www.shutterstock.com>

이 책의 '중구의 각자성적 도록' 사진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이 제공하였습니다.

한양도성과 중구의 각자성석

저작권자	© 중구문화원 /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발행일	2018년 1월 31일
발행인	김태웅
발행처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기획	중구문화원 사무국장 김동주
감수	김광시, 한옥현, 이옥희
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1층(02-775-3001)
글/사진/취재	이지کم(02-512-5038)
제작총괄	피앤디브레스(02-2138-1003)
판매여부	[비매품]
ISBN	979-11-88961-01-6 03090

※ 이 책은 『한국문화원연합회_2017년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서울의 중심인 중구는 한양 천도(1394년) 이래로 서울 속의 서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수많은 문화유산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한양도성은 조선시대 태조·세종 대에 농한기 엄동설한에 전국에서 수십만 명을 동원하여 축조한 도성으로, 성돌 하나하나에 선조들의 숨결과 애환이 서려 있는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한양도성의 각자성석은 도성의 지나온 역사와 도성을 쌓았던 사람들과의 시공간의 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공사실명제라 할 수 있는 한양도성 각자성석은 현재까지 288개를 찾아내었는데 그 중 96개가 우리 중구 신당동, 장충동, 다산동, 회현동 등 남산의 도성 둘레길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조들이 물려준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하고, 연구 조사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구문화원에서는 잊혀져가는 중구의 향토자료를 끊임없이 조사 연구 계발하여 앞으로도 계속 서울 중구 향토사 자료집으로 발간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장 이종철

